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와서 도우라 : 세계는 우리는 부른다"

KWMC1992

1992.7.27(월)-8.1(토)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대회목적

세계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재확인하고, 주후 2000년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아울러 북미주 한인교회가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

1. 500여명의 북미주 선교헌신자와 대학생을 초청하여 세계선교사역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2. 300여명의 한인선교사를 초청하여 700개 북미주 한인교회로 하여금 세계선교에 동참하게 한다.
3. 북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1,500명이 참석하여 세계선교의 도전을 받으며 한인교회의 구체적인 선교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4. 제3세계 교회지도자, 교단 및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와 선교사들 상호간의 동반자적 선교협력을 협의하여 선교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5. 북미주 한인교회가 세계선교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위해 연합과 일치를 촉구한다.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연혁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백 만이 넘는 한민족들이 이곳 북미주 미국에 이민의 장을 펼쳐 이제 뿌리를 내리는 중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을 찾아 이 땅을 찾아온 청교도와 같이 한민족의 후예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금 현재 2,500여개의 한인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숫적인 교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미주의 선교의 횃불로 1988년 7월에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북미주 많은 교회의 요청으로 북미주 교회 선교운동의 중심점이 될 상설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의 역할을 북미주 한인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권장하고 협력하며 조정하는 협력기구로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북미주 한인교회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아 한인교회의 선교열기가 세계 방방곡곡에 확산되어 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금번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북미주 교회가 이곳에서 자라난 2세, 3세 선교헌신자들을 선교사로 양성하여 파송하므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선교의 동량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선교경향에서 볼 수 있는 제3세계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글

[환영사]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대회장 임동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Billy Graham Center / Wheaton College(Illinois)에서 "와서 도우라(행 16:9) : 세계는 우리를 부른다"의 주제로 모이는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모여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아 성숙한 교회로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의 주도권이 바뀌어 지듯이 선교의 주도권도 변동되고 있음을 봅니다. 서구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고, 새로운 선교주역으로 한국교회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찌기 맥가브란 박사가 예견한 바 있으며, 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장인 피얼슨 박사도 그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전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서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붕괴, 세계경제권의 재편성, 첨단산업의 발달, 자연환경의 오염, 퇴폐문화의 만연, 정신문화의 미급, 영계의 세속화, 범죄의 범람 등으로 인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인간개조를 통한 재창조를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천년의 장구한 역사속에서 세계에 공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공헌할 것이 있다면 시대적 요청인 세계선교의 주역을 잘 감당하는 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질과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경제력도 있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갖습니다. 이 대회의 주요 목적은 첫째로 일선 선교사의 사기 양양과 교육, 둘째로 2세 선교사 헌신자를 발굴하여 파송하는 일, 셋째로 북미주 모든 교회가 세계선교의 시대적 사명감을 재인식시켜서 동참하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3세계 교회지도자, 선교사, 선교단체 및 교단선교 책임자들과 북미주교회 목회자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세계선교의 그 중요성을 깊이 헤량하시고 적극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선교대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환영사]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이영재



영광스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동역자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1988년 7월 Billy Graham Center/Wheaton College의 대강당에서는 1,400여명의 한인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150여명의 선교사님이 선교지 나라의 고유의상을 입고 입장하는 것을 감격과 눈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에게 주신 세계선교의 주도과 특별히 북미주 한인교회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모든 참석자들의 공감된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을 각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신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4년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계 양대 진영의 하나인 공산주의의 종구국 쏘련연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전에 이미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 유엔군과 이락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폭발적 인구의 증가로 2,000년이 되면 인구가 62억으로 늘어나며, 흉악한 범죄의 홍수, 빈부의 격차, 더구나 최근의 L.A. 흑인들이 한인상가들을 파괴한 폭동사태 등 종교적으로도 이단의 팽배와 미선교지 국가에 먼저 침투해 들어가는 모슬렘, 통일교 등의 혼잡이 심각합니다.

이런 세계 동향 속에서 오직 바른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길임을 재확인케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횃불은 더욱 높이 올려져야 하며, 미개척지를 속히 복음화 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를 추구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택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선교에 관심을 두고있는 세계적 선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요,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일천만 한국 성도들의 확신이요, 성령께서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준비를 책임 맡은자로서 저의 기도는, 첫째,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환과 조화 그리고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연구와 연결.

둘째, 북미주 한인교회가 세계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1.5세와 2세 선교사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발굴하여 파송함으로서 선교현지에서의 언어장벽을 무너뜨리고, 현지의 지도자와 타국 선교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관계 내지는 지도적 위치에서 공동 프로젝트 개발.

셋째,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평신도들이 자신이 받은 전문적 은사? 의사, 기술자, 교사, 간호원 등? 을 통하여 간접 선교사로 지망하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국가에, 기능인으로 들어가서 치료와 교육과 기술을 지도하며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선교사와 팀을 이루어 들어가 입체적인 선교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사를 확보하는 계획과 협력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대회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경말씀이 2,000년대에 선교의 구체화에 기초가 되며, 선교사들의 활동 경험들이 근육이 되고, 많은 선교헌신 지망생들이 구름떼 처럼 일어나서 살을 입히는 역할을 하며, 선교협력자들의 기도와 물질이 실제 선교현장을 역동시켜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가하신 선교사님, 목회자님과 평신도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환영사]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사무총장 **최일식**

1988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며, 흩어졌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더욱 힘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라는 선언문을 남겼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기에 우리 모든 북미주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세계선교운동에 참여하므로 우리 세대에 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차대한 이 때에 "와서 도우라(행 16:9) : 세계는 우리는 부른다"의 주제로 다시 모여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성경강해, 주제강연, 100여개의 워킹샵, 국제협력선교 Consultation들이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교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대회를 참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사역과 선교현지의 생생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모임을 이제 2,000년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각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회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표

고문	계화삼 김동명 김성남 방신학 정승일 조천일 황성수
대회장	임동선 김득렬 김의환 안병국 차현희 한진관
부대회장	고인호 권진태 김남수 김만우 김상모 김상백 김화일 나운태 박재영 박희민 서삼정 선우철 유병춘 이병희 이상훈 이선영 이승제 이영재 장영춘 정남식 조문경 허경삼 김경옥 서준택 유효명 임주선 임 호 전희근 계동춘 김영한 김응주
지도위원	고원용 고응보 김 길 김선배 김석규 김영철 김인식 김혜성 문대연 박재훈 방지형 손명걸 신성국 이승만 이종욱 조효훈 최창욱 함성국
준비위원장	이영재(대표) 고인호 고석희 박희민 유효명 이원상 임택권 조문경
사무총장	최일식
대회실행위원	강신원 강인덕 강세대 김대균 김대기 김상구 김상묵 김상우 김원기 김정국 김창제 김택용 남학희 박근서 박순종 박영희 박이섭 박종기 방지각 변의남 변승지 배현찬 안성기 양성연 안창의 유태중 이기홍 이동원 이상남 이순각 이승운 이영희 이용걸 이정근 이종형 장동찬 장석진 전덕영 전순영 전홍식 정인찬 조용필 최현우 최훈진 홍일천 홍춘만 방조영 석영장 송진창 이상진 이상채 장현식 최용규 황승민 강부웅 강박내 고남철 고원용 김건태 김대순 김대승 김동형 김명남 김민제 김성만 김순철 김영길 김용출 김인철 김일광 김진홍 나광삼 민대석 박순오 소교민 손영구 손인식 손인화 송용걸 송영선 신현국 심관식 안수훈 양춘길 양희철 오재호 오정현 이기우 이석환 이승재 이영섭 이영훈 이용봉 이종민 이필재 이학권 이호선 임동하 장진관 정관봉 정길수 정도인 정상우 정석산 정영규 주인정 최기태 최병수 최상봉 최수영 황규명 황은영 황의춘 황찬규

각 지역별 준비위원회

남가주 지역 위원 **고문** 김동명 조천일 안수훈 임동선 황성수 **위원장** 박희민 **총무** 정해진
 강부웅 고남철 김건태 김경서 김광수 김대순 김대평 김도석 김동형 김봉훈 김성곤 김성수
 김송식 김인식 김재연 박근서 박성근 박종무 변영익 송기성 신동호 심영건 심항구 이기홍
 이동춘 이병희 이상남 이용성 이정근 이정일 이창순 이필재 전순영 전종락 정상우 정석산
 정시우 정여창 정해진 정희주 차현희 한덕수 홍순도 방조영 송진창 이상채 임 호

오렌지카운티 지역 위원 **위원장** 최영빈 최현우 송요섭 **총무** 박종기 최승구
 김달생 김동운 김상구 김상우 김용태 김영길 김홍기 라무열 문형봉 박근서 변의남 손인식
 신용규 양금호 오정현 윤성원 이종은 이치권 임철빈 정길수 정도량 조문경 최수영 최승구
 최영구 추원호 허선교 허영진 황천영

북가주 지역 위원 **위원장** 장희선 **총무** 임동하
 강박내 강석홍 길영환 김재태 석요한 신현국 이정근 이지춘 임동하 임형태 장희선 조성걸
 조용필 조효훈 주인정 최기태

워싱턴주 지역 위원 **위원장** 김택용 **공동위원장** 김상목 김화일 **부위원장** 이원상(상임)
총무 손인화 **협동총무** 길인수 **서기** 이순각
 고원실 김병춘 김석현 김원기 김재동 김종철 나광삼 민대석 반병섭 서준택 송문섭 송영선
 안병국 양성언 오관섭 이동원 이상훈 이승태 이영섭 이영훈 장시춘 조영진 최승운 최윤환
 최훈진 한철우 황수봉 황찬규

시카고 지역 위원 **위원장** 강인덕 **공동위원장** 강신원 문장선 변승지 박이섭 안성기 홍일천 **총무** 최병수 **서기** 김승기
 강덕수 강형길 고응보 김광삼 김기일 김대균 김명남 김민제 김순철 김창제 나운태 명병현
 박상진 박상현 박원근 박유수 배영섭 백송학 석정문 송주방 송용걸 안영배 안영철 양대식
 유태중 이경희 이석진 이요한 이용삼 이종민 이종욱 장민호 장욱정 정상균 조규현 조영익
 조은철 조현배 차동만 최순자 최용규 최호승 허정숙 허 철 황승민 황주홍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 위원 **위원** 강덕영 구영환 김득렬 김응을 김상백 박동원 박선웅 선우철 신이삭 안덕치 유병춘
 유효명 윤영봉 이기우 이만길 이재형 장진광 장현식 전갑웅 전덕렬 최은종 한영환

텍사스 지역 위원 **위원장** 정인찬 **공동위원장** 소교민
 김석인 김성만 김순일 손용호 신인훈 이용봉 정사드락

아틀란타 지역 위원 **위원장** 김형찬 **총무** 박준노
 고원용 김대기 서삼정 정문모

플로리다 지역 위원 **위원** 강재구 배현찬 오재호 유시욱 최요한

뉴욕 지역 위원 **위원장** 장영춘 **총무** 안창의 **서기** 강성진
 고석희 곽규석 김남수 김리관 김상모 김승희 김일광 김정국 김종덕 남학희 박순오 박순중
 박재철 박희소 방지가 손영구 신성능 양희철 이명한 이종형 이승운 이승재 이영희 이철
 이학권 이학모 이호선 장석진 정도인 정영규 정태진 조남훈 조덕현 최용열 한세원 한진관
 서홍석 석영장 임주선 한경운

뉴저지 지역 위원 **위원장** 오다윗 **공동위원장** 박재영 김용주 **총무** 황은영
 광영철 김인환 김창길 김철연 김춘실 서광진 신명동 안수식 윤명호 윤사무엘 이우웅 이용호
 이종안 장동찬 정성만 정인영 황의근 황의춘

뉴잉글랜드 지역 위원 **위원장** 최치규 **총무** 이의철
 권진태 김의승 박명수 송동석 장세운 전덕영

필라델피아 지역 위원 **위원장** 최이열 **공동위원장** 고인호 김만우 이승제 립택권 **총무** 강세대
 김대승 김창걸 김풍운 송석홍 여한구 이병규 이용걸 전희근 황규명 황준석

토론토 지역 위원 **위원장** 정도량 **총무** 최사무엘 **서기** 임성진
 계화삼 김성배 김용출 김은대 김인철 김재열 박재훈 안병한 이석환 임현수 정관일 최상봉

위스컨신 지역 위원 **위원** 선우철 장진광 허규행 남궁전

기타 지역 위원 **위원** 김명길 신동환 홍춘만

한국준비위원회

고문 한경직 방지일 김창인 박태선

대회장 정진경 **공동** 곽선희 림인식 김충기 김선도 곽전태 이성택 이종성 석원태 김장환 김준곤 한철하 한완석
 최 훈 오신주 최성구

부대회장 김삼환 김상복 김홍도 나원용 박종순 신성중 임영수 박조준 신동혁

위원 강동수 강병훈 강승삼 고용복 길자연 김경원 김광식 김광웅 김기수 김동호 김상학 김윤배 김승욱 김찬중
 나겸일 노봉린 박광철 박근용 박병식 박은조 박창환 박태희 서정운 손봉호 손영호 송용필 신세원 신예철
 양문화 예종락 옥한흠 유병기 윤남중 이강천 이경준 이광선 이동휘 이삼성 이성희 이 순 이영수 이정익
 이정조 이종래 임순삼 임철재 장자천 전재욱 정영관 정영환 정필도 조남국 조석연 주계명 최병환 황용현
 홍정길 (가나다순)

총무 최기만(상임) 김명혁 전호진

KWMC1992 일정

일시	7/27(월)	7/28(화)	7/29(수)	7/30(목)	7/21(금)	8/1(토)	
06:00-06:50		새벽기도회					
		김삼환 이제임스/선교사	김충기 양춘호/차세대	길자연 조용중/선교사	이병희 김의승/차세대	김상모 박상목/선교사	
07:00-08:15		아침식사					
08:30-09:20		성경강해					
		곽선희	곽선희	Ajith Fernando			
09:30-10:50		주제강연					
		김의환	곽전태	신성종	정진경	고석희	
		조동진	이상현	이태웅	장영춘		
10:50-11:10		휴식					폐회예배
11:10-12:30		선교도전					박희민/사회 림인식/말씀 임동선/성찬
		김영일/선교사	김종국/선교사	유부웅/선교사	황윤일/선교사		
		정윤진/선교사	윤수길/선교사	이신철/선교사	강두호/선교사		
		유환준/선교사	박진구/선교사	조성덕/선교사	김봉래/선교사		
		Frank Severn /SEND	R. Wiinchell /TEAM	Fred Beam /AIM	D. Cum- mings /WBT		
		Dan Bacon /OMF	Pat Cate /IMI	Ian Hay /SIM	Larry Keyes /OC		
12:30-01:30		점심식사					
01:30-03:00		워크샵					
03:00-03:30		휴식					
03:30-05:00		워크샵					
05:00-05:30		휴식					
05:30-07:00		저녁식사					
7:30-09:30	개회예배	선교대회					
	이영재 조천일 R. Chase 이성택	아시아 장순호/선교사 한승인/선교사 변재창/선교사	동구권/중동 조용성/선교사 손영삼/선교사 최원섭/선교사	아프리카 김정윤/선교사 김종양/선교사 류영재/선교사	남아메리카 강성일/선교사 김영화/선교사 김경하/선교사		
	P. Konoval- chik	P. Octavianus	P. Kuzmic	Panya Baba	Luis Bush		
	김장환	김득렬	안병국	차현희	한진관		
09:30-10:30	친교 및 기도회						



개회예배

사회/ 이영재 목사
선교사 입장/ 참가선교사 전원
개회선언 및 기도/ 임동선 목사 대회장
환영사/ 리차드 체이스 박사 횃튼대학 총장
격려사/ 조천일 목사 KWM'88 대회장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코노발치크 목사 러시아
말씀/ 김장환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내가 여기 있다

[저녁선교대회 주장연]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아세아방송 이사장, 극동방송 사장, 한국심대선교회 이사장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로마 중심이었습니다. 근세교회는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20세기는 미국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한국교회가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의 어느 선교 전문가의 말대로 유럽의 선교상황은 밤 9시가 지났고 미국의 선교상황은 오후 2시 쯤 지났습니다. 한국의 선교는 이제 아침 7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동굴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이 깎지어다. 비파야 수금야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 57:7-8)"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이 선교에 헌신하기로 확정되었사오니

저희가 노래하고 저희가 찬송하리로다.

국내의 교회들이! 북미주 교회야!

깎지어다, 우리 함께 선교의 새벽을 깨우러 가자.

깎지어다, 우리 함께 선교의 새벽을 깨우러 가자"

이제 한국교회가 발판이 되어 북방복음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슬람의 복음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데 작년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걸프전쟁은 아랍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천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책임을 지고 아랍권 복음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다짐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몇명의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1) 아세아 연합신학대학(ACTS)의 마린 벨슨(한국이름 나일선, 50세) 교수는 현재 한국에는 54개의 선교회가 있고, 세계 8개 나라에 1천6백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어느 선교 전문기구에서 각 교단에 "귀 교단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는 몇명입니까?" 라고 질의를 하고 얻은 선교사 통계를 집계해 보니 82개국에 7백47명이 됩니다. 이들의 활동을 알기 위해서 모두에게 편지를 냈더니 답장을 보내 준 선교사는 4백명이 채 안되었다고 합니다.

3)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전재욱 교수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68개국 1,50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고 있는 9개 교단 선교부와 20개 선교기관의 연간 선교예산은 130억원 정도입니다(1990년). 같은 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26억9천2백90만 리터로 그가격은 출고가 기준으로 2조5천억원입니다. 선교비의 2백배에 가깝습니다. 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밝혀야겠는데 199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맥주 61병, 소주 46병을 마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1991. 8.13).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술 소비량만 급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 선교사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 교회, 천만 신도를 등록상표처럼 내세우는 한국교회에서는 타문화권 파송선교사가 고작 2천명 미만,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 격입니다.

한자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란 말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 속에 좁쌀알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현황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구우일모(九牛一毛)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에는 10년에 두 배씩 성장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도 12.5%의 성장률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교를 등한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는 선교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 3세계가 그렇습니다. 올 1월 1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2초마다 5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중 3명은 아시아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21세기 초에 세계 인구를 63억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케냐 같은 나라는 인구 50%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증가의 90% 이상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인구는 1억6천9백명, 현재 총인구 7%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구촌에 5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매주 25만명의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위도 10-40도 사이가 주요 선교대상지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론 캠프와 요셉 스파이라는 학자는 세계 1백30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에 통계적 등급을 매겨, '인간의 고통지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고통지표는 수입, 인플레이션, 새로운 직장에 대한 요구, 도시인구 압력, 유아사망률, 영양공급, 깨끗한 물, 에너지 소비량, 성인 식사율. 개인적인 자유에 따른 것인데 '고통지표'가 높은 나라일수록 기독교 인구가 적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선교대상국도 지정이 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모잠비크,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차드, 말리 등이 생활조건이 가장 악하며,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은 46번째라고 합니다.

위도 10-40의 Window에 보면, 회교도 10억, 불교 3억, 힌두교 7억, 공산주의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

구는 전체 인구의 33.3%인 17억9천5백만이고 국가별로는 이슬람국 28개국, 불교국 8개국, 힌두국 2개국, 공산주의국 6개국 등으로 4대 비기독교국가들이 이곳에 있어 선교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중요 선교전지는 2천년에는 서 선교사의 수는 13만1천7백20명, 제3세계 선교사의 수는 16만4천2백3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세계 선교를 크게 기대했고 또한 미국은 그만한 공로를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는 세계선교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때 미국인은 세계의 58%의 부를 가졌고 78%의 보험을 소유했고, 60%의 자동차를 소유했었습니다. 지난 2백년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앞으로 2천년대에다 과거만큼 일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New York시 청년 가운데 92%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 1) 매 34분마다 범죄사건이 발생
- 2) 매 22초마다 살인사건이 발생
- 3) 매일 1천9백94명의 사생아가 태어납니다.
- 4) 매일 3만9천1백9 파운드의 마리화나가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 5) 매일 24명이 AIDS로 죽습니다,
- 6) 매일 유아식품 사용액 \$2,054,795.00
- 7) 매일 고양이식품 사용액 \$5,845,205.00
- 8) 매일 개식품 사용액 \$8,550,685.00 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는데,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사람이 1년에 버리는 음식을 강으로 환산하면 8조억원이라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이다' (시 9: 17)

지금 주후 2천년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빠짐 없이 복음을 전하자는 '주후 2천년 운동'(AD 2000 Movement)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오십일조 운동입니다. 성도 50명당 타문화권 선교사 한명씩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계산대로 한다면 한국교회는 20만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도와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성도 50명당 타문화권 선교사 한명이라는 계산은 서구 산업사회국가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교파가 너무 많은 것. 신앙과 생활의 분리, 교역자의 자격문제, 무인가 신학교, 개교회주의 등등 여러가지를 듭니다만 이제는 그 답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선교사 파송이 빈약한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거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2.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문화권 선교사의 숫자 하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선교활동의 실정입니다. 아까 어느 선교 전문기구에서 각 교단에 질의해서 얻은 선교사 총수가 7백47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동질문화권 선교(교포선교) 종사자로서 해외선교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전에 현지교회의 초청으로 외국에서 원주민 상대의 전도집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국선교사들이 십여명 수고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집회에 왔습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식사를 대접했는데 놀라운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최소한 몇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단과 단체에, 또는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

하다 보니 서로 만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신학의 통일된 정립을 위해, 선교정책협력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며, 가슴을 뜨겁게 하사 이같은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부 인도 순회전도의 개척선교사 Thomas Ragland는 185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다. 그 분이 세상을 떠나고 40년 뒤 한 선교사가 Ragland 선교사의 훈련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에게 Ragland 선교사의 훈련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3. 선교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산실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는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교회는 더욱 부흥하여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선교부흥의 전제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하 7: 14)

가. 기도는 부흥의 절대 요소입니다 - 42년전 6.25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 국토의 전부를 거의 공산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때 백척간두의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나. 기도는 부흥을 준비해줍니다 -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9-11)

a) 마르틴 루터 - 그가 속해 있는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그의 깊은 요구가 위덴버그 대학의 신학교수로 있을 때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1512년 겨울 마틴 루터는 위덴버그 수도원 탑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깊이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도와 성경연구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루터가 많은 고뇌 가운데 기도를 했던 결과였습니다.

b) 요한 웨슬레 - 영국 앵무드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인 그는 당시 영국교회의 형편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나쁜 조건 속에서 떼지어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심하게 동요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그는 한 조그만 모임에서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두를 읽고 있을 때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실로 그는 거둬냈고 이로써 요한과 찰스,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함께 많은 대중들에게 복음전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새로 기쁨 부은 바 된 종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리교 부흥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도에 힘쓴 결과입니다.

c) 찰스 피니, 드와이드 무디, 토레이 - 19세기가 끝날 무렵 하나님은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으로 생명의 기쁨부으심을 받아 설교하였습니다. 웨슬레의 가르침은 영국에서 18세기 프랑스혁명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었고, 결코 이 새로운 부흥의 기운이 정치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주어 국제적인 파괴의 재난을 피하게끔 해주었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

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종 지나간 시간 기도하러 나가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가리켜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운동은 지금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배운 동남아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동남아 여러 교회에 산 기도원이 생기고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내 친한 친구 목사님인 조용기 목사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일 설교를 하면 5천명만 모이고 조목사님은 50만 명이 모이는가? 교육도 조목사님 만큼 받았고, 나이도 더 많이 먹었는데."

조목사님 대답하기를

"김목사님은 하루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약 30분씩 기도합니다."

"나는 5시간씩 합니다." 나는 그때서야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자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이 세계에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밤새워 기도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 말씀전파는 선교부흥에 대한 계획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한 사람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 거리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시간 안에 전세계 사람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알았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2천년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반수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케이프 케네디에서 미국은 달나라에 인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그들

은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널 암스트롱이라고. 그러나 그들에게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 그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라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하메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와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을 때, 한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누가 이겼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조 프레이저가 이겼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양치는 목자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누가 이겼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News는 금방 알면서,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까?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부흥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흥을 찾지 않는다면, 이 낡은 세계는 곧 완전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딤후 4:2)"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히 4:2)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 뉴잉글랜드의 획기적 부흥을 가져온 것도 요나단 에드워드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가르침은 삼천명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를 가져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과 105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제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세계를 부흥케 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3-24)"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룩하고 성경의 교훈은 영원하며 성경의 역사는 확실하고 성경의 약속은 불변이요,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며 제목이요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표이고 지혜롭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믿어야 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선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3) 성경은 선교부흥의 통로입니다.

가끔 기독교인의 행실로 인하여 거룩함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벧전 1:16)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활동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결코 영혼 깊숙한 영적부흥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통하여 커다란 깨우침(자각)을 가져왔습니다.

가. 이상승배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 우리는 수십가지의 이상승배적인 제사, 미신 등에 둘러싸여 그것들과 타협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한대로 우리들의 신앙지조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관습과 전통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무시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나. 비도덕적인 생활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4) 찬양신앙은 선교부흥에 우선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 117:1-2)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처럼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5) 핍박은 선교부흥의 선결조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것을 봅니다. 그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핍박은 참으로 심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백여년 전 카톨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백여년 전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들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쇠국정책을 쓰는 나라였던 한국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결국 한국에 들어오려 했던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핍박으로 흩린 순교자의 피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암리 가까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는 모두 잘 아시는대로 삼일운동 직후에 일본군대가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문을 닫아 걸고 불을 질러 수십 명을 태워 죽인 곳입니다. 제암

리 교회의 수난은 한국교회가 받은 핍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일본인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암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없어진 그 교회자리를 돌아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을 보면서 애통과 회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불 타 없어진 바로 그곳에 교회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1971년 9월 새로운 교회 하나가 그곳에 헌당되었습니다. 그 헌당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드려지며, 감사패가 증정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그 때 참석한 일본인 사절단들은 모두 일어나서 한국인 대표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지난날을 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경이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일할 도구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끝장내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은 우리들을 향해 "우리에게 도구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에게 도구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고 말씀하신 주님! 이 대화를 축복하소서! 아멘.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제임스리 선교사
설교/ 김삼환 목사 서울 명성교회

성경강해

강사/ 곽선희 목사 서울 소망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김의환 목사 나성한인교회
주제강연 II 강사/ 조동진 목사 국제선교협력기구 총재
선교도전 I 강사/ 김영일 선교사 필리핀
선교도전 II 강사/ 정운진 선교사 인도
선교도전 III 강사/ 유환준 선교사 대만
선교도전 IV 강사/ 프랭크 서번 SEND
선교도전 V 강사/ 댄 베이컨 OMF

제택선교대회

선교보고/ 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한승인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변재창 선교사 일본
선교도전/ 페트루스 옥타비아누스 President of IMF
설교/ 김득렬 목사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새벽기도회 설교]

서울 명성교회 담임 **김삼환**

서울 명성교회 담임목사, 한국외향선교회 이사장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차세대 **제임스 리**

- I. Introduction
- II. Jesus' Instruction to His Disciples
- III. The Intrusive Nature of the Gospel
- IV. Purpose of Jesus' Arrival
- V. Jesus' Summary of His Spiritual Battle
- VI. Conclusion

Sometimes after witnessing the persecution and hardships received for spreading the gospel, the question often asked is, "Is the gospel really worth the suffering?" James Lee is here to bring perspective back by explaining the nature, function, and purpose of the gospel message we must take to the unknown parts of the earth.

에베소서 [1]

[성경강해]

서울 소망교회 담임 **곽선희**

서울 소망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서울장로회신학회 이사장



세계선교의 역사적 조명과 방향제시

[주제강연]

나성한인교회 담임 **김의환**

나성한인교회 담임목사, International 신학교 교장,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의장



서언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로써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에 탄생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그리고 사역에 기초를 둔 역사적 종교이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또한 오순절을 기해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속될 역사적 기관(Historical Institution)이다.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임무 수행인 세계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이 아침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이다. 이 시간 나는 「세계선교의 역사적 조명」이라는 제하에 세계선교의 역사적 고찰, 현재의 상황 분석을 통하여 세계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세계 선교의 역사적 고찰

1) 종교개혁 이전 (초대교회 - 15세기)

가. 초대 선교운동

바울의 필생의 선교운동은 이미 사도시대에 복음의 메아리가 로마의 전역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사도시대 이후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복음은 여러 부족들에게 지하수의 흐름처럼 로마에 흩어진 여러 부족들에게 은연히 전파되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된 곳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 코넬리우스 감독 때에는 로마의 신도수는 수십만을 넘었고 46명의 감독과 백명이 넘는 교역자들이 선교하고 있었다. 3세기 중엽까지는 약 100명이 넘는 감독들이 있었고 꾸준한 성장이 있었다.

고을 : 2세기 중엽에 벌써 리용과 원지방에서 교회가 크게 번창하였고 3세기 중엽에는 7명의 선교사가 로마로부터 파송되었다.

칼타고 : 220년에 칼타고 대회가 열릴 때에 70명의 감독이 참석하였다.

스페인 : 바울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선교했을지도 모른다(롬15: 23). 3세기 중엽에는 상당수의 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르메니아 : 전설에 의하면 그레고리라는 선교사에 의하여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다, 박해 중에도 그의 선교는 크게 성과를 거두어 터리다테스왕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천 부족이 왕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그레고리는 감독으로 추대되었다.

인도 :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며 6세기에 인도 교회가 건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나. 중세기의 선교운동

중세기에 있어서 우리는 초기 중세의 영광을 그 선교열에서 볼 수 있다. 물밀듯 남쪽으로 밀려오는 북방의 만족을 복음으로 막아 그들을 복음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멀리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운동에 힘썼다.

(1) 영국의 개종

교황 그레고리 1세의 파송을 받은 Canterbury의 대주교 어거스틴은 596년에 30여명의 수도사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켄트와 에데버트를 전도하여 597년 2월에 세례를 받게 하고 점차 온 나라를 기독교로 개종케 하였다.

(2) 대학선교

- * 영국에서 일어난 성공적 선교의 결과는 대륙에서도 나타난다.
- * 아일랜드와 아이오나섬은 유럽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
- * 게르만 민족의 선교를 위하여 아일랜드로부터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 * 점차적으로 고을 지방과 프리지아 지방이 선교화 되었다.
- * 8세기에 뛰어난 선교업적을 남긴 선교사는 윈프리트(Winfrid 680-754)였는데 그는 뛰어난 지도력과 조직력으로 흩어진 지역교회들을 연합시켜 수도원을 세우고 일군을 양성하였다. 눈부신 선교업적은 그의 탁월한 선교전략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먼저 왕과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먼저 전도하여 진 부족의 일시 개종에 힘썼다. 그는 그의 성공적 사역 도중에 그의 제자에게 그의 일을 물려주고 50여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새선교지를 찾아 나서고 전도하던 중 이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755년 7월 순교하였다.

다. 중세기 후반기의 선교운동

타락과 사치의 깊은 장에 빠진 중세교회의 영적인 퇴조에 수도원들의 개혁운동이 중세 후반기 교회의 활력소가 되고 또한 선교의 명맥을 유지케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선교역사로서는 매우 침체된 기간이었다.

2) 종교개혁 이후 (16-17세기)

흔히 개혁자들을 통한 종교개혁의 강한 영향이 개신교내의 선교에의 필요성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당시 발달된 항해술을 통한 새로운 식민지개척과 무역의 활발한 교류를 선교에 유효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종교개혁 이후 1700년초까지 개신교는 세계선교의 주도권을 로마 카톨릭에 완전히 내어준 채 세계선교의 관심과 노력을 전혀 갖지 못하였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그 기간 중 유럽에서 개신교에 잃은 인원보다 더욱 많은 수의 개종자들을 식민지를 통하여 얻었으니 개신교 교회들로 하여금 세계선교의 영역에서 자그만치 약 2세기 동안을 잠잠게끔 한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살펴 볼 수 있다,

가. 연약한 개신교 교회들의 상황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당면과제는 '생존'의 문제였다. 로마 카톨릭의 반개혁운동과 종교재판을 통한 신교탄압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었던 개신교 초기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고 본다.

나. 개신교 내의 교리적 분열

로마 카톨릭 군사동맹에 대비하여 신교의 영주들도 신교 동맹군을 결성하고 신교도 간의 성례권에 관한 이견조정을 위하여 1529년 말부르크(Malburg)에서 루터파와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들의 회의가 열렸으나 15개 조항의 토의에서 14개 조항까지는 합의했으나 15번째 조항 곧 성찬의 그리스도 임재관에 대한 견해 조절에 실패함으로 회의가 결렬되어 이후 교회의 예배의식, 강단장식,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로 협력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선교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다. 개신교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의 낙후성

종교개혁 이후 약 100년간 세계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로마 카톨릭 국가로서 양국의 국왕들은 그들의 배가 가는 곳마다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함께 보내어 식민지의 기독교화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인 반면 후에 신교국가인 화란과 영국은 무역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의 배에 동승한 목사는 자국민들을 위한 Chaplin이었지 선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선교사를 수송하거나 선교지에 선교사를 살게끔 허락지도 않았다.

라. 개신교 선교기관의 부재

로마 카톨릭 진영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프랜시스 및 도미니크 수도단 등의 수도단들이 자체 개혁을 통하여 선교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더우기 새로이 1540년에는 파리에서 익나티우스 로올라에 의해서 "예수회"가 설립되어 군대조직적 체제와 규율을 가지고 엄격한 훈련과 상관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독신생활과 가난한 삶을 다짐한 수도사들을 통하여 선교지를 널리 확장해 나가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1700년 초기에 겨우 그나마 선교에 관심을 갖고 움직인 가장 큰 개신교의 그룹이 "모라비안"들이었다. 더우기 그들의 대부분은 문맹의 지식보다는 열정이 더욱 많은 자들이었고

수공업자들과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결혼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가야만 하는 훈련받지 못한 자들로서 카톨릭의 "예수회" 수도원들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선교사들이었다.

마. 신학적 논쟁을 통한 교회의 영적 침체현상

첫번째로 선교의 일을 개신교 내에서 시도한 이는 오스트리아의 루터교인이었던 Baron Justinian von Weltz로서 그는 1664년에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라는 팜플렛을 통해 교회들이 선교기관을 설립하여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들은 신학의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영적 열정과 선교적 비전이 결여되었기에 Baron을 가르켜 이상가요 광신자요 이단이라고 지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개들이나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비웃었던 것이다. 당시의 개신교회가 신학적 정통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지나친 교리적 논쟁은 개신교의 교회적 분열현상으로 번지고 그들의 신앙은 날로 차가워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선교는 관심 밖의 대상일 뿐이었다.

바. 종교 개혁자들의 그릇된 신학 (교회관)

개신교가 세계선교에 부진했었던 이제껏 열거한 여러가지의 요소들보다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그릇된 신학에 있다고 본다. 개신교가 처했던 환경적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은 어느덧 극복되어진 요소가 되나 개신교가 선교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가장 근본적 요소는 「신학」의 문제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지상사명」이 단지 사도들에게만 부여된 사명이며 그들은 그 당시에 알려졌던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했기에 그 주님의 명령은 수행되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복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며,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교회는 그들에 대한 권세도 없고 선교사를 파송할 책임도 없다'고 가르쳤기에 그 이후의 교회는 선교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부정해 오게 된 것이다. 또한 마틴 루터는 그의 교회관에 있어서 참 교회의 표징으로 "말씀의 효과적인 선포"와 "성례의 집례"와 "목회 심방 및 권징"을 말하고 있으나 선교의 필요성은 부정했었다. 이와같은 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비전의 결여와 신학의 부채가 이후 약 2세기간의 개신교의 선교부재 현상을 초래한 사실을 살펴볼 때 참

으로 바른 신학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대 개신교 선교시대 (18세기 이후)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은 1648년 Westphalia 평화조약으로 종결된 '30년 전쟁' 이후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시작되었다. 마치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교리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개혁운동이었던 것과 같이 경건주의운동 또한 유럽 개신교의 국가교회(state churches)의 메마른 정통주의와 생명력을 상실한 영적침체 현상에 대한 개혁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을 교리적 개혁운동이라고 본다면 경건주의운동은 신앙의 생활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이 운동의 주도자는 스펜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였다. 루터교 목사로서 그는 푸랑크푸르트에서 19년간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서 독일의 경건주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건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세가지로 요약하자면 : 첫째로 참된 회개의 경험과 인격적 신앙의 강조; 둘째로 성경 공부, 기도생활, 진정한 교제를 통한 내면생활의 개발; 셋째로 선교적 열정을 강조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 종교는 '마음'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 이전의 많은 개혁자들이 겪었던 스펜너 또한 당시의 정치 및 종교지도자들에게 극심한 반발과 박해를 받았으나 그중에서도 경건주의운동의 열매는 독일의 여러 교회들 내에서 맺혀져 가고 있었다. 마침내 독일의 쾰른(Saxony)의 대학들이 경건주의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1694년에 그들 자신의 대학을 할레(Halle)에 설립하였다.

10년간 할레대학을 키운 스펜너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프랑케(August Francke, 1663-1727)였다. 프랑케의 영향으로 할레대학은 18세기 경건주의운동의 교육과 세계선교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가. Danish-Halle Mission (첫번째 개신교 선교기관)

경건주의운동의 온상이 할레대학을 통하여 첫번째 개신교 선교기관이 설립되었다.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는 1705년 코펜하겐의 궁정목사였던 프란츠 뢰트겐(Dr. Franz Lut-

kens) 목사에게 동인도 지역에 파송할 선교사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자국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는데 실패한 그는 독일의 스펜너와 프랑케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할 것을 부탁하여 할레대학 출신들로서 프랑케의 제자들인 지겐발그(Bartholomew Ziegenbalg)와 플뤼샤우(Heinrich Plutschau) 두 사람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보다 약 100년 전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계속하여 할레는 프랑케의 주도하에 세계선교의 센터가 되어갔다. 이러한 선교사업은 독일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죽은 정통의 껍질을 벗고 살아있는 교회로 탈바꿈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게 했다. 할레대학이 창설된 지 반세기도 못되어 약 6,000명 이상의 목사를 배출하여 독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일꾼을 보냈다.

나. 모라비안 선교단

1467년 핍박을 당하던 존 허스(John Huss)의 추종자들은 형제단(United Brethren)을 형성하고 지냈는데 종교개혁 이후 로마 카톨릭의 탄압으로 1722년 Saxony로 피난 와서 진젤돌프가 제공한 대지에 거하게 되었다. 당시 300명이 넘는 그들은 피난민촌을 만들어 '주님의 땅대'라 이름을 짓고 진젤돌프를 지도자로 모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사회를 이룩하였다. 진젤돌프(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할레의 산물과도 같은 자로서 10세에 할레 신학교에 들어가 프랑케에게 교육을 받았다. 프랑케의 영향으로 신앙관이 확립되고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신학을 더 공부하지 못하고 법률을 공부하였으나 후에 1734년에 루터파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고 18세기 개신교에 있어서 프랑케와 함께 세계선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732년부터 1760년까지 226명의 모라비안들이 10개국에 선교사로 들어가 사역하였고 1930년까지는 3,000명 가량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그들은 성찬교인 12명 중 1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해 온 놀라운 선교적 열성을 유지해온 그룹이다. 그들의 이러한 선교적 열매는 처음부터 세계선교가 기독교회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선교는 어떤 특정한 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기독교공동체 및 개개인 모두의 과제임을 주지시킴을 결과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선교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신학보다 더욱 뛰어났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진젤돌프가 이끈 모라비안파는 수적으로 아주 극소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긴 영적유산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존 웨슬레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전도자들이 이들의 열심과 선교비전에서 영감을 받아 헌신을 다짐했다.

다.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1761-1834)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세계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종교개혁의 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때에 마틴 루터가 등장한 것과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윌리엄 캐리의 등장으로 세계선교의 큰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세계선교운동의 개진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팀 기관선의 개발로 대양을 통한 동서간의 활발한 해상 교통의 발전과 아울러 진행된 식민지화, 또한 유럽의 경건주의운동과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대각성운동 등의 영적 쇄신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치루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723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밀러는 미개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의 중보기도를 주장하고 이후 약 20년 후에는 영국 전역에 식민지의 미개인들을 위한 기도그룹이 생기게 되었다. 1747년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갈 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는 제임스 쿡(James Cook)의 항해기 「The Last Voyage of Captain Cook」을 읽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1772년 8페이지의 소책자를(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통해 크리스천은 그 소유를 바쳐 이방인을 회개시킬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고 그 해 10월 이 이사야서 54:2-3절 설교로 침례교 외국 선교회를(The Particular Baptist Society for Propagating the Gospel among the Heathen) 조직하였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는 못마땅해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두 명의 동행인과 함께 5개월의 긴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한 윌리엄 캐리는 그후 40년간을 활발한 선교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의 영향으로 수 많은 선교기관

이 생기기 되고 이 기관들은 19세기 세계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라. 19세기 선교운동

19세기에 들어 세계선교운동은 활짝 피어 오르게 되었다. 수많은 선교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조직화 되고 전문화된 선교운동이 바야흐로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선교기관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초교파 선교기관의 등장인데 그중에는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와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등이 있고; 둘째는, 교단별 선교기관이 있고; 세번째로, 19세기 중엽에 생겨난 '믿음선교기관'(the faith mission)이 있는데 그중에는 The China Inland Mission(현 OMF)가 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에만도 25개 이상의 이런 유형의 믿음선교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내번째로는 특별선교기관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선교기관이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 인디안, 에스키모, 소경, 장님, 군인, 고아, 문둥병자 등이다. 또는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생긴 기관으로: 문맹자, 문서선교, 라디오, 항공, 구제 등이다. 이들 중에는 보내는 선교기관과 단순히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성경번역 단체들과 성서공회들의 등장이다. 이 단체들은 성경번역과 보급에 큰 역할을 감당하여 이들 단체들의 출현이 없었다면 세계선교는 큰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으리라.

활발한 선교사역의 결과로 세계 각 지역에는 학교, 병원, 고아원, 의료대학 등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기독교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한 세기라는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둔 일은 이미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19세기를 통한 세계 선교의 성공을 말해 주고 있다.

마. 20세기의 선교운동

금세기의 도래와 함께 세계선교의 큰 영향을 끼친 세가지 운동이 있었으니 이는 곧:

첫째로, 믿음선교운동이요 (The Faith Mission Movement), 둘째로, 성경학교운동이요 (The Bible Institute Movement),

셋째로, 학생자원운동이다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 세가지 운동은 모두 북미 대륙에서 일어난 운동으로서 처음 두가지 운동은 지금껏 지속되고 있으나 세번째 운동은 1930년대에 꽃을 피웠던 운동이다.

첫째로, 믿음선교운동은(The Faith Mission Movement) 소속된 선교사가 보장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채 기독교 공동체에 그들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선교의 후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역을 추진하는 선교운동으로써 위클리프 성경번역 단체와 대학생선교회 (CCC)등의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놀랍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성경학교운동은(The Bible Institute Movement) 이미 1880년대부터 특히 북미주들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이는 자유주의의 물결이 북미 신학교를 휩쓸고 있는 무렵에 이에 대항한 복음주의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운동이다. 이들 성경학교들은 시작부터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현재까지 약 500개 이상의 성경학교와 신학교들이 북미주에 산재하여 믿음선교기관을 통한 선교사들을 배출해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Moody Bible Institute 1890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약 6천여명의 선교사들을 배출해오고 있고 현재에도 약 2천 5백명 이상의 현역 선교사들이 이 학교 출신임을 볼 때 실로 성경학교운동이 현대선교에 끼친 공헌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학생자원운동은(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1880년대에 시작된 운동으로 프린스턴대학의 졸업생이었던 Robert P. Wilder의 선교적 비전과 당시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Moody의 영적인 능력과 당시 Cornell 대학의 학생이었던 John R. Mott의 천재적 조직력에 힘입어 운동으로서 1886년 여름에 Massachusetts주의 헬몬산에서 100여명의 대학생 및 신학생들이 무디의 집회에서 선교사로 지원할 것을 서약한 '프린스턴 서약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전 미국의 대학들에 파급된 학생들의 자발적 헌신운동이었는데 그들의 슬로건은 "이 세대에 전세계를 복음화 하자!"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중심한 헌신운동의 결과로 약 50여년에 걸쳐 2만명이 넘는 선교사가 북미주를 통하여 배출되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도래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선교가 중단되었으나 복음방송을 통

한 방송선교와 여러 기관들의 문서선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 현재의 상황분석

우리는 지금 놀랍도록 급변하는 세계정세 가운데에 살고 있다. 발전하고 있는 과학문명, 교통, 통신, 산업, 교육, 의학 등의 변화는 일찌기 상상을 불허할 정도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의 정치적 변화는 세계선교에도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소련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은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으나 기독교 뿐 아니라 각 타종교들과 특별히 이단종파의 개입으로 활짝 열린 종교자유화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교지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선교적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나의 「환상」을 보았으나 현재 우리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동구권에서의 「실상」을 보고 또한 듣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소련 침례교연맹의 지도자들이 한국 및 재미 한국교회에 선교적 지원을 호소해 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유럽의 가장 오래된 헝가리의 개혁신학 교의 감격스러운 개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축복하신 한국교회를 통한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겸손히 그리고 또한 지혜롭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세계선교사의 압도적 다수를 파송하며 막대한 선교비를 부담해 오고 있는 전통적 선교의 주도국이었던 영미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계선교(Global Evangelization)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선교는 어느 일개국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에 교파 및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긴밀한 협조체제의 이룩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2000년대 세계선교를 위한 방향제시

1) Development of the proper "Theology of Missions" - 바른 '선교신학'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개혁자들의 그릇된 교회관이 (선교

를 참된 교회의 표증으로 보지 않은 점) 2세기 동안의 선교침체 현상을 초래한 점과 모라비안파의 선교의식이 그토록 크고 자연스러운 선교에의 헌신을 불러 일으킨 것을 볼 때 바른 신학은 바른 선교사역을 위한 초석과도 같음을 알 수 있다.

2) 바른 신학에 바탕을 둔 교회 내의 끊임없는 갱신운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남과 아울러 그 영향이 선교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교회의 질적성장은 선교운동의 원동력이기에 전 교인들을 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Pastors should train all Christians to be mission minded.)

3) 초교파적 선교기구의 발족과 운영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지원한다. - 군소단위의 선교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대규모의 선교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선 재정 및 인력의 공동지원이 필요하다.

4) 이민 1.5세 및 2,3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운 헌신을 권면하여 그들 중 세계선교를 담당할 선교후보생들을 발굴, 훈련, 파송 및 지원하여야 한다.

5) 전략선교의 구체적 모색 - 세계적으로 서양인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제3세계권 선교사들을 더욱 환영하는 경향이 있으나 헌신되고 훈련된 자국민의 노력을 통한 성과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선교지의 원주민(natives) 중 선발된 일군들을 불러와 그들을 훈련하고 양성하여 본국으로 재파송할 때 선교의 효과는 그야말로 가중될 것이다. 한국의 아세아연합신학원(ACTS)과 미국의 국제신학교(ITS)와 같은 사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역사적 회고와 전망

[주제강연]

국제선교협력기구(KIM) 총재 **조동진**

국제선교협력기구(KIM) 총재, 윌리엄케리대학교 교수, 고려연구소 소장



I. 회고 (Look back)

1. 한국교회 초기 선교운동

우리 민족교회의 태동과 형성과정은 다른 모든 피선교국가의 그것과 크게 구분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서구선교는 19세기 제국주의 자국의 식민정권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졌다. 예외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우 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서구선교는 반기독교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민족의 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예외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성장한 한국교회는 당연히 민족주의적일 수밖에 없었고 반일 반제국주의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동시에 세계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 식민정권 하에서 성장한 다른 모든 나라의 교회가 종속적 외래종교로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저해하는 반민족적 서구 식민정권의 앞잡이로 단죄되어 국가와 민족 앞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우리 민족의 교회는 나라 잃은 민족의 구심점이 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염원을 나라 밖으로 호소하여 세계교회들과 유대를 이루게 하고 민족의 국제적 고립과 세계로부터의 차단을 면하게 했다.

이러한 민족의 운명과 국제적 환경이 우리민족의 교회를 애초부터 외래종교 성격의 교회로 성장하게 했다. 한국민족의 현대사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상호관계는 서구 식민지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공동운명체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1) 이씨 조선의 망국과 민족선교

한반도에로의 기독교의 전래는 중국을 왕래하는 한국인들

과 중국 대륙을 찾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과 중국대륙에서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19세기 후반 1860년대 이후 중국대륙은 세계 열강들의 식민정책 각축장이었다. 중국의 해안지역은 남쪽으로부터 북동쪽에 이르는 홍콩과 상해, 청도, 지부, 영구, 대련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이 모든 항구 도시를 점거하고 '외국인 특별조계(特別租界)'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서구 선교세력은 자연스럽게 자국 정부의 식민정책이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길을 따라 뒤쫓아 왔다. 당시 이씨 조선의 국제 관계는 영토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방 외교와 통상의 길을 가고 있었다. 서북쪽으로는 우장과 고려문을 거점으로 산해관을 넘어 북경을 상대로 하고, 동북쪽으로는 할빈을 거쳐 시베리아의 해삼위를 거점으로 하는 러시아와의 외교통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무역과 통상에 관계했던 조선 사람들은 주로 서북인들이었다. 평안도 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화와 경제에 밝은 중인계급의 중국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저들의 국제적 안목에 밝게 만들었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가져올 민족과 국가의 고립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 만주 지역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의 한반도 입국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심각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대한 기독교 전래의 근본적 동기와 계기를 잘못 이해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자기 민족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라 밖의 기독교를 자국의 정치, 법률적 명령을 여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가지고 들어 온 평안도 의주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국 선교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의 서구 선교의 진입 역사와 구별하여 해석하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상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은 중국대륙의 한

변방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 밖의 한국인들이 자기 조국을 위한 선교를 단행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1870년대 최초의 신도들인 이용찬, 백홍중, 이성하, 서상륜, 김진기 등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 국경을 넘어 압록강을 건넌 때가 한국인의 자국 선교운동의 시작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배태되고 '권능 받음'으로 태어나서 '땅끝까지' 가는 증인으로 성장한다는 성서적 원리가 한국에서 복음전래와 선교운동의 기원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북방 중국 땅의 서간도, 북간도에 흩어져 살던 동족들에 대한 전도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적인 민족선교의 모습을 본다. 사도행전 8장의 선교가 먼저 이방에 흩어진 동족들의 접촉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민족선교의 초기과정도 이와 같다. 따라서 사도행전 시대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해석되어야 한다.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져서 중국과의 부끄러운 종속관계가 더해질 때부터 민란으로 경북궁이 불타고 이어서 임오군란이 일어나 나라의 울타리 군대마저 흩어져 가고 있던 1876년까지의 7년 사이에 1876년에는 의주 사람 이용찬과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네 사람이 중국 땅 고려문 우장에서 세례를 받았고 1882년에는 이용찬, 서상륜, 이성하가 과감히 중국말 성경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였다. 자국인에 의한 자국, 자민족 선교는 이렇게 해서 1876년으로부터 1882년에 걸쳐 시작되었고 평안도의즈와 황해도 소래에 동시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이다.

한국 땅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입국한 것은 자국인에 의한 자민족선교가 시작된 1876년으로부터 10년 후 그리고 한국어 성경번역이 있는 1882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1885년 9월이다. 이때에 아시아에 있어서는 국제적 역할 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1895년의 청일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패전국 중국을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1905년에는 세계 최초로 비서국 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이 한반도에서 보호조약이라는 미명으로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무단(武斷)정책을 펼친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섬나라 일본의 군벌은 1910년 마침내 500년 지켜 온 이 왕조를 폐하고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아시아 북방을 향한 발판으로 만든다. 그러나 나라들의 흥망과 민족들의 대이동으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도 성령은 언제나 앞서가서 당시의 세계의 혼돈과 흑암이 지나간 다음의 세계를 위하여 새 길을 예비하시고 빛을 비추신다.

2) 일본제국 강점 초기의 외지 선교운동 (1905-1911)

일본군벌이 이조 왕국의 외교권 강탈을 피하려 들던 1901년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여기서 민족의 외적 구속력은 국제적 강대세력의 흥정과 권모술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라 잃은 민족의 영혼과 그 내면적인 생명력의 축적과 보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05년 8월 이찌 조선왕국의 외교권이 강탈되고 일본 제국주의 군벌의 식민통치 지배가 시작되지만 바로 그때에 '민족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2년 후인 1907년 9월 17일에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일곱 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한다. 최초의 목사로 창립된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정백, 길선주, 이기풍 등 일곱 명 중 두 사람은 즉시 선교사로 임명된다. 1907년 10월에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최관홀 목사를 러시아 시베리아 주재 선교사로 임명하여 1909년 각각 현지로 파송했다. 한국 기독교 전래의 초기의 민족선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내향적 선교에서 곧 이어 안으로부터 밖으로 뿜어내는 외향적 선교로의 전환으로 쌍방 통행적 선교의 본을 보이고 있다.

이 초기 '민족적 외지선교운동'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학생과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이 동시에 참여한 선교였다는 사실이다. 1900년 초반의 한국 기독교의 지적(知的) 재산은 당시의 '고등 보통학생'들이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와 확장 주일학교는 고등 보통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외지 선교운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09년 평양 숭실학교 학생회는 당시 3학년생 김형제 군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야 시내 여전도회 연합회는 이관선 권사를 택하여 제주도 주재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로써

목사와 학생과 여성지도자가 선교동역팀을 이루는 첫 케이스가 탄생한 것이다.

장로회에서는 박영일 장로를 선교사로 선정하여 한석진 목사와 동역하도록 1910년 일본 동경에 파송했다. 같은 해 김영재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 목사를 서간도에 파송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 (일본, 러시아, 중국)에 해외 거류 '자민족선교'의 불길이 산불처럼 번져 나갔다. 1905년으로 1910년에 이르는 이 기간이 망국의 수치와 나라 잃은 민족이 겪는 수모를 이겨 나가게 하기 위한 강력한 '성령의 선교'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5년 동안 교세의 증가는 10배를 넘어섰다. 파송된 선교사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1911년에는 임종순 장로를 일본 주재 선교사로 파송하여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조선 청년 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한석진 목사와 동역하게 하였다.

1910년은 한민족의 출애굽과도 같은 민족의 북방을 향한 대이동이 시작된 해였다. 망국과 함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의식층 민족세력이 중국 동부지역 만주평원으로 대거 이동한 것은 민족의 자유와 국권회복을 피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통치 거부의 강력한 의사 표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중국의 중북부 만주 평원을 향한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는 20여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동북 만주 지역에 파송하여 민족의 영혼들을 보호 육성하도록 하였다.

1910년 8월 이후 망국 1년도 못되어 중국의 만주 땅에는 위와 같이 20여명의 평신도 자원 전도자가 활동하여 한국인 민족교회는 한반도와 일본과 시베리아와 중국의 만주 땅 등 나라의 안과 밖을 연결하여 한 선교지역으로 묶어 버렸다.

3) 민족독립운동과 타민족 선교운동 (1912-1937)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된 지 7년, 민족교회는 교세는 평안, 황해, 함경, 경기, 경상, 전라 등 전역에 노회를 조직하면서 1912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장소는 평양여자성경학원 강당이였다. 창립총회의 집중사업은 '외지전도'와 '외국선교'였다. 총회는 창립기념선교사업으로 본격적인 외국선교를 전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자민족 선교에서 한걸음 나아가

중국인을 위한 타민족 선교를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선교지는 중국 산둥성으로 정하고 내양현에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선교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는 최초로 '감사절'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감사절 헌금은 전액을 총회 선교부로 보내어 선교사업비로 사용키로 하였다. 총회는 감사절을 음력 10월 2일로 정했다.

제5회 평양신학교 졸업생 김영훈과 제6회 졸업생 박태로, 사병순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이 세 사람은 1913년 가을 북경을 거쳐 산둥성 내향현에 도착했다. 이것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시작한 최초의 타문화권 타민족을 위한 선교사업이다.

이들의 선교사업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첫째로 이들은 중국어가 자유롭지 않았다. 둘째로는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에 나라까지 잃은 망국인이 선교사로 왔다는 데 대하여 중국 지도자들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구 선교사들은 결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당돌하고 자기 신분을 모르는 주제넘은 조선사람으로 보였다.

중국의 지배와 영향 하에 종속되어 있던 소국인이 감히 선교사로 나타난 것은 결코 중국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절한 영접도, 안내도, 주선도 받지 못했다. 한 해도 못되어 세 선교사 중 한 사람인 사병순 선교사는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건디기 어려운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문화충격으로 박태로 선교사는 병에 시달리다가 빈사상태로 귀국하고 말았다. 김영훈 선교사는 부끄러운 귀국보다는 차라리 미국으로의 망명을 택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부의 정책 부재의 세번째는 선교현지에 대한 사전 조사나 중국교회와의 협의없이 그러한 중대한 일들을 한국에 와 있던 '매퀸'과 '사무엘 마펫' 등 미국 선교사들에게 맡겨두는 잘못을 저지른 데 있었다. 사실 서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선교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사실은 서구인들의 한국에서의 선교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가진 관심은 한국인들이 서구 선교사들의 도움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에 있었지 한국교회가 성장하여 서구 선교사들을 더 이상 필요로하지 않게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교 총회는 1915년 선교부 서기였던 방효원 목사를 헌지에 파송하여 실상을 조사, 보고토록 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위에서 필자에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나서 첫번째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놓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방효원 목사는 1917년 총회에서 홍승한 목사와 함께 산동성 내 양현으로 파송되어 폐허가 된 선교현장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해인 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가 계속 산동성으로 보충 파송되었다. 산동성에 선교부를 둔 서구 선교단체들은 나라 잃은 민족의 교회가 중국대륙에서 선교활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데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산동성 지역의 선교사업을 아예 한국교회가 전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이 설립했던 병원도 한국 선교부에게 팔기로 하였다. 이 병원은 적지 않은 시설이었으므로 거금이 있어야 양도받을 수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 사실을 전국에 알렸다. 마침내 평양에 있는 한 신도가 병원 매입에 필요한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그 때가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을 때였다. 또한 평양 여전도연합회는 중국 산동성 박상순 선교사의 주택비로 800원 현금을 자청했다.

기미년 독립운동에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었을 때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진 중국 한국 선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호자일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선교사의 활약은 중국선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같은 해에 시베리아 해삼위에 김현찬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함경도의 어느 가난한 사형제는 해삼위 선교를 위해 300원을 헌금했다. 1920년에서 1922년 사이는 기미년 3.1 독립운동의 여파로 더 많은 민족이 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있었다. 시베리아는 마치 '조선 민족의 땅'처럼 되어 갔다.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교 예산 총액은 24,000원이 넘었다. 지금의 약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미화 700만불에 해당된다. 이러한 거액의 선교 예산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희생적인 헌금 때문이었다. 한 예로 경상북도 경산군에 사는 김응서 집사는 1,000원(지금의 2억원 상당)을 선교헌금으로 바쳤다.

1920년에는 경상노회로부터 경남노회가 분립되면서 일본 신호(神戶)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경북노회는 1921년에 이대성 목사를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방효원 목사가 중국선교사역 20년을 맞이하던 1937년에는 그 아들 방지일 목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2대 선교사로 산동성으로 떠났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 주석에 의해 외국인의 선교가 금지된 후에도 10년을 더 버티다가 부임한지 20년이 되는 1957년 9월에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민족과 민중으로 이루어진 민족교회, 그리고 민족교회가 전개한 민족선교 나아가서 민족의 국가 회복의 열망을 타 민족을 위한 초민족(超民族), 초문화(超文化)적 선교에로 승화시킨 한국 기독교의 자생적(自生的), 자주적(自主的), 외향성(外向性)은 한민족 본래의 내향적 성향(內向的 性向)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민족성으로의 전향이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내향적 민족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민족갱신의 동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종전 후의 선교운동과 국제적 협력

동서양의 강대국들은 제2차 대전의 전쟁 10년과 전쟁 후 10-20년 동안 세계질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1939년 8월 1일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서 유럽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기독교 선교는 전쟁이 끝나기까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버렸다. 1938년 마드라스 국제선교회의(IMC) 이후 1948년 암스텔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탄생까지 서구선교회들은 구름 속에 가려진 태양처럼 힘이 없었다.

일제 말기의 조선반도는 교회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고있었지만 중국선교는 계속되고 있었다. 도리어 중국의 만주땅과 산동성 지역에서는 국내의 압박에서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때 중국의 교회는 한국 목사들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다른 의미의 디아스포라 선교가 계속되었다.

1948년 암스텔담에서의 '선교종식론'과 식민지 지역의 독립으로 인한 '선교사 철수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이북교회의 소멸과 남쪽에서는 홍수같이 밀려 내려

은 이북 신자들의 '피난민 교회'로 또 다른 자민족 선교의 파도가 일어났었다. 서울의 20여 교회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다. 20만의 신도가 곧 60만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어느새 100만을 넘어섰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간은 한국교회의 생동기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린 시기였다. 1956년에 시작한 장로교회의 태국선교는 최찬영, 김순일 두 선교사로 시작되었다. 비슷한 때에 중국 산둥성 선교의 연장으로 장로교회가 계화삼, 정성원, 김용상 선교사가 대만에 파송되었다. 고신 측 장로교총회는 김영진 선교사를 대만 신족으로 파송하였다. 필자는 1956년 8월 중국 산둥성 선교사였던 이대영 목사를 모시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세계선교 지도자들과의 교류의 길을 만들었으며 한국 복음주의협의회를 창립했다.

국제선교협의회(IMC)가 WCC에 병합된 1961년에는 IMC 부회장이었던 김활란 박사가 이화대학교 선교회를 조직하고 전재욱, 조신자 외 한 사람을 파키스탄으로 교육선교사로 보냈다. 이어서 감리교회에서는 김성옥 목사를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보냈다.

필자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한국교회가 아직은 외국 선교단체들의 전후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존심리'가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1960년 9월 미국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1961년부터 개교회 선교교육 운동부터 서둘렀다. 세계선교 불씨의 촉매역할을 시작한 필자는 매우 고달팠다. 1965년에는 김활란 박사와 환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전국복음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직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선교의 불씨를 심었다.

또한 필자는 국제선교협력기구 이사회를 조직하고 1968년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복음화대회를 주재하는 환경직 목사를 도왔다. 국제선교협력기구는 1969년에 최초의 한국복음화전도대회를 서울운동장과 장충체육관, 이화대학교 대강당, 시민회관,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동시에 가지는 다원화된 선교대회를 여는데 성공했다. 이미 1968년부터 필자는 선교사 훈련기관으로 동서선교연구원 개발원 (당시의 이름 International School Mission)을 개원하고 비서구세계에서 최초의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였다.

1) 민족자생선교회의 형성

1961년 뉴델리에서의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소멸은 사실상 서구 선교가 사양의 길에 접어드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새로운 민족국가의 교회들은 식민정권 하의 서구 선교단체의 보호와 그들 아래 안주하고 서식하던 지난 날의 행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들은 급속히 민족교회로서의 자생의 길을 닦아야만 했고 제도적, 재정적 외세의존의 단절을 바라는 자민족 정권의 요구의 정당성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1948년 암스텔담대회 이후 12년 비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더 이상 종전(終戰) 이전의 서구 의존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아시아는 그러했다. 아프리카에는 60년대 초까지 아직 독립된 국가를 가진 민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미 40년대 후반에 독립을 선언하고 자민족 중심의 국가 형태를 완성하였다.

부족사회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와는 달리, 아시아는 서구 문명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찬란한 운명과 역사를 지닌 민족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서구 식민 통치 100년으로 300년의 그늘에서도 민족들의 문화적 전통은 짓눌린 가운데에서나마 그 뿌리가 살아남아 있었다.

신생 전후 독립국가들의 집권자들과 민중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외래종교의 모습으로 민중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민족국가 앞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지날 날 지배자의 종교를 추종하던 노예종교의 탈을 벗어버리는 것이었다.

교회가 자민족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교회들은 지난 날의 구조와 제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체하고, 민족의 교회, 민족으로 말미암는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로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종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거듭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구인들은 이러한 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세계교회'를 강조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의 접착력은 '인류는 하나' 하는 대의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민족과 문화 단위의 교회 - 이러한 교회를 더욱 앞당긴 것은 분명히 1961년 뉴델리에서의 국제선교협의회 해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족자생선교세력의 탄생과 서구 선교세력의 무관심

1960년대의 10년 동안 아시아의 7개국에서 민족 자생적 세계선교운동이 전개된다. 인도의 IEM(인도 복음주의선교회)와 FMPB(선교기도형제단), 인도네시아의 IMF(인도네시아선교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AEF(아시아선교회), 일본의 JOM(일본해외선교회), 대만의 COM(중국해외선교회), 홍콩의 SFWM(영광세계선교회), 필리핀의 PEM(필리핀복음선교회)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이미 60년대 초기에 두 개의 비교과 선교단체가 형성되었다, 국제선교협력기구(KIM)와 이화여대 학생선교회가 그것이다. 전자는 필자가 1960년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에 시작한 운동이고 후자는 국제선교협의회(IMC)가 해산된 후 협력회의 부회장이던 김활한 박사가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일으킨 운동이다. 전후 독립 국가 안에서 자생한 비교과적 선교운동은 민족교회 지도자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1960년대 중반이후, 이들 선교운동을 주도한 민족교회 지도자들은 상호 방문의 기회를 통하여 비서구 선교 지도자들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비서구 전후 독립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자생적 선교운동이 기존 서구 선교세력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1966년으로 1970년에 걸친 5년 동안 서구 선교단체의 본부를 방문하고, 새로 일어나는 비서구 선교세력과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환경에 맞는 선교운동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OMF(해외선교회, 전 중국내지선교회), TEAM(복음주의동맹선교회), C&MA(기독교선교동맹) 및 WPM(세계장로회선교회)는 필자가 접촉한 대표적 서구 단체의 이름등이다. 그러나 필자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필자는 생각을 돌리기로 했다. 그리고 전후 독립국가들의 자생적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단결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1971년 여름, EFMA(미국 복음주의 선교단체 협의회)와 IFMA(미국 초교파 선교단체 협의회)의 연례 공동정책 연구회의에 자진 참석했다. 이 회의는 위스컨신의 그리레이크에서 열렸다. 그곳에서 필자는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범아시아 선교지도자 협의회"를 1973년 8월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회소집은 필자가 지난 5년 동안 힘써온 서구

선교세력과 새로 일어나는 비서구 선교세력,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비선교 세력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선 아시아의 선교지도력 상호 간의 협력구조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300여명의 서구 선교지도자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때 필자의 발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단 두 사람 뿐이었다. 그것은 달라스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조지 피터스(George Peters) 박사와 풀러신학교의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였다.

그러나 후에 가서는 그린레이크 회의의 주최측인 EFMA와 IFMA의 대표 Clyde Taylor 박사와 Jack Frizen Jr. 총무가 큰 관심을 보여왔고 풀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장 Arthur Glasser 교수와 Peter Wagner 교수가 정중한 서신을 보내어 필자의 운동에 관심을 표명했다. 필자는 즉시 서구 선교학자들과 아시아의 선교단체 대표들에게 "범아시아 선교지도자 협의회" 소집의 필요성과 그 계획을 알리는 서신을 발송했다.

3) 서울 '73: 비서구 세계가 주도한 역사상 최초의 세계선교회의

국제선교협력기구(KIM)는 1970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홍콩의 싱가포르 호텔에서 제1회 선교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선교정책회의는 아시아의 자생적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한 자리에 모여 상호협력과 선교동전선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1973년 8월 '범아시아 선교협의회(All-Asia Mission Consultation)'를 소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결의하였다.

필자는 이와같은 경위를 당시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아시아 전도협력 사무실'의 실행총무였던 Chandu Ray 감독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Chandu Ray 감독은 1971년 초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 내의 선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범아시아 선교협의회 소집의 준비에 동참하였다. 이리하여 필자는 1971년 9월 미국 Green Lake에서 열린 미국 복음주의 선교단체 협의회와 미국 초교파단체 협의회 공동정책 연구회의에서 이 '범아시아 선교협의회'의 소집계획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계속하여 필자는 1972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6개국의 선교지도자들을 방문하여 '범아

시아 선교협의회' 준비를 마쳤다. 1973년 1월 10일로 12일 까지 이 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국제선교협력기구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비서구 세계에서 자생적 기독교 세계 선교지도자들의 범아시아적 회의는 탄생되었다. 14개국에서 36명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회는 서구 국가로부터 옮겨버리는 제한된 시간내에 참석은 허락했지만 지정된 시간에 자신들의 준비된 논문만을 발표하도록 했다. 아마도 이것이 세계선교운동에 서구의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고도 주요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로비에서 서성대며 기다려야 했던 최초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 회의였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서구 선교의 공은 인정하지만 잘못과 과오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가 아시아인 선교사를 서로 보내고 받는 일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합하기로 결의하였다.

1974년까지 최소 200명의 아시아인 선교사를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지역에 파송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시아인 선교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전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전도의 임무를 수여받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는 것과 복음주의적 교회를 심는(세우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계속위원회(Continuation Committee)가 조직되었고 필자는 계속위원회의 총무와 회계로 선출되었다. 협의회는 2년 이내에 <아시아선교협의회> 창립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정하고 선교사의 훈련과 선교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동(東)과 서(西)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East-West Center for Mission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그 진행과 관리를 국제선교협력기구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AMA'75: 단절과 계승과 단결을 통한 선교의 새 세력 구성

70년대에 들어서도 서구 선교의 진보, 보수, 두 세력은 서로 상반된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방콕에서는 1973년에 '오늘의 구원'을 외치며 '빵과 일자리를 외치는 선교가 강조되고, 1974년 로잔에서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자'는 '귀와 음성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을 때, 아시아의 선교지도자들은 1973년 서울에 모여 새로 얻은 독립을 위한 민족의 국

가건설이 민족들의 구원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건설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서구 의존의 옛 구조, 옛 관계와의 과감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구 식민 정권 하의 종교로서의 피선교지 교회가 서구 선교와 단절이 없는 절대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한 교회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모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빵과 일자리'와 '임금'의 해결로 선교를 대신한다면 서구 선교의 설자리가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므로 다만 모든 민족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이 듣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족들이 되찾은 '자주'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들은 몰랐다. 서구인들 연에서 보던 자기들은 잃었고 빼앗겼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의 민중들은 다시 되찾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나 그것을 간직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73>은 서방 세계에 대하여 아시아 민족들의 마음과 감정을 분명하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필자는 개회 기조강연에서 "서구 선교가 새로운 세계 역사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제3세계 신생 독립국가들의 민족들과 그들의 빈축 선교지도자들에게 의하여 단절과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성서적 선교 원리의 재발견과 그 올바른 전승을 통하여 아시아의 교회가 자기 민족과 문화적 토양에 뿌리를 내린 산 종교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생적 선교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찍어다가 화병에 꽂은 꽃과 같은 외래종교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생명을 번식시킬 수 있는 뿌리가 없어 곧 시들어 버린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단결과 협력을 강조했다. 서로 남의 발을 매고 서로가 남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아시아인적 협동과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재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3년 8월 30일에 구성된 <범아시아 선교협의회> 계속위원회는 9월 1일 첫 위원회 협의기구로서 국가별 선교협의회를 조직토록 격려하기로 했다. 1974년 4월 16일 제2차 위원회가 홍콩에서 소집되었다. 제3차 계속위원회는 1974년 8월 23일 스위스의 로잔에서 모였다. 그리고 헌법 초안이 심의되었다. 역사적인 '아시아 선교협의회 창립총회(Inaugural Convention of the Asia Missions Association)'가

1975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개막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중국 산둥성 출신 동근휘 박사가 선출되었다. 부회장에는 인도네시아의 Petros Octavianus 목사가 선출되었고 필자는 대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서구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역사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립총회가 발표한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Christian Mission)>이 영문과 독일어, 스페인어로 번역되면서 선교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서울선언>은 먼저 서구 선교의 과거 역사에 대한 재검검과 과오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서구 선교의 동향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했다. 서구 개신교 선교 200년의 결과를 보아 세계 선교를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선교세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동과 서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선언은 서구 선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더 이상 당신들 스스로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마시오. 더 이상 그 보기 흉한 경쟁을 일삼지 마시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선교 지도력과 손을 잡고 일하기를 시작하시오 지구상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공동의 선교전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서구인들의 의도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선언은 60년대와 70년대에 발표된 문헌 중 가장 분명하고 단호한 기독교 선교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문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II. 전망 (Prospectives)

1. 새 시대를 위한 제3세계 선교의 새 세력

산모의 피흘리는 고통없이 새 생명을 탄생되지 않는다. 태어난 새생명은 7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서 성장의 속도와 변화가 점점 빨라진다. 뉘이 지나면 제 발로 일어서고 걸음걸이를 배우기 시작한다. 아기의 성장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기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보다

힘도 강해지고 지혜도 능력도 앞서게 된다. 오늘의 부모는 어제의 어린 아기였던 것처럼 오늘의 어린 생명도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그런데 서구 선교 세력은 이러한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법칙은 역사의 법칙이기도 하고 토인비는 말한다. 서구 선교세력은 자신들이 너무도 늙아버렸다는 것과 쇠하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자기들이 기르던 이들 교회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성숙해져 어른이 되었고. 또 다른 민족들 속에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젊고 능력있는 부모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1) 새 선교세력으로 성장한 선교의 신생아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고 발달한 새 선교세력이 아시아에서 태어날 때에도 전통적 서구 선교세력은 어린아이 같은 아시아 교회가 어찌 선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인가고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에서 태어난 선교의 신생아들은 걷기를 시작하고 힘을 쓸 수 있게 성숙해 가고 있었다. 1968년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 1973년 서울에서의 <범아시아 선교 지도자 협의회>, 1975년 서울에서의 <아시아 선교협의회 창립총회>, 1978년 싱가포르에서의 <범아시아 선도지도자 대회> 등으로 대표되는 70년대의 10년은 세계 선교세력의 주력이 유럽과 아메리카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방대한 아시아 대륙과 섬들로 옮겨지는 엄청난 전환기적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가장 유력한 선교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MARC (Mission Advanced Research & Communication Center)는 1976년 8월, <아시아 선교단체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76년 아시아인들에 의한 선교단체 75개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중 53개의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의 수를 1,293명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홍콩, 대만,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자생한 아시아인들의 선교단체라고 정의하였다.

O.C. Ministries의 회장인 Lawrence E. Keyes는 1983년에 <제3세계 선교단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의 보고서

에 의하면 1980년 현재만 해도 368개의 선교단체가 1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9년 이 보고서의 계속보고서로 발표된 Larry D. Pate의 <제2, 제3세계 선교단체 연람>에서는 1988년 현재 아시아 선교단체 587개, 아프리카 선교단체 338개, 라틴 아메리카 선교단체 153개, 대양주 선교단체 19개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3세계 선교사의 수는 아시아 선교사 17,299명, 아프리카 선교사 14,189명,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 3,026명, 대양주 선교사 61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제3세계 선교세력의 폭발적 성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꼭 같이 약 300%에서 350%의 고도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 제3세계 선교운동의 주역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세계 선교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선두에 나서고 있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선교의 범주를 넘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뻗어가면서 사실상 선교사의 질과 선교제정의 크기에 있어서 유럽과 북미의 수준에 바짝 따라 붙고 있다. 반면 중국도 나름대로 하나의 선교영역을 개발하고 있었다. 중국 본토의 11억 중국인과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1억이 넘는 다국적 중국인을 한데 묶는 세계 중국인 공동체가 '중국인 세계복음화 운동본부'라는 거대한 조직망을 구축한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이 세 개의 새로운 선교세력의 삼각구조는 아시아의 종족-문화-지리-기후-사회발전 양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된 세 개의 블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제3세계 선교의 가장 수준 높은 인적 자원과 희생적 청지기 정신으로 연단된 경쟁력을 가지고 아시아와 제3세계 선교의 동력원 노릇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높은 산처럼 우뚝 서 있다. 어쩌면 하나는 시내산 같고, 다른 하나는 갈멜산처럼 새역사의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신학과 선교와 교회성장의 휘어나 지도력의 풀(pool)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선교지도력 집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세계 선교운동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그 근본이 되고 있다는 특색을 잊어서는 안된다.

첫째로 1880년대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한국의 선교운동을 주도한 것은 장로교 총회선교부였다. 한국에서는 교단 총회를 떠나서는 선교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 전통은 1960년대 이후 1990년에 이르는 30년 동안에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세 개의 교단, 곧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합동, 통합 및 고려 등 세 개의 장로교 선교부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 줄곧 저들의 선교영역을 확대하여 한국선교사 전체 수효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개의 교단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선교 연구소와 훈련원을 교단 신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로교회의 적은 분파들이 개혁파, 합동개혁파 등의 선교열 역시 자체 교단의 크기에 비해 놀랄만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다른 군소교단들의 선교사 파송운동 역시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 훨씬 앞서고 적극적이다.

둘째로, 한국의 선교운동의 또 하나의 세력권은 서구 선교단체의 한국지회들을 통한 초국가적 비교과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단체들과 동역관계 협약을 맺으면서 다국적 선교세력의 발판이 한국에 구축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구 종속적 선교지도력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로 일어나는 선교 지도력은 순수한 한국 자생적 신앙 선교단체들의 출현이다. 이러한 세력들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본은 알차고 실속있게 구체적으로 선교의 현장 세력을 착실하게 확대해 나가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북구형(北歐型) 선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야마 레이즈, 오쿠야마 미노루 등은 1960년 이래 선교현장의 오랜 경험과 국내에서의 선교사의 육성과 선교자원을 개발한 대표적인 두 지도자들이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지도력은 훨씬 더 서구의존적 혹은 종속적 위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강한 브라질은 몇 사람의 두드러진 선교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안디옥선교회(Anthioch Mission)를 조직한 조나단 산토스(Jonatan Santos)이고 다른 하나는 쟁파올로의 침례 교회 목사인 에디슨 카로스(Edison Caros)이다.

이들은 모두 제3세계의 어느 선교단체와 운동보다 훨씬 더 북미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선교사로 과테말라에서 활동하던 루이스 부시(Luis Bush)를 들 수 있다. 그는 1985년, 미국의 재력으로 제3세계의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은 미국의 선교단체인 CNEC(Christian Nationals Evangelistic Commission)의 국제회장으로 선출됨으로서 제3세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미국 선교단체의 지도자 위치에 앉게 된 사람이다. 그는 1988년 이후 CNEC를 국제동반자선교회(Partnership International)로 개명하고,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선교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다.

3) 제3세계의 선교를 위한 몸부림

제3세계 선교 세력의 폭발적 성장 추세에 대하여 홍콩선교단체협의회(Hong Kong Association of Christian Mission)의 총무 목결정(穆杰静, Edmond Mok)은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대조표를 발표했다.

연도	1800	1900	1979	1985
서방세계	99%	91%	64%	34%
제3세계	1%	9%	36%	66%

그는 또한 서구 기독교 성장세가 1971년에서 1985년의 10년 사이에 1.3% 성장에 그친 반면, 제3세계 기독교 성장률은 6.7%로 다섯배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2. 선교의 다원성과 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제3세계

선교가 성서적으로는 천국복음의 확장원리를 생물학적 문화확산의 원리(마 13:31-32)와 화학적, 물리학적 팽창원리(마 13:33)에서 찾게 된다.

사도행전 6장의 '조직원리'와 8장에서의 '분산(分散)활동의 원리', 9장에서의 '선택원리', 10장에서의 구원계획의 모든 민족에게 대한 '평등원리', 13장에서 보는 선교사역의 교

회사역과의 '분리원칙' 등은 선교의 다원화(多元化, Multi-Origin) 원리의 기초가 된다.

중세의 십자군 선교가 추상적 '성지회복'을 위한 '왕권선교(Royal Mission)'라고 한다면 근대 카톨릭 선교는 교황권력의 반항 이탈 세력으로서 수도원 세력을 교권 확장욕과 근세 유럽 제왕들의 국력팽창주의를 등에 업은 '정복주의 선교(Triumphal Mission)'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850년대 이후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특성은 지배 민족이 식민지 노예 민족을 개종을 시키는 식민지 선교, 즉 유사식민 선교 또는 '노예선교' 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 신성로마제국과 교황과 근대 제국주의 유럽 제왕들의 권력 등과 서구 선교가 유착되어 오는 동안,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 정권과 서구 선교가 상호 유착하여 타민족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분화(分化)와 확산(擴散)과 팽창(膨脹), 분산(分散)과 복합(複合)과 평등(平等)의 성서적 선교원리가 소멸되어 갔다.

서구 선교의 종식을 선언한 1980년의 국제선교협의회(ICM)의 해산은 새로운 선교의 규범을 성서에서 찾도록 성령의 강권을 받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모든 민족으로부터의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선교운동의 다원화 현상이 부상되면서 선교 주도세력이었던 서구 교회와 피선교 지역이었던 비서구 교회의 역할 전도(Role Regression)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필자는 '변화의 시간(Changing Time)'이라고 정의한다. 입장의 변화의 시간이 먼저 오고 나서 역할의 변화의 시간이 잇따라 온다. 이에 따라서 지도력 교체의 시간이 오게 되고 새로운 질서의 시간이 전개된다. 1990년대는 마침내 1960년대에서 70년대와 80년대의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역사가 새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정착할 때까지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민족으로부터 선교의 물결이 동시파상형(同時波狀型)으로 끊임없이 밀어부치게 되면 결국 모든 민족은 선교의 큰 물결 속에 함몰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2000년대를 향한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의 새로운 선교전략의 긴급성의 이유가 있다.

(1)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의 선교전략

선교하는 민족과 선교의 대상인 민족 간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관계로 변해야 한다. 복음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의 선교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식 사고와 아프리카식 사고의 차이, 그리고 북방 민족들과 남방 민족들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결코 우열(優劣)의 관계여서도 선악(善惡)의 관계여서도 안되고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관계여서도 안된다. 모든 민족의 문화와 사고의 가치는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자기 사고와 자기 방법이 다른 한편에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의 선교전략이다.

아프리카인들이 한 톨의 물질도 소모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서구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술과 자원을 소모한 후에나 달성되는 일들이 있다. 반대로 비서구 사회에서 많은 인력과 물질을 소모해도 성취되지 않던 일이 서구 문명의 기술을 가진 단 한 사람에 의하여 달성된 일도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의 선교전략은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지 승패(勝敗)의 관계나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지 않다. 선교전략은 선교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교전략이 전통적 선교 세력의 전유물(專有物)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함께 수립하는 공동의 전략이어야 하며 그것은 한두가지 전략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략들의 집합(집합)이라야 한다. 아시아인의 전략과 아프리카인의 전략과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인의 전략이 다르다. 단일 전략은 다양한 선교대상 중에서 일부에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연합(UN)이 모든 민족의 정치적 광장인 것처럼 모든 민족의 선교전략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사고(思考)가 남김없이 동원되고 분석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야만 한다. 민족 상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의 선교전략은 창출되지 않는다.

철학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의 사고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사고와 지식의 방법은 모두가 동일할 수 없다. 그것을 참으로 깊게 이해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의 시대가 가지는 기본적 숙제는 다원성(多元性)과 다양성(多樣性)에 어떻게 불편없이 선교의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푸는데 있다.

(2) 선교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조정원리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라는 모토 하에서 새 시대를 위한 선교의 최대의 과제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a) 조정능력과 효과적이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조직망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선교본부와 선교현지의 개념이 달라지고 통신과 여행시간이 단축되고 선교재정의 계산과 응용조직이 첨단화 되어 있으면서 문명혜택이 더딘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선교에 응용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풀어야 할 긴급한 과제이다.

b) 선교임원의 지적 수준의 격차와 선교재정 공급능력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과제이다.

c) 모든 선교사들에게 전 세계 선교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d) 또한 선교사의 지적 발전과 능력개발을 위한 공동의 기구가 절실하다.

e) 선교사 가정의 보호와 자녀의 교육을 위한 협력구조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f) 선교사의 질병과 사고의 은퇴와 사망 등에 대한 공동 안대책을 수립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g) 선교인원의 지속적인 증원과 이들의 광범한 상호교환제도의 개발 역시 선교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는 개개의 선교단체 또는 몇 개의 단체 간의 협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1973년 이래 '선교협력과 조정기능을 가진 새로운 선교구조'를 계속 제창해 왔다. 이러한 협력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먼저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계속됨으로 마련될 수 있다. 개인주

의적 의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공동체 의식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시대의 기초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의 조정을 위한 구조는 다원 조직이라야 하고 또한 독립적 기능을 보유하면서도 권리와 책임을 차별없이 공유하는 통합구조(Integrative Structure)를 이루어야 한다. 구성원 각자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그 위임된 권한 안에서 상호의 책임을 위임하는 위임(Delegation)과 분담(Assignment)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은 자칫 무질서와 혼란, 경쟁과 대결을 낳기도 하며 진위의 혼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 범민족적, 다원적 선교시대에 무질서, 독점과 중첩, 경쟁과 대결, 낭비와 결핍을 극소화 시키면서 사람들 간의 사랑과 신뢰에 의한 자율적 조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합의를 표출하는 것이 다원화된 시대에 다양한 선교를 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3) 선교의 다원성에 피해야 할 요소들

선교역사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시작될 때는 이미 있던 세력들의 저항과 무관심과 불인정의 불행한 과정을 겪어왔다. 서구 선교학자들이 신생 독립국가에서 일어나는 자생적 선교운동을 '토착민들의 선교(Native Mission)'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1971년 이후 증가되는 서구 선교기관들의 연구조사가 전에는 토착민들의 선교활동에 불과하다고 보던 활동들이 이제는 서구 선교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대체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서구 선교기관들이 제3세계 선교운동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한 것은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서구 선교기관들이 선교의 다원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새로운 선교시대에서 서구 선교기관들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서구 선교기관들이 세계를 자기들의 독점적 선교지역으로 보고 제3세계 선교운동을 자기들의 분신 정도로 보고 자기들의 일부로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제3세계 선교세력을 육성하는 것은 서구 선교기관들의 주도 하에서가 아니라 제3세계 선교기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자생적 제3세계 선교단체들은 선교사의 훈련이나 선

교제정의 모금, 선교단체의 운영방식에서부터 현지 사역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민족 특유의 사고, 관습,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를 이점(利點)으로 삼아 다른 민족의 선교단체들과 복합적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즉 제3세계 선교단체들은 스스로 자생성(自生性)과 자율성(自律性)과 자립성(自立性)을 유지하면서 다른 민족의 선교단체들과 협력구조를 이루어 국제조직의 일원으로 그 위치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민족들로 기존제도가 갖지 못한 특이한 선교원리와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확산되는 새로운 시대의 선교는 성서적 기본원리 위에서 각 민족마다의 상이(相異)한 선교양식(宣敎樣式)과 선교방법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국제적 협력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도전]

필리핀 선교사 **김영일**

미국 하나님의성회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 형무소, 산족, 신학교, 교회개혁 등의 사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7년 전에 부족한 내가 선교사역을 위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 나이에 어떻게 할려고?" (사실 나는 40세가 훨씬 지나서 선교사로 나왔다)

"자식들을 두고 떠나면 어떻게 할려고?"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아들 요셉과 대학교에 입학하는 딸 한나를 두고 떠났다)

"만아들인데 부모님들도 생각을 해야지?" (환갑을 훨씬 지나신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은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모실 생각을 앓고 떠났다)

"말도 잘 못하는데..." (천성적으로 혀가 짧아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 말하는 재간도 없고 영어실력도 변변찮은 형편인데)

"건강은?" (고혈압, 당뇨, 심장도 약하고 뚱뚱한 체격)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될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사역을 직접 본 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된다.

1. 형무소 선교사역 (Prison Ministry)
2. 산족 선교사역 (Native Mountain Tribe Ministry)
3. 빈민촌 무허가 주택지역 선교사역 (Squatter Area Ministry)
4. 불량 청소년 선교사역 (Streetgang Ministry)
5. 신학교 선교사역 (Bible School Ministry)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선교사역을 처음 나올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던 근심, 걱정, 염려가 한갓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선교 초기에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안타깝게 기도할 때에 미군기지 사령관을 통해서 많은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받게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어김없이 여러 동역자님들을 통해 채워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하게 하였고 자식들을 두고 와도 주님께서 부모가 친히 돌보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걱정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셨고 부모님 문제도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어머니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말을 잘 못하는 나의 문제도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며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이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나의 건강문제도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열심히 걸어다니게 하시고 산 넘고 물 건너 끝없이 걸어도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눅 22:35)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시간도, 참석(헌신)도, 또한 열매도!

[선교도전]

인도 선교사 정윤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인도주재 선교사, 인도복음성경대학 학장 및 교수

인생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다. 한 개인의 일평생 동안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 무엇이 인생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근래 수년 동안에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반복하여 나 자신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다.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엮어가고 있는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70의 삶과 그 결산을 인정하여 주시겠는가? 'B' 점수를 주실 것인지 'A' 점수를 주실 것인지, 아니면 'C'나 그 이하를 주실 것인가? 실로 심각한 질문이며 도전이다. 만약에 내 인생이 제2의 삶의 기회를 가진다고 할 때에 또 다시 제1의 삶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리비아)와 아시아(인도)에서 모슬렘들과 힌두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나간 1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본인은 어느덧 이 땅 위의 삶을 마무리하여 주님께 보고(보고서 작성)드려야 된다는 중차대한 실감 속에 선교지 인도땅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이제 20여년 더 복음 증거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겠는데, 잠자는 시간, 이런 저런 시간, 기다리는 시간 등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는(열매 맺는) 시간을 계수하여 보면 5년이 될까? 10년이 되어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사용하는 그곳에 나의 진실한 관심과 가치가 있으며 또한 내가 참석하고 출석 (presence) 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 중심에 불붙는 관심이 있으며 나를 드리는 헌신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 인도 한국선교부의 중심사역은

첫째로 인도복음화의 역군을 만들어내는 IEBC(India Evangelical Bible College)의 운영이다.

둘째로는 St. Paul School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일이다.

세번째로는 India Evangelical Church를 설립하여 하나의 철저한 말씀 중심 교단이 되었으며 정부에 등록된 법인이 되었다. 인생으로서 가장 으뜸되는 근본도리(윤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물론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한없이 사랑해야 한다. 말로도 그러고 행실로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인생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큰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 지구 위에 우리 밖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양들이 아직도 30억을 헤아리고 있다. 인도에만도 8억이 넘는다. 주로 중동 지역과 아시아 땅에 많이 편재하여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인생 결산서, 열매 맺는 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인생의 근본 도리, 기독교 신자의 가장 큰 사명 수행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하자. 나의 시간을 쓰자. 나의 참석 (복음 증거자와 선교사가 되어야지요)을 나타내자.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기쁘게 맞아 주실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선교의 8대 도전

[선교도전]

대만 선교사 **유환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 대만주재 선교사, 중국개혁신학교 원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동역자 선교사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크신 영광을 도립시다. 선교전선에서 19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선교의 8대 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이름에의 도전 2. 욕심에의 도전 3. 나태에의 도전 4. 언어에의 도전
5. 영혼에의 도전 6. 토지에의 도전 7. 신학에의 도전 8. 교권에의 도전

SEND International

[선교도전]

SEND International 총괄 디렉터 **프랭크 서버**

Dr. Severn is the General Director of SEND International, an inter-denominational mission organization. Previously he had served for 14 years with SEND in the Philippines primarily in church planting. As Chief Executive Officer. Dr. Severn travels extensively in the areas where SEND fields missionaries, which includes Alaska, Northwest Canada, Hong Kong, Japan, Philippines, Spain, Taiwa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Dr. Severn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Dr. Severn is a graduate of Philadelphia College of Bible and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Dr. Severn also spends a large amount of time speaking and teaching in churches and schools.

I. Introduction

II. Matthew 9:35-37

A. Jesus' View of Asia in Relation to the Multitudes

III. The Great Call in North and Southeast Asia

A. John 4:35-38 B. Russia: Siberian and Magadan District C. Philippines D. Taiwan E. Japan F. Hong Kong G. China

IV. Conclusion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선교도전]

OMF 미국 디렉터 **다니엘 베이컨**

U.S. Director o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OMF)



INTRO:

I. The Challenge of Today's Asia

a. Asia today poses the greatest missionary challenge to the church to the church worldwide.

II. Open Doors and Obstacles

- a. The challenge of Asia's cities.
- b. The challenge of creative access nations.
- c. The challenge of Islam.
- d. The challenge of the Asian Diaspora.
- e. The challenge of the Asian church.

III. What is needed?

- a. Committed missionaries are needed.
- b. Servant missionaries are also needed.
- c. What will missionaries do when they get there?
- d. The church at home must mobilize resources for missionaries.

CONCLUSION:

All across Asia, the Church of Jesus Christ can be found. But as the economic power of Asia increases, how will it affect the spread of the Gospel /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is "What god will Asians serve - the god of materialism and secularism or the Creator who loves them?"

방글라데시 선교현장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방글라데시 선교사 장순호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방글라데시 주재 선교사, 방글라데시개발협회 소속



아프리카 정글이나 인도대륙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각종 언어와 이민사회들이 뒤엉켜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현대도시가 정글이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우리의 선교현장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고생을 덜하시는 것 같고 정글속에서 사는 선교사는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않은 않습니다.

1. "중국선교는 물간 생선, 소련선교는 생생한 생선, 북한선교는 못잡은 생선"이란 유행어가 나올 만큼 한국교회들의 선교가 흥분되리만큼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선교사 중국에 가서, 소련에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중국적으로 부딪히게 될 쟁점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10억을 넘어서 세계인구의 1/5이 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들은 매년 인구자연증가율이 1년에 2,000만 명씩이나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석유를 주셨다고 믿고 세상을 모두 알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 하나를 죽임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금세기말과 21세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 방글라데시는 타골과 같은 위대한 시인을 낳은 땅이고 지역적으로 티벳과 중국대륙과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동남쪽 수천리를 흘러내리는 강물이 브라마투트라를 지나 간지스 강에 합류하여 미친듯이 뱅골만을 흐르고 있는 대평야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그 땅이 비옥한 것 같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도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지고 다양한 문화가 풍부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빈곤하며 무지몽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히 기독교에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있는 회교도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986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한국선교사들의 연합사업은 현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소속 교역자 4명과 평신도 선교사 15명 등 19명의 선교사들이 KDAB(방글라데시개발선교회)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공동체, 교회개척, 기도원사업, 농촌 및 사회개발,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을 통하여 방글라데시를 개발하고 그들의 영혼구령사업에 협력하고자 가나안농군학교, 서양음악학교, 봉제기술학교, 간호원양성학교, 이동병원, 나환자정착마을, 보건소, 일반학교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 1) 철저한 은사중심의 전문인 사역과 초교파적인 공동사업, 선교사들의 공동 재정관리 및 인사관리.
- 2) 현지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미 현지인들 속에서 살아가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케 도움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 3) 물량지원과 시설투자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사역 등을 중요한 강령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더 이상 돋보이고, 건물세우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큰소리치는 선교사, 선교단체, 후원교회들, 현지인 교회지도자들은 선교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도, 현지에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면에서 또 물질적으로 가진게 많아서 도와준다는 식의 교만이 도사린 선교를 이제 그만 버립시다! 우리의 선교신학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인간으로, 조물주가 피조물로 오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빛진 자의 심정에서 현지인 밀으로, 국가들 아래로, 타민족 밀으로 어서 속히 내려갑시다.

2000년을 향한 인도네시아 선교사역, 도전과 기회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승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파송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 교회개혁, 지도자 양성 및 방송선



1. 배경

2. 인도네시아 교회가 받는 선교적 장애

1) 외적 장애

인도네시아 교회는 회교화(Islamization)라는 큰 선교적 장애를 안고 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89%가 회교로 되어있는데 인구 1억8천2백만 중 1억6천3백만이 회교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 절반 정도는 이름 뿐인 회교도(Aban-gan이라고 함)이고 반 정도는 열심있는 회교도(Santri)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양쪽 모두가 기독교 선교의 큰 장벽임과 동시에 선교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때때로 이들은 정치적 방법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포교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들의 직위나 조직을 통해 회교화에 힘쓰고 있다.

2) 내적 장애

외부로부터 오는 사역을 감당한 후에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회가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도 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지의 문제화 갈등에 대응할 토착화된 신학이 없다. 과거 서양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서구신학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착화의 노력이 때로는 혼합주의로 이해되기도 하고 뿌리가 없는 신학적인 배경으로 교회는 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선교적인 사명에 약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해외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화란이나 독일교회의 지원 등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종족교회인데 선교적 환상이나 교회적 사명을 인식하는 일에 약하고 잦은 분열은 증거자로서의 교회의 힘을 잃게 하고 있다. 교회사역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동역의 부족으로 각교단이나 교회의 사역들, 선교적인 사역마저 중복 실시되므로 시간과 물질의 낭비가 많다.

3. 선교적 도전

우리는 이상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장애요소를 알아 보았고 선교의 기회를 보았다. 현지에 회교도가 많다는 것은 선교적 장애도 되지만 반면에 선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되고 선교적 장애는 선교를 위한 도전과 각오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 1) 우리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 2)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공동투자가 있어야 한다.
- 3) 각 교회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협동하여 인도네시아 교회가 주관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섬겨야 한다.
- 4) 선교사에 대한 비자발급이 82년 이후 중지되었고 신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요원으로서의 비자만 발급되는 형편이므로 무리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현지에 맞는 사역이나 한국의 지원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공동으로 개발 지원해야 한다.

일본 선교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일본 선교사 **변재창**

OMF/GMF 소속 일본주재 선교사, 교회개척, 제자훈련 및 문서출판사역



아시아의 선교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Indonesian Missionary Fellowship 회장 **페트루스 옥티비아누스**

President of Indonesian Missionary Fellowship



[Matthew 9: 35-38]

I. Three Perspectives

- A. Broad Geographic Vision
- B. People-oriented
- C. Evangelism with Power

We live in the middle of a great age. People respect the power of science. People respect political authority. People respect economic or military strength: Evangelistic orientation is always linked with power ("you shall receive power t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

II. Asia still has the greatest concentration of unreached peoples in the world, as the largest and most powerful set of governments which deny access to overt missionary activity.

- A. Creative means of entering and serving in closed areas
- B. 80 per cent of Asian cities unevangelized.
- C. 90 per cent of Christian workers are spending their efforts on those who are already evangelized, indeed upon those already in the churches.

저녁선교대회 설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김득렬**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중앙위원장





새나침기대회

선교도전/ 양춘호 선교사 차세대
설교/ 김충기 목사 서울 강남침례교회

성경강해

강사/ 곽선희 목사 서울 소망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곽전태 목사 서울 구로중앙교회
주제강연 II 강사/ 이상현 교수 프린스턴신학교 석좌교수
선교도전 I 강사/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도전 II 강사/ 윤수길 선교사 태국
선교도전 III 강사/ 박진구 선교사 싱가포르
선교도전 IV 강사/ 리차드 윈첼 TEAM
선교도전 V 강사/ 패트릭 오헤어 케이트 IMI

제너럴선교대회

선교보고/ 조용성 선교사 터키
선교보고/ 손영삼 선교사 그리스
선교보고/ 최원섭 선교사 러시아
선교도전/ 피터 쿠티믹 Professor of College in Osijek
설교/ 안병국 목사 안다옥침례교회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설교]

서울 강남침례교회 담임 **김충기**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차세대 **양춘호**

에베소서 강해 [2]

[성경강해]

서울 소망교회 담임 **곽선희**

서울 소망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서울장로회신학회 이사장



부르심에 응할 선교사의 준비

[주제강연]

서울 구로중앙교회 담임 **곽전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서울 구로중앙교회 담임목사

본 대회 주제는 "와서 도우라"이다. 이 절실한 요구에 가서 도울 자가 누구인가? 이는 이사야 6장 8절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사명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모여 대회를 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역사적인 행사를 치룬다 해도 구체적으로 선교현장에서 선교할 인물이 빈곤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오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가라" 명하셨다. 이 순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할 응답자가 중한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유컨대 국방을 위하여 온 국민이 잘 후원한다 할지라도 전선에 나갈 장병이 없다면 국방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교현지에 가서 구체적인 선교활동을 할 선교사 본인과 보내는 단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항목을 정리해 보자.

1. 선교사의 자질

1) 구원의 확신

가장 평범한 표현같지만 가장 귀중한 내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선교사만이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모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필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주의 일군이 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한 직업인으로서의 가능할 지 몰라도 사명자는 될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가슴에 벅차지 않는 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체험적인 사건이 자아를 붙잡아 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주변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지라도 내가 느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는 남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굳게 서약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확실해야 한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엔진 속에 불이 꺼진 상태와 같은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가 원하여 명하는 것을 어찌 하지 않으랴 하는 마음가지짐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지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마음이 부르심에 응할 자의 기본 자세이며 준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소명의 이유

보내는 단체나 가는 본인이나 소명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회의 주제에 잘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도우라"고 간청한 형편과 같이 오늘날에도 현대적 마게도냐 사람들이 간곡히 "와서 도우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키 위하여 사명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조난자가 구명을 호소해 올 때 도의적 측면에서도 신속히 구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둠으로 죽었다고 하면 책임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어 그들을 구원키 위하여 가서 도울 자를 부르시고 계신다. 여기에 분명한 소명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베드로를 부르시듯, 마태를 부르시듯 필요한 종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3) 선교사의 각오

하나님의 소명은 주권적 방법이다. 응답자와 의논하여 소명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방법이라는 뜻이다. 실례를 하나 들면 사도 바울의 소명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압적 방법으로 굴복시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릇을 삼으신 것이다.

이번 경우는 응답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다. 여기서 우리 응답자의 자세는 순종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조물로서의 창조주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복종과 아멘의 자세여야 한다. 이것은 억지로나 아니라 감격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서는 것이다.

사람마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직업이 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하여만 직업을 가진다면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 일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한다면 그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선교사는 그 일을 함으로써 생활을 하기는 하나 직업인이 아니다. 선교사 중에 생계를 위하여 이 일을 억지로 하는 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없으리라 확신한다. 선교사 모두는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나선 이들이라 믿는다.

100여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한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익히 알 수 있다. 문화와 생활수준의 격차는 이루 표현키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나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였다. 본인이 신학교에 다닐 때 작고하신 Cooper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실 때 경험담을 종종 들려 주셨다. 그 내용 중에는 겨울에 발톱이 얼어 빠지기도

하고 지계를 지고 산을 넘으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어느 집에 들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구경하기 위하여 문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쿠파 목사님은 창호지를 여러 장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마다 창호지를 한 장씩 주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응답자들의 철저한 헌신의 각오에서 참을 수 있었던 상황 등이다.

4) 선교사의 사명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사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소명 이유를 알고 일할 각오를 가지면 다음 단계는 철저한 사명감이 생길 것이다.

사명자는 그가 하는 일에 자신이 몰입되어 다른 일에 대하여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참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벤스메스로 법케를 실을 수레를 끌고 가던 암소들 같이 송아지 젖을 땀 슬픔이 있어도 풀을 뜯고 싶어도 물을 마시고 싶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앞을 향해서만 갈 수 있었던 것은 법케 운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는 자기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시고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가기 싫어도 가라 하면 가도, 가고 싶어도 멈추어라 하면 즉시 서야 하는 자이다. 그야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명자는 주님의 기도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명자는 소명하신 이의 명을 따라 가는 길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돌격명령을 받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진격하듯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도 주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 1월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현지를 순방한 일이 있었다.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비행하면 두마게티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약 100Km 차로 더 가서

말을 타고 2시간 이상 산을 올라가서 선교현장에 도착하였다. 이곳 이름은 히말라루드이고 신인민군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었다.

이 교회를 개척하여 선교하고 있는 곽춘식 선교사에게 내가 묻기를 "위험을 느끼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감독님! 죽음을 각오하니 모든 염려가 없어집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27세 젊은 선교사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고 눈동자에는 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대답하는 모습에서 사명자의 굳은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사명감이 없이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 선교사의 준비

선교에 있어서 선교하는 당사자가 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선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1) 체력

체력은 선교력과 동일시할 정도로 귀하다. 선교사의 일은 결코 안일한 일이 아니다. 남다른 고생과 어려움을 당하는 직분이다. 식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른 선교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풍토병에 걸리기도 쉬운 선교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하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선교지에서 몸이 약하거나 병들면 그 일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건강하도록 체력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대략 건강 지는 선천적인 좋은 골격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강유지 방법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선교사 각자가 이 문제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선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리고 새로 선교사가 되려는 일꾼들은 일찍부터 건강에 자신있는 체력을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한다.

2) 지력

특별히 선교지에서 일하려면 다방면에서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만물박사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상식을 가지고 지도해야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게 아는 지력이 필요하다. 대략의 경우는 선교지 주민들이 선교사의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지식이 요청된다.

선교사는 특별히 현지 언어를 속히 배워 그들과의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교사는 모든 면에서 막힘이 없도록 주를 위해서 배우고 주를 위해서 알고 주를 위해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재력 (才力, ability, talent)

이 재력은 천부적인 소질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종종 타고 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워서라도 특별한 기술을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식수가 여의치 못한 지역에서 양수기 조작법을 앎으로 그 양수기를 가동시켜 주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위급한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응급조치법을 익혀 둔다면 선교활동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척척 처리할 수 있는 재간을 가지고 있어야 1등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기술이 있어서 선교비까지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이상적인 선교사였다 할 수 있다.

4) 영력

선교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영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날으는 비행기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진다면 추락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사데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영력이 없어진다면 이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선교사가 영력없이 얇은 인간적인 방법 만 동원하여 선교활동을 하려한다면 열번 백번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일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우리가 이 영력을 받아 간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는 받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방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성령의 방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는다는 말씀이며 이 능력을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선교임지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당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 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약한 형편이었으나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승리한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제자들은 비록 약하였지만 그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일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 모두가 영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 귀한 영력을 받고 그 영력이 감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영력이 없어지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선교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3.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 (개인)

선교는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 그리고 후원단체, 이 삼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행

하게도 한국은 선교사 지망생도 많고 이들 선교사를 후원하는 단체도 많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 단체나 개인들이 잘 후원하고 있으나 몇 가지 강조할 것이 있다.

1) 애정적 관심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보낸 후 깊은 애정을 품은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의미 얇은 공명심으로 해서 안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머지않아 관심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나 대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 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갔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일이 관심 밖의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기만 한다면 격려의 편지도 보내고 선교현지를 순방도 하여 협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무관심은 그 일의 포기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교단체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야 할 것이다.

2) 간절한 기도

위에서도 말한대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끊임없는 기도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든든한 밧줄과도 같은 것이다. 선교단체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선교현지의 일군에게 큰 능력으로 임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가족 돌보기

선교사가 자녀교육 등 여러가지 형편으로 가족을 본국에 남겨둘 수 밖에 없는 선교사들도 있다. 가족들을 거느린 호주는 가족의 형편이 편안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선교사 가족까지 책임지고 잘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사로 하여금 아무 근심없이 선교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넉넉한 선교비

피선교국의 형편은 대부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보다 경제, 문화, 생활 형편에 낮은 수준이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교를 받던 초창기 경우를 보더라도 익히 이해되는 내용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복음전파의 터전을 삼았던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선교한다는 우리가 선교사 생활비나 겨우 보내는 형편으로는 역부족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선교지에 돈만 뿌리자는 표현은 결단코 아니다. 선교비를 많이 투자하여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교회부지나 병원부지를 구입하며 신학교를 건립하여 현지 교역자를 양성하는 등 실로 돈 들 일 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선교기금을 많이 마련하여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 또 같이 고생하는 선교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고 계시는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에 관계하는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직도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같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고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임을 우리 모두 자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의 주역은 우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를 통하여 폭발적인 서교 열의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천지가 진동하게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강하게 뜨겁게 능력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민교회의 선교적 사명

[주제강연]

프린스턴신학교 석좌교수 이상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서울 구로중앙교회 담임목사



1. 선교의 목적과 토대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바로 선교다.

이것은 삼위일체 신앙과 기독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이 "주는 사랑" 즉 이웃으로 향하는 자세이다. 성부는 생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며,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오는 사랑이 성령이다. 어떤 개체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의 "오심" "우리와 같이 하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체 자신에 만족하는 갇혀진 단체일 수 없다. 기본 소식을 가지고 온 세계로 나가는 일, 즉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교의 목적과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쓰여 있다. 지상명령은 기독교론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와 토대를 두고 있다. 선교의 이유와 원동력과 방법.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이 선교의 근거이며 목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에 궁극적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과 공간에 재현 또는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이며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란 이렇게 방대한 규모와 깊은 토대 또 원동력을 가진 실패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2. 이민교회의 선교의 장(field)

위에 이미 선교의 포괄성과 깊은 토대를 언급하였다. 니케아 신조에서도 포괄성을 교회의 근본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선교는 이민교회의 선교사명에 대하여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크리스천 이민 자신의 내적 선교의 장.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우주 공간도 한없이 큰 것이지만 인간 내의 용간도 못지 않게 무한하다. 선교의 포괄성을 생각할 때 우리 각 개인의 내적 공간을 향한 선교를 무시할 수 없다.

첫째, 크리스천에게는 누구나 내개 자아를 향한 정돈과 성화의 선교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이 라도 그의 마음과 태도 속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점차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감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천 이민의 첫째 내적 선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민은 또 새로운 자아의식과 인생철학을 수립해야 하는 과업을 대면하고 있다. 나는 이제 Korean-American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민생활의 목적과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 풀어나가는 것은 이민 크리스천의 중대한 내적 선교과제인 것이다.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민 크리스천의 문화적 선교의 내적 장을 들 수 있다. 한국 또 동양 문화 속에서 좋은 것은 재발견하여 간직하고 서구문화 역시 우리가 평가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을 채택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거부하는 중대한 과업이 있다. 기독교 복음에 입각하여 착수해야 하는 이 중대한 문화적 선교의 책임을 이민 크리스천들이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이민교회의 내적 선교의 장

이민 개인을 초월하여 이민교회를 볼 때 교회 내의 선교의 과업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이민 1세를 향한 선교의 과업이다. 특히 미국에 와서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민교회이다. 통계를 보면 미국에 도착할 때는 약 50%가 기독교인인데 미국에 온 후에는 70% 이상이 교회와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20% 이상이 새로 믿은 초신자들이다. 이 분들의 신앙교육은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급한 교육적 선교의 과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내에 튼튼한 신앙의 터전이 없이는 교회 밖에서도 건전하고 힘찬 선교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내의 둘째 선교의 장은 2세들을 향한 선교이다. 미국 사회에서 세속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2세들을 복음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선도하는 일은 이민교회 장래를 위한 긴급한 선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미국을 향한 이민교회의 선교

이제 교회 밖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민교회의 첫째 외부적 선교의 장인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미국은 원래 기독교적 사상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극도로 세속화된 상황 가운데 미국 사회는 윤리와 가치관의 표준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사회의 복음화는 한인이민교회의 가장 중대한 선교적 사명 중의 하나이다. 복음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회혁신은 미국 사회를 향한 우리의 선교사명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민교회들은 이 과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향한 선교는 이번 5.29 LA 폭동 이후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

로 복음선교를 토대로 한 사회혁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4) 전세계를 향한 선교

전세계, 즉 모든 피조물이 교회의 선교의 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이룩하시려는 목적은 역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선교는 교회의 필수적 사명인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온 인류와 또 온 자연이 우리의 선교의 장이라는 것이다. 자연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다면 자연환경을 남용하고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작업도 교회의 선교 사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롬 8:18-23 참조)

3. 세계선교와 이민교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적혀 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은 어떤 특수한 선교사가 될 소명과 여건을 갖고 있다는 암시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 첫째, 집 떠난 나그네로서 이민 크리스천은 벌써 집을 떠난 상태이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에 있는 사람도 물론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떠날 수 있지만 이미 외국에 와 있는 이민들의 경우는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라는 소명이 그 이민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민, 즉 나그네의 상황을 외국 선교하러 가기 위한.. 떠남.. 을 훈련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성숙한 이민으로서의 신앙과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고향을 떠난 외로움과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면 나그네의 상태에서 또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외국선교는 확실한 믿음과 "고향"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즉 보내는, 격려해주는 교회)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은 즉 이민교회가 외국 선교를 열심히 하려면 이민교회 자체가

실속있고 튼튼해야 하며, 또 성숙한 신앙과 확고한 자아의식을 개개인 이민 크리스천에게 넣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같이 참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원래의 고향을 떠날 수 있다면 (히 11:8-16 참조) 세계 선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둘째, 이민들의 여건은 그들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미의 경우를 볼 때 소수민족으로서 한인이민들은 인종차별, 주변성의식, 뿌리뽑힌 상황, 주류사회에서의 격리와 소외 등 여러가지 아픔을 겪는다.

고난이란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못되지만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선택될 수 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 한국이민들은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한국 민족은 한국에서부터 고난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한국교회에게 20세기 말엽과 21 세기의 세계 선교의 책임을 주셨다는 생각도 근거가 있는 생각이다. 한국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이민들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이민으로서 당한 고난을 세계선교하는 하나의 도구로 혹은 "능력"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이민으로서의 "운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만큼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셋째, 이민으로 소수민족의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예민하여지고, 그 예민한 우리의 눈은 외국선교사로서 바람직한 차질이라고 생각한다. 백인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그들의 우월감 또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예민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세계선교에 성공하려면 민족적 우월감을 토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식민정책적 사고방식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본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애국주의와 특권의식이 강한 현대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소국적으로 대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굳은 신념과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을 우리가 전하지만, 그 전하는 방법과 태도에는 겸손과 상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며 우월감은 벌써 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세계선교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질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상처당한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상처당한 사람들을 동정할 줄도 알고 또 그들이 우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처럼 선교는 이민교회에 던져진 중대한 사명이다. 먼 훗날 이민교회 역사가 쓰여질 때 사도행전 8 장 말씀과 같이 "미국에 흩어진 한국민족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인도네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선교도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종국**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파송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 인도네시아복음신학대학 교수 및 개척교회 등의 사역

들어가는 말

1. 인도네시아 - 열려져 있는가?
2. 선교지 인도네시아 - 그 구체적 접근
 - 1) 인도네시아 내의 미전도 족속
 - 2) 현지교회 지도자양성
3. 도전과 함께 자라나는 기독교
4. 인도네시아 교회의 세계선교에의 기여 - 무슬림을 향한 복음의 역수출국으로서

글을 마치면서

선교지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져 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현대화, 도시화의 물결이 몰려들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로가 없는 정글 속을 물살을 헤쳐 스피드 보트로 거슬러 가야 닿는 곳도 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의 선교

는 이러한 인니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교형태를 모색함으로 시작된다.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똑바로 보며 자신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울의 여정을 바꾸게 했던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결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선교지의 초청하는 손짓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을 보이며 "그래도 가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한다. 선교지의 토양이 척박하고 선교사의 활동에 여러 장애와 난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속에 하나님이 touch 하셨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는 갈렙의 선견과 용기를 가진 자를 선교지는 요구한다. 선교의 열매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산지 너머의 확실한 비전에 사로잡혀 현재의 자질구레한 일에 성실할 수 있는 턱없는 낙관론자 만이 서두르지 않고 사역을 다스려 갈 수 있다. 인니 정부에 의한 선교사의 귀국이 속출되고 있는 이 때에 인도네시아의 역사, 현실에 비추어 인내와 섬김을 살기로 누가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선교도전]

태국 선교사 **윤수길**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의 선교가능성

[선교도전]

싱가폴 선교사 **박진구**

한국기독교장로회 파송 싱가포르 주재 선교사, Emmanuel Pneumatos Center 담임목사, 마약중독자갱생원, 교도소 사역



1. 서론

2. 현재까지의 사역에 대하여

- 1) 교회상황
- 2) 선교여행
- 3) 철야기도회 모임 (Overnight Prayer Meeting)
 - A. 기도운동의 확산
 - B. 선교사 지원운동
- 4) 사회선교 (Social Mission)
 - A. 형무소 사역 (Sebawang Centre, New Wine Fellowship)
 - B.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 (Good Samaritan Ministry)

3. 그동안의 사역이 현지에 끼친 영향

- 1) 아시아인의 선교가능성
- 2) 사회선교
- 3) 기도운동

4. 선교도전을 맺으며

최근의 한 선교보고서를 통하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기독교 인구 대 비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1:200,000 이상이라는 보고를 접할 때 우리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 인류의 2/3가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원시림과 무지의 가늘 속에서 숨쉬고 있는 땅,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세상을 한번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러나 그 다른 편에서는 물결치듯 밀어닥치는 외래문화의 홍수를 맞으며 자기의 정체

성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무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땅, 아시아. 결코 버려질 수 없으며 버려져서도 안되는 이 땅.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 민족보다 더 나은 선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4-36)

선교는 인류를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이제 한국의 민중에서 그 눈을 돌려 아시아의 버려진 민중들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소외된 민중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TEAM - Adapting to a Changing World

[선교도전]

TEAM 총괄 디렉터 리차드 윈첼

Richard Winchell has served as General Director of TEAM since 1975. TEAM is one of the larger foreign mission agencies based in North America. TEAM's purpose is to help churches send missionaries to plant reproducing churches in other nations. Dr. Winchell also works as Presiden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1. The Cry for Freedom

- 1) Africa
- 2) Eastern Europe
- 3) South Africa
- 4) 1990

2. New Openness to the Gospel

- 1) TEAM

3. The Movement of the People

4.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5. Parallel in Scripture

- 1) Israelites and Canaan
- 2) Housing
- 3) Learning the language
- 4) Fear

Conclusion : How it Can Happen

Korean Reaching Muslims wit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선교도전]

International Missions, Inc 회장 및 총괄 디렉터 **페이트 케이트**

Patrick O'Hair Cate is presently President and General Director of International Missions, Inc. which fields missionaries in Egypt, England, France, Germany, Holland, Hong Kong, India, Iran, Japan, Kenya, North America, Pakistan, the Philippines, Turkey, and as well as a couple of "closed" countries. A Wheaton College Alumni, Mr. Cate pursued his studies in the area of missions with emphasis on the Middle East as he studied the Arabic language and Persian language. He has worked in the mission field as a church planter in Egypt. He is also the co-author of the book 「Partnering in Ministry」 with Lorry Lutz.

1. Why Should Koreans Reach Muslims?

- 1) Exciting Facts About Korean Church History
- 2) Quote by Ruth Tucker

2. Why Is the Church Growing so Fast in Korea?

- 1) God's Call
- 2) God's Reason for Placement at a Strategic Juncture in History

3. How Will You Respond?

- 1) Reaction to God's Call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 2) Examples in the Past
- 3) Cross-cultural Barriers Needed to Be Overcome
- 4) The Muslim Standpoint on Christianity
- 5) Main Reason Koreans Should Reach the Muslims
- 6) Korean Reservations
- 7) The Challenge and Christ's Response to that Challenge
- 8) Obtaining the Support of Family by Informing Them

4. Opportunities for Korean College and Seminary Graduates

- 1) IMI Needs in Reaching the Muslim World
- 2) Evangelism Techniques
- 3) Biblical and Theological Training Requirements
- 4) Linguistic Abilities in N양d

5.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Missions

- 1) IM's ministry to non-Muslims
- 2) Muslims Reached
- 3) Summer Training Program in Muslim Evangelism
- 4) Credentials of IMI and Plans for Koreans at IMI

6. Why Should the Church Reach Muslims?

- 1) God Calling You
- 2) Jesus' Call
- 3) Scriptures from Paul

7. Opportunities for Response

Koreans are quickly becoming a strong force in the missions field. That is why Patrick Cate sees a great plan awaiting them to serve the Lord. Due to the cultural orientation of Koreans, Mr. Cate feels a great opportunity is at hand for Koreans to spread the Gospel to Muslims who comprise 1/5 of the world's population.

터어키 선교와 전략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터어키 선교사 **조용성**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터어키 주재, 국제 C.C.C. 소속으로 대학생 사역



1. 터어키 민족의 由來(Origin)

2. 터어키 민족의 의식구조

1) 중동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 터어키가 10년 동안 자체 힘으로 댐공사한 일부를 시운행 했는데 수로터널만 26킬로미터 공사를 완공했다. 이 공사 이름을 GAP 프로젝트라고 한다. (일명: GAP Project, 동남부공사)인데 이 댐은 아라랏산에서 흐르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와 한편 티그리스강이 이 산능울과 지방에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지점에 댐을 공사한 것이다. 이 댐이 2년 후 완공되면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터어키의 일간신문에 "기름은 기계가 먹지만 물은 사람이 먹는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것은 향후 5년 안으로 중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서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터어키가 복음화가 될 경우 중동지역의 회교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아랍 여러 곳에서 약 500만명의 터어키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과 또한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에 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터어키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터어키는 휴양차 온 아랍인들이 많이 있고 아랍국가 내에서 복음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터어키에서 이들에 대한 전도는 그들 국가에서보다는 더욱 효과적이다.

2) 중앙아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구권선교는 우리 시야에서 먼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것처럼 강한 루마니아까지 문을 여셨으므로 이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영상의 자막이 사라진 것이다. 최근의 소련의 모스크바는 레닌그

라드 광장을 본래의 이름으로 개칭한다는 소식이 충격 아닌 충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추수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선교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계획할 것인가? 필자는 5년여 동안 이 땅에서 무명용사처럼 사역하면서 중앙아시아 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언어학자들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략 흩어진 터어키인들이 1억8천~2억이라고 추산한다. 2억에 가까운 이 민족을 하나님을 결코 잊혀진 백성으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3. 결론

오늘날 터어키는 아마 1856-64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터어키는 눈을 서양으로 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럽공동시장에 연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철의 장막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터어키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100만명당 1명 꼴의 선교사가 있으며 여전히 지구상에서 비복음화지역으로 남아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지금 13세기에 모슬렘 영혼들을 위해 최초로 순교한 레이몬드 룰(Raymond Rull)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남겼다. "오! 주여, 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실 이는 오직 당신 밖에 없으시며 또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감당하는 길 밖에 결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나이다."

짚시 부족을 위한 선교사역 (Love Gypsy Missioin)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그리스 선교사 **손영삼**

서울 A.F.C. 선교회 소속 그리스 주재 선교사, 짚시교회 개척 및 구제, 교육, 의료선교



1. 선교지 헬라의 정교회 (Greek Orthodox Church) 실태

- 2,000년전 바울의 선교현장들
- 1,054년 동서로마의 분열
- 희랍 정교회의 예배의식
- 성인구원설 (성화경배)
- 국교로서의 국민의례 (출생, 결혼, 장례)

2. 짚시 선교의 전략

1) 구제선교 -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우드의 말처럼

"배고픈 자들에게 빵보다 복음을 먼저 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표현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에 대한 가르침이다. 구제사역이 주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 (행 6:2)은 분명히 마땅히 아니한 사역이지만 "생명의 떡" (요 6:35)으로 접근시키기 위한 주님의 선교방법도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전제로 "배부른 후에" (요 6:12) 선포하셨음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2) 의료선교

- 의약품 선물을 통한 복음의 접근
- 신유의 체험을 통한 복음의 접근 (요 9:1-7)

짚시들은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으므로 치유역사하심을 통한 회심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별히 본인 선교사는 C&MA 교단 소속의 목사인지라 4종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중심적 메시지로 사역하고 있다.

3) 교육선교

야학운영 : 짚시부족의 문맹률은 95% 이상이며 그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가. 7세만 넘으면 노동력을 통해 가정경제를 도와야하고 나. 전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빈번한 일터의 이동과 다. 전기 및 상하수도 등의 문화시설이 없는 가정환경과 라. 교육장소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불가능하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짚시촌 내에서 야학을 운영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맹을 퇴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짚시자녀 입양교육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짚시 아들을 선교사 가정으로 입양해서 정상적인 문화와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시키며, 또한 신학교육을 거쳐 짚시교회의 짚시목사로 동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일꾼을 양육하는 장기적 전략.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러시아 선교사 **최원섭**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러시아 주재 선교사, 러시아 복음주의기독교 및 침례교연맹 한국부 책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교수 **피터 쿠즈믹**

Peter Kuzmic is the Professor of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in Osijek, Yugoslavia. After receiving his B.A. from Southern California College in Costa Mesa, California. Rev. Kuzmic went on to Wheaton College Graduate School to receive his M.A. and finally to Catholic Faculty of Theology in Zagreb, Yugoslavia where he received his Th.M. and Dr. Theol. - all of which he completed with achieved summa cum laude honors. Besides teaching at the Theological College. Rev. Kuzmic has also pastored several churches in Yugoslavia. As well, he has taught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sadena, California and is presently visiting faculty at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저녁선교대회 설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안디옥 침례교회 원로 **안병국**

위싱턴한인침례교회 3대 목사, 안디옥침례교회 초대 목사,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위싱턴지역 교회자회 회장





세대혁명대회

선교도전/ 조용중 선교사 필리핀
설교/ 길자연 목사 서울왕성교회

성경강해

강사/ 아지스 페르난도 National director of YFC in Sri Lanka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신성종 목사 서울 충현교회
주제강연 II 강사/ 이태웅 목사 여의도침례교회
선교도전 I 강사/ 유부웅 선교사 케냐
선교도전 II 강사/ 박은생 선교사 가나
선교도전 III 강사/ 조성덕 선교사 소말리아
선교도전 IV 강사/ Fred Beam AIM
선교도전 V 강사/ Ian Hay SIM

제국선교대회

선교보고/ 김정윤 선교사 우간다
선교보고/ 김종양 선교사 스와질랜드
선교도전/ Panya Baba President of the ECWA
설교/ 차현희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새벽기도회 설교]

서울왕성교회 담임 **길자연**

서울왕성교회 담임목사, 북한선교회 이사장



[누가복음 5:17-26]

이 말씀 중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과 "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소경들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원한다"는 말씀은 모두 다 "믿음"을 뜻하는 말씀들이다. "믿음"이란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은 "너희가 눈을 뜰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씀이며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대답은 "예, 우리들이 눈을 뜰만한 믿음이 있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분명한 기준과 조건 하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의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준다.

1. 우리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는 것
2.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것이다.
 - 1) "예수께서"
 - 2) "저희의 믿음을"
 - 3)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

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로마서 14:32에서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어떤 경우에서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주님의 역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분명한 동기를 가진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다.

본문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놀라운 체험을 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소개해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신자들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믿음"을 지닌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참믿음"이란 무엇인가?

- 첫째, 병이 들었어도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 둘째, 참믿음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 셋째, 참믿음은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병을 이기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길되신 예수님이시다. 죄를 사유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중풍병자가 지붕의 기와를 벗기기까지, 내려오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길이 막혔어도,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리시는 주님이 내게 계신 동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 사함 받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필리핀 선교사 조용중



에베소서

[성경강해]

Youth For Christ 스리랑카 디렉터 아지스 페르난도

Ajith Fernando is the national director of Youth For Christ in Sri Lanka. He has numerous published works, including 「The Christian's Attitude Toward World Religions」. Dr. Fernando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conferences.



1. Suffering Qualifies Us To Exhort Others (4,1)

- 1) Preachers today seem to advert to urgent exhortation.
- 2) Suffering is a key to the effectiveness in ministry.
- 3) People ignore the suffering of missions.

2. Our Calling is to Community Life (4,1-16)

- 1) Christian idea of community unique.
- 2) When individual initiative and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s is over valued, a sense of community is lost
- 3) Maintaining deep unity is very difficult.

3. Four Keys to Maintaining Unity (4,2,3)

- 1) Thre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maintain unity.
- 2) We must realize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 3) Joy in God is a key to longsuffering.
- 4) To maintain unity, we must work hard at it.

4. Logic of Unity (4,4-6)

- 1) The Role of the church.
- 2) Primary Goal
- 3) Divisions among Christians is a stumbling block.

5. Recognizing Diversity: a Key to Maintaining Unity (4,7-12)

- 1) Gifts.
- 2) Leaders must recognize the gifts and give people opportunities.
- 3) Leaders must be able to help people achieve what God has in store for them.

6. The Goal of Maturity (4,16)

- 1) We will always be growing.
- 2) We will always face challenges.
- 3) We must use the challenges to grow.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지도자상

[주제강연]

서울 충현교회 담임 **신성종**

1. 지도자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아마도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지도자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때도 일찌기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몇몇 지도자만 있으면 다들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되면서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여러 형태의 지도자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역지를 선정하여 훈련하고, 저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조직화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도자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목회에 있어서 지도력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개신교의 지도력은 말이 아니다. 인구 20%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개신교의 교회안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훨씬 작은 카톨릭보다 대정부 및 대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손봉호 박사는 꼬집고 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고 목사들의 수가 수만명에 달하는데 지도자들이 결핍하다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인 비전, 강한 소명의식, 계획성, 추진력, 희생과 기도, 겸손, 위기관리 등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교권주의자들로 인해 순수한 지도자들이 뒤에 가리워져 있고, 개신교의 개교회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것도 그 한 이유인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권위주의에서 개성존중의 민주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변화 속에서는 지도자에게 유연성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독재적이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자유방임적이어서도 안되며 참여적인 지도자

여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지도력은 개발되어야 하는데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중간지도자들이 큰 지도자로 자라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발되지 않고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회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2. 교회에 지도자는 왜 필요한가?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에 지도자는 주님 한 분 뿐이시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로 섬기고 따라가려면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교회처럼 헌신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집단에서는 지도자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지도자 없이도 아니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부족해도 돈만 있으면 그냥 따라가게 되어있으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더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가 부족하면 교회는 자유방임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도전적 행동이 생겨지면서 교회가 분열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단 안에서의 교권싸움이나 교단간의 비협조 등은 바로 지도자 부재에서 생겨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응집력은 바로 이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다음 몇 가지의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권위의 문제이다. 옛날처럼 권위주의가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력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이 아닌 다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말씀전파에 있고 신앙에 의한 모범적 삶에 있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경쟁의 문제이다. 노회와 총회에는 자연히 권력이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권력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여기서 목회자들은 노회나 총회에 관계없이 개교회주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참여하여 권력경쟁에 개입되든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바로 여기에 양심적인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다. 셋째는 목회성공에 대한 유혹이다. 여기서 시간관리와 건강문제가 생긴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건강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목회성공이란 강박관념에서 오는 것이다. 넷째는 실수를 범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혹이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한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결정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다섯째는 사적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착각해서는 안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과 이것을 혼동하고 있다.

3.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겠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의 특징을 바로 파악해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할 수 있다. 이원설 박사는 그의 「다원화사회의 영적 지도력」이란 글에서 (1) 역사변화의 가속화 현상(맥헤일), (2) 총체적 변화현상(나이비트), (3) 지구촌적 변화(맥루한), (4) 질적 변화현상(토플러), (5) 불확실성 변화(맥코믹)를 지적하고 있다.

손봉호 박사는 그의 글에서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 될 것이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은 어느때보다도 더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물질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로 사회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원설 박사는 앞으로의 사회를 다원화 사회로 규정하고 세 가지의 유동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첫째는 횡적 유동인데 이것은 도로와 통신의 발달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종적유동인데 횡적 유동의 가속화와 함께 각 계층 사이의 유동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4. 한국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가?

플라톤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배에 속한 사람, 즉 육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 둘째는 가슴에 속한 사람, 즉 용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 셋째는 머리와 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본다. 버틀러는 관심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둘째는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남들만 비난하는 사람, 셋째는 주변의 사정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유형이 아닌가 한다.

로버트 테일은 지도자에는 교환형의 지도자와 감동형의 지도자가 있다고(지도자로서의 목사, 11-12) 하였다. 교환형 지도자는 서로 주고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가치를 흥정하고 교환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런 유형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이용한다.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형은 감동형의 지도자이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필요를 공급하여주고 그를 감동시켜 따라오게 한다. 교환형의 지도자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지만 감동형의 지도자처럼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이란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미래의 교회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과 현실의 어느 한 쪽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필요한가? 손봉호 박사는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교회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판단이 공정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넷째로 비합리적인 권위주의는 앞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로 다음 지도자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도 지도자의 유형을 지적하였거니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가 있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 첫째는 전

제적 지도자. 둘째는 자유방임적 지도자, 셋째는 온정주의적 지도자. 넷째는 참여적 지도자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분류는 각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못되기 때문에 동기에 따라 나누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풍기에 따라 보면 첫째는 육체적 욕구 충족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제3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사회적 욕구 충족형. 예컨대 권력에 눈이 어두운 독재자가 있다. 셋째는 사명감 추구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처칠, 드골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영적 욕구 추구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고,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도 바로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력이 천부적인 것인가 아니면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도자는 천부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개발에는 사무엘처럼 자기 훈련의 방법도 있고, 모세처럼 인간경영의 방법도 있다. 모세는 목적을 설정하고, 혼자서 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직과 적재적소의 원리,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또 다윗처럼 위기관리를 잘 하는 방법도 있다.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고, 비전과 추진력, 희생이 있어야 하며 위기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획의 수립과정은 목표의 설정, 기회의 탐색, 계획 전체의 설정, 대체안의 결정, 평가 및 행동과정의 선택, 파생계획의 수립 등 일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회의 지도력에는 두 가지 차원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과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 달성, 목표의 성취라는 과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교제와 조화, 응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 중에 하나를 희생시키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제임스 빈스는 「기독교 목회에서의 지도력」이란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지도력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무

엇보다도 지도력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증거로서는 성장의 부재, 불화, 단기목회, 방관자적 신앙,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영성을 첫째로 들었고, 둘째는 성숙한 인격을 들었으며, 셋째는 온후한 인간관계, 넷째는 사랑을 지적하였다. 지도자의 역할로서는 섬김, 즉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였고, 지도자의 과업으로서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팀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이 되도록 활력소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맺는 말

한국교회의 앞날은 전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썩 두려운 것은 지금 그대로는 지도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한국교회는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지도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개발에 의해 보다 훌륭한 지도자로 커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훈련 방안

[주제강연]

여의도침례교회 협동목사 **이태웅**

한국해외선교훈련원 이사장 및 선교훈련원 원장, 여의도침례교회 협동목사



1. 선교훈련의 재고현상

최근 들어서 선교계에서는 선교훈련에 대해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2/3세계의 선교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새롭게 제2/3세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서구적 훈련 프로그램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1)

두번째 이유로는 교회의 세계화 추세입니다.2) 지금까지 선교훈련하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제2/3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훈련의 상황은 서구인이 제2/3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선교훈련을 이렇게 단순히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교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교가 육대주에서 육대주로 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훈련도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선교훈련을 개편하여 변화하는 제2/3세계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훈련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합니다.3)

셋째 이유는 현대화와 그 여파입니다. 현대화에 따라 사역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의 가치관, 기준 등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사역철학과 방법론을 전환하지 않고는 적응하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4) 이것은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선교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선교훈련은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넷째 이유는 선교에 대한 정의의 불확실성입니다.5) 초대 교회와 현대선교운동이 시작된 18세기 말(1793)만 해도 선교의 의미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따라서 선교훈련도 단

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 20세기 중반부터는 선교훈련도 과학화되었고 그 초점도 여러가지로 나뉘었으며 내용도 복잡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섯째 이유는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기존 가족제도의 와해와 더불어 50%가 넘는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훈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가정상황에서 자라면서 소위 "어른 아이"(Adult children : 성장했으나 아직 어린 아이로서의 상처를 가진 자들6))로서 선교사로 지원할 확률이 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옛날에 선교후보자들이 가정교육과 신학교훈련이 갖추어진 상태로 와서 선교훈련을 받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여섯째 이유는 교회의 변화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 훈련도 교회로부터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신학과 선교전문 훈련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소위 "탈기독교 교육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내지 서구사회와 나아가서는 제2/3세계에서도 선교훈련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주한인교회에게 당면 과제가 한층 더 복잡한 이유는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여 이 한편의 논문으로 다루기는 벅잡니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가 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인교회의 선교훈련에 연관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2. 북미주 내의 선교훈련 상황

1) 문화적 상황

북미주 한인교회가 처해있는 문화적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미주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한국적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주한인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인교회가 순수하게 한국적 문화를 보존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국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그 전체의 골격으로 볼 때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미주에서 한 선교사 후보생이 나왔을 경우 그 선교사 후보생은 대부분은 1.5세 내지는 2세인 경우이다. 그들은 한인교회 문화와는 달리 서구적으로 많이 동화되었고 서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이 한인교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최소한 몇 가지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한국 목회자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둘째는 미주 내에 있는 한인교회의 독특한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셋째는 외국기관에 갔을 때 서구적인 선교문화를 접해야 하며 또 현지에 갔을 때는 현지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그 예로서 북미주의 한 선교단체가 선교지도자를 찾으려 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먼저 그는 한국말을 잘 하고 영어도 잘 해야 했다. 그는 또 미국 내 한국 목사님들을 잘 알고 또 한인교회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미주에 있는 미국 선교단체도 잘 알아야 했고 미주의 1.5세 및 2세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런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이로 미루어보아 미주에 있는 선교후보생이 겪는 문화적 갈등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선교후보생이 이와 동일한 갈등을 다 겪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 중에 몇 가지를 겪지 않으면 안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주한인교회가 선교사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에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교회적 상황

대개 한국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도 예배는 있으나 조직적인 교회교육과 훈련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가령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조화있게 시키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한 선교사 후보생이 나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7) 이것은 선교훈련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젊은이들이 자유자재로 훈련받을 수 있는 한국적 학생단체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교회에는 IVF, CCC, Navigators, 세계제자훈련연맹 등 학생선교단체들이 있다. 교회가 하지 못했을 경우 종종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런 단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물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한인 1.5세 혹은 2세를 위해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인교회에서 선교훈련을 할 때 이런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없는가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사실상 미국 신학교의 선교훈련 모델은 이 같은 기초적인 것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 가운데 교육제도가 고안되어 왔다. 이제는 미국도 변화하여 교회나 학생단체가 차츰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신학교 선교교육제도도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8)

3) 선교적 상황

가. 북미주 선교기관에서 파송할 경우

한인 1.5세나 혹은 2세가 선교지로 나가려고 선교기관을 선택할 때도 그 선택이 매우 다양하다. 먼저는 북미주의 기관을 통해 파송받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한인 선교사 후보는 최소한도 한인교회, 북미주 선교기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교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나. 북미주 내 한인선교기관이 파송할 경우

북미주 내 한인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을 경우는 한인교회가 단독으로 선교단체를 형성하여 제 3국에 파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인교회 문화와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1.5세 내지 2세인 경우 북미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한인 목회자들과의 관계 혹은 선교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 한국 내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을 경우

이것은 1.5세 내지 2세의 선교후보생들을 한국에 있는 한국 선교단체에 위탁하여 파송할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한인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 선교단체와 한국교회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 선교현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온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비해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의식구조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치관과 대화, 또 가족관계 및 사역에 대한 성취도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교과과정이라든지 훈련들이 필요하다.

3. 미주 내 현존하는 선교훈련 모델들과 그 활용방안

이상과 같이 문화적, 교회적, 선교적 상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이에 따른 선교훈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제는 북미주 내에 현존하는 선교훈련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간단한 평가와 더불어 그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북미주 신학교 모델과 그 활용방안

이것은 미국 선교훈련의 가장 보편적인 선교훈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주로 신학부와 병행해서 선교학 부를 두어 신학은 신학부에서 선교학은 별도로 선교학부에서 하는 것인데 Fuller 신학교나 Trinity 신학교가 바로 이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olumbia 신학교는 신학과 선교학의 조화를 이룬 좀더 통합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과목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선교학을 가미해 가르침으로써 선교학부와 신학과의 간격을 줄인 것이라 볼 수 있다.9)

신학교의 선교훈련 모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지적인 면에 대한 강조이다. 지적인 면에 강조를 두었을 때 실질적인 훈련이나 인격을 연마하는 면이 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제 2/3세계의 학자들은 지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의 조화와 중의도를 훈련의 목표로 보았다. 한국 학자들은 전인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단순히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10)

두번째 강조점은 사회과학적인 면이다. Allan R. Tippett 등도 서방선교학이 사회과학면을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1) 이는 급변하는 세계 사회와 선교상황의 다양성 때문이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 타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 최근 일어나는 반론은 보다 성서적인 균형과 능력을 위해 성령을 의존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북미주 신학교 모델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선교후보생들을 북미주 신학교에 보내서 선교훈련을 받게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미주 한인교회에서 선교후보생이 생길 경우 그 후보생들은 선교전문 신학교에 위탁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Trinity 신학교, Fuller 신학교, Columbia 신학교, Dallas 신학교, Talbot 신학교, Southwestern Baptist 신학교, Reformed 신학교 및 Wheaton 신학교 등 선교학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일반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과 선교학을 근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을 위해 선교단체별로 추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는 미주한인교회, 문화, 한국선교단체, 미주한인선교단체,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 그 밖에도 경건훈련과 기도훈련, 금식훈련, 극기훈련 등 아시아 선교사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면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선교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것 이외에 여러 단

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선교단체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같은 선교훈련 오리엔테이션 센터들에 대해서는 그 질과 운영상태를 점검한 후 북미주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같은 곳에서 공인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일 이런 기관들이 지역별로 잘 안배만 된다면 1.5세와 2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자재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신이 나아가야 할 선교기관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훈련은 비단 한국선교단체나 미주의 한인선교단체를 통해 나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주의 서구선교단체를 통해 나가는 사람에게도 몇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들의 모교회가 주로 한인교회가 될텐데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현지에서도 아시아인의 얼굴을 가진 자로서 아시아인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북미주 선교단체 선교훈련 모델과 그 활용방안

북미주 선교단체들은 그 나름대로 선교훈련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조화를 이룬 선교훈련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오히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남침례교 선교회에서 약 2개월 정도의 일률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 단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며 동시에 선교학적인 훈련을 단시일내에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훈련이 해외선교회(Oversea Missionary Fellowship)에도 있다. OMF는 북미주에 후보생학교가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본부에서는 약 2개월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 선교학적인 것이나 언어습득 등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선교단체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선교지 현지행정 체제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고 본부행정 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진 기관에서 임할 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훈련을 받고 한국 선교사가 현지 체제가 잘 구성되지 않은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도 앞으로 현지선교 체제와 본부 체제가 잘 정비되었을 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현재는 개척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북미주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훈련 모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도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기능적인 선교사보다는 지도자적인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번역선교 등 특수선교를 지원할 경우 이런 선교훈련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북미주 한인교회 부설 선교훈련 모델과 그 활용방안

이것은 북미주 한인교회들이 개교회적으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갖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선교가 좀더 폭이 넓어지고 있고 신학교를 나온 전임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모델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의 방향이기도 하다.¹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한인교회가 직접 교인들에게 선교훈련을 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인교회가 단기선교사나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전문인력을 길러내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 교회가 선교훈련을 시킬 만큼 교수요원이나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로 교회가 가진 목표가 선교의 목표보다 크기 때문에 선교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한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겠으나 현실은 다른 교회에 자신의 교인을 보내어 훈련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여러 교회들이 합의하여 한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면 전문 교수요원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델이 북미주 한인선교협의회 공인을 받아서 지역별로 생길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델은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되면 가장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현지에 직업인으로 나가려는 직업인 선교사 훈련의 차원으로 국한

시키면 좋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 전문적인 교수요원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4) 북미주 한인신학교 모델과 그 활용방안

이것 역시 가능한 한가지 방법이다. 특히 한인선교부를 형성해서 한인선교의 독특한 사역을 펼쳐나가려 할 때 앞으로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1.5세 혹은 2세들이 한인문화를 거의 잊어버리고 서구화되었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는 이 후보생들의 교육배경이 점차적으로 서구적, 북미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인신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힘들게 될 것이다. 물론 북미적인 것과 한인문화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예외가 될 것이다. 반면에 한인적인 특색이 너무 강할 경우 2세들의 교육에 대해 많은 제한점을 느끼게 되리라 본다.

5) 한인선교단체 단기 프로그램 방안과 그 활용방안

이것은 선교의 오리엔테이션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실천 중심의 훈련이며, 이미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다. 이런 훈련은 주로 단기 해외 현지훈련으로 연결된다. 거기서 다루는 교과과정은 주로 일반적인 경건훈련과 문화접촉과 관계된 훈련, 그리고 천도훈련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선교사들의 필요에 따라 건축, 행정, 또는 교회개혁 등의 사역에 투입될 수 있다.

6) 현지 단기훈련 프로그램과 그 활용방안

어느 정도 선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은 국제 단기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YWAM이나 OM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6개월 내지 길면 2년까지도 현지 선교를 겸하면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한국 선교사들도 차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현지에서 단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¹⁴⁾

7) 특수선교사 훈련

비거주 선교사¹⁵⁾ (Non-residential Missionary)와 전문인 선교사 (Professional Associates 혹은 Tentmakers)의 훈련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훈련은 앞에 말한 여러 모델을 통한 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별히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선교훈련을 시킨 다음 비거주 선교사의 개념을 보충해 줌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4. 북미주 내 한인선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선교훈련안¹⁶⁾

지금까지 선교훈련의 세계적 추세와 미주 한인 선교훈련의 상황과 현존하는 모델과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인교회가 전문적인 선교훈련을 하기 위해 선교훈련기관을 만들 경우 어떤 훈련철학에 맞추어 훈련할 것인가를 검토해보자.

선교훈련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문화와 선교의 진척이 선교사 훈련방법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다. 이제 미주한인선교가 아직도 개척단계에 처해 있다는 가정 하에 훈련 목표와 방법, 커리큘럼과 과목들, 그리고 훈련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훈련목표

가. 기본목적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인선교훈련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 (1) 선교학적 학습 (지적)
- (2) 다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 (3) 공동생활과 신앙훈련을 통한 인간관계 및 인격도야

따라서 한인선교훈련은 형식을 갖춘 선교교육과 공동생활을 통하여 학문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면을 돕기 위한 커리큘럼이 강의실과 실생활환경

을 통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선교학의 일반식학의 조화와 신앙과 선교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전자는 타문화권 해석학 및 설교학, 타문화권 제자훈련학 등 강의실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시도하며 후자는 그룹성경공부와 선교를 위한 기도와 예배시간을 통해 실현되도록 한다.

나. 구체적인 목표

강의와 공동생활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a. 선교의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
- b. 전도, 제자훈련, 교회개척 및 교회성장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역, 기술의 연마
- c. 타문화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강 유지법, 경건생활, 가정생활, 자기관리 및 인격훈련
- d. 선교지의 언어습득을 위한 언어학 및 언어습득 방법론

2) 훈련방법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사 중심 교육을 해왔다. 선교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훈련을 받을 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교수방법은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선교사에게 필요한 태도변화나 실천적인 면,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훈련 모델을 채택하여 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식적(교사 중심), 비공식적(프로젝트 중심 및 세미나식 교육을 학생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및 비형식적인 교육(수시로 필요에 따라 생활 중에 하는 교육) 중에서 주로 비형식적 및 비공식적인 면을 더 사용하셨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교육방법을 선교훈련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 커리큘럼 계획

커리큘럼은 한 학생이 한 과정에 통과했을 경우 배우기 바라는 내용들이라 하겠다.¹⁸⁾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훨씬 적다. 또 커리큘럼 중에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암시적인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전자를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가. 적극적인 커리큘럼 계획안

A. 선교학적 기초

- (1) 선교일반을 통한 선교학 Survey
 - a. 선교현황
 - b. 선교의 성서적 기초
 - c. 선교의 흐름
 - d. 선교의 전략
 - e. 선교의 이슈들
 - f. 선교와 문화
- (2) 선교의 신학적 기초
 - a. 선교신학의 복음주의적 흐름
 - b. 선교신학의 변천(에큐메니칼)
- (3) 타종교 이해
- (4) 교회의 중요성
- (5) 타문화권 이해

B. 타문화권 사역

이 분야에서는 주로 선교사가 타문화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 (1) 타문화권 원리에 입각한 해석학과 설교
- (2) 타문화권 원리와 제자훈련의 조화
- (3) 타문화화 Communication 원리의 조화
- (4) 타문화와 교회개척 원리의 조화

C. 선교사의 삶

선교사로서의 삶의 철학과 실재를 가르친다.

D. 언어훈련

일반언어 습득을 위한 과목을 이수한다.

E. 선교전문분야

좀더 전문적인 분야를 선택적으로 다룸으로서 현지에서의 적응력과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과 사역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케 한다.

나. 소극적인 커리큘럼 계획한

A. 인격적/영적 분야

- (1) 예배를 통한 교훈
 - a.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 b. 참순종의 실천
 - c. 주님에 대한 의뢰
 - d. 성령의 능력 경험
- (2) 기도의 날
 - a. 개인신앙
 - b. 세계선교의식
- (3) 경건생활
 - a.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방법
 - b. 지속적인 사역의 기초를 쌓는 것

B. 지도력 향상

- (1) House Parent 제도
 - a. 그룹 지도력 증진
 - b. 협동심 증진

C. 가정생활 세미나

- (1) 부부생활
- (2) 자녀교육

이상과 같은 커리큘럼 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더 큰 목표의 지배 하에 선교지의 변화와 한인선교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9)

4) 훈련과목들

가. 인격적/영적 분야

A. 예배를 통한 성서 강해

B. 제자훈련과정

C. 그룹 성경공부

D. 개인경건시간의 내용들

나. 선교전문 분야

A. 선교학적 기초

- (1) 선교일반
- (2) 선교신학
- (3) 선교역사
- (4) 비교종교학
- (5) 문화인류학
- (6) 교회성장학

이는 기초과목들로서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 타문화권 사역

- (1) 타문화권 석의 및 설교학
- (2)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및 전도
- (3) 타문화권 교회 개척
- (4) 타문화권 제자훈련학
- (5) 선교지에서의 교육
- (6) 타문화권 사역론
- (7) 선교지역 연구

C. 선교사의 삶

- (1) 선교의 실제
- (2) 사역철학
- (3) 제자훈련
- (4) 영적전투
- (5) 기술훈련
- (6) 사례연구

D. 언어훈련

E. 선교전문 분야 (학기별 재조정)

- (1) 에큐메니칼 운동
- (2) 아시아 선교
- (3) 신학 연장 교육
- (4) 상황화 신학
- (5) 지역개발론

- (6) 해방신학
- (7) 한국학
- (8) 제3세계 신학

5) 교수/지도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훈련생을 훈련한다.

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본이 되는 생활을 한다 (벧전 5:3).

나. 자신이 위임받은 종(servant)임을 인식한다. 위임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다. 자신의 영적생활과 가정생활이 성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 전인적인 훈련을 하도록 노력한다.

바. 동기부여를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미주한인교회 선교훈련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북미주 내에 있는 많은 차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다면 큰 강점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내가 훈련시켜 내가 보내겠다는 독자성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원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한국적 내지는 한인교회적 문화들을 추가함으로써 훌륭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잘 안배해서 이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같은 곳에서 해 줌으로서 모든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마음 놓고 후보들을 보내서 훈련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 선상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훈련에 대한 제안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미주 한인교회가 선교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선교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각 선교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선교훈련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때는 미국 선교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갖춘 사람들에게 2-3개월의 선교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현지 지도자들이 나머지 언어습득 기간 중에 1-2년에 걸친 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훈련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사역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들이 무질서하게 질적으로도 구비되지 못한 선교훈련원을 우후죽순처럼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선교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은 질적인 지역별 훈련원들이 세워지기 바란다. 그곳에서 수많은 미주 한인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아 세계로 뻗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의 주역 중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End Note

1.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선교위원회 (WEF, MC)에서는 1989년 6월에 마닐라 근교에서 각종 세계 선교훈련 모델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의를 벌였다. 이때 주로 제2/3세계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훈련 모델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 결과 세계선교훈련협의회가 탄생했고 회의 내용은 증보되어 책으로 엮어졌다. 이는 세계 선교훈련의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Taylor, William David, Ed.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2. Pete Larry D. "The Changing Balance in Global Mission," I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April 1991. 이 기사에서 Pete는 2000년대에 가서는 제2/3세계 선교사가 서구 선교사보다 더 많게 된다고 주장했다.

3. Lee, David, Taiwoong. "Two-Third World Mission Movement: Its Implication for the Western Mission." In Trinity Mission Forum, Fall 1991. 이와 같은 현상은 제2/3 세계 선교훈련의 정립은 물론 기존 서구 선교훈련까지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 이제 서구 선교훈련도 변화하는 제2/3세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해야됨을 알 수 있다.

4.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 Knoll: Orbis, 1991. Pp. 81-89 Bosch는 본 저서에서 Thomas Kuhn의 The Paradigm Theory를 선교학과 접합시켰고 이로서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선교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다. 선교훈련도 The Paradigm Shift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다.

5. 선교의 정의는 Ecumenical 진영에는 인간화(Humanization), 해방화(Liberation) 등으로 변화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선교가 단순히 타문화권에서의 복음전파를 탈피하여 로잔대회(1974년) 이후에는 타문화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는 선교가 타문화에서 복음전파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의미한다는 광의적 입장과 전통적 입장이 서로 대결되고 있는 상태이다. 후자의 현상은 최근 David Hesselgrave 박사와 John Scott 박사가 한 대화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지상 대화는 Trinity World Forum, Spring 1990 ("Holes in Holistic Mission," by David Hesselgrave) 과 Spring 1991 ("An Open Letter to David Hesselgrave," by John Scott)에 실려있다. 이상의 선교학적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서로 잘 반영되어 있다. Anderson, Gerald H. ed al, Mission in the Nineteen,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1991.

6. 다음과 같은 책들이 "Adult Children"의 개념에 대해 알려준다.

Sell, Charles, Child in You, Unfinished Business: Helping Adult Children Resolve Their Past. Multnomah, 1989.

Wright, H. Norman, Making Peace with Your Past. Fleming H. Revell, 1989

미실다인, W. 휴. 몸에 밴 어린시절. 이종범 & 이석규 공역 타놀릭 교리 신학원. 1989.

7. Taylor, William David. "Introduction: Setting the Stage" in Internationalizing Mission Training, Grand Rapids: Baker, 1991. pp. 4-5 Taylor 박사는 다음과 같은 diagram을 통해 한 선교사 후보생에 단계적으로 받아야 할 훈련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전한 지역교회에서는 선교후보생이 기초적인 신앙훈련은 물론 중으로 또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섬기는 가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8. McKinney, Lois. "New Direction in Missionary Education" in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pp. 2, pp. 241-50. McKinney 박사는 선교교육의 총체성(Holistic)과 융통성(Flexibility)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9. Muholland, Kenneth B. "Missionary Training at Columbia Biblical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Mission" in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p. 147

10. Chao, Jonathan, "Education and Leadership", in the New Face of Evangelicalism: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Lausanne Covenant, ed. C. Rene Padilla,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6. pp. 199-201. Castillo, Met. "Missiologial Education: The Missing Vitamin in Mission Strategy", Asia Pulse. VII:3 (May 1976)

이상의 기사에서 보듯이 기독교 지도자이든 선교사이든 그 훈련목표가 지적인 데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있었던 마닐라 국제 선교훈련대회에서도 단순히 지적인 모델보다는 전인적인 모델이 제시되었다. Fuller 신학교의 Paul Pierson 박사도 서양신학교 모델과 같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훈련 모델에 대하여 경계하고 좀더 다양한 Level을 갖는 훈련을 추천했다. Pierson, Paul E. "A North American Missionary Trainer Responds to Two-Third World Concerns", in Internationalizing, p. 197

11. Tippet Alan R. "Report of the Curriculum Committee on the Training of Missionaries", Milligen Missiogram I (Spring 1974): 1-2

12. 이태웅. "한국 선교훈련 - 진단과 제언 (I)", 선교연구 GMTC 회보 11호, 11.30. 발행, 1989, p. 2

여기서 저자는 개척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훈련보다 지도자

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3. 1989년 마닐라에서 로잔 2차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교회가 온 세계에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The whole church,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고 강조했다.

14. YWMA, OM 등이 하고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Wycliffe 성경번역선교회 및 OMF 등이 단기선교 기회들을 제공하여 선교사역과 선교훈련을 겸하여 받게 하고 있다.

15. 이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선교학적 개념이고 훈련 프로그램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남침례회 선교부나 YWAM 등에서 비거주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Garrison, David V. *The Non-residential Missionary: A New Strategy and the People it Serves*. MARC, 1991, pp. 51-62

16. 본 훈련안은 한국 선교훈련원 발행 선교연구 11호, 1989. 11.30에 게재되었던 "한국선교훈련 - 그 진단과 제언"의 내용을 한인선교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17. 이 도표는 Ted Ward가 고안하고 William Taylor가 발전시켰다. (Trinity 신학교 논문집, 이태웅, 1983) p. 175

18. Howard P. Colson & Ramond M. Rigdon. *Understanding Your Church's Curriculum* Nashville: Broadman Press. p. 73

19. Lee, David Taiwoong. "A Missionary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n." D. Miss Major Project of TEDS. Deerfield: Trinity Seminary. p. 21, 1983

아프리카 선교에의 도전

[선교도전]

케냐 선교사 **유부웅**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소속 케냐 주재 선교사, St. Paul 연합신학대학 교수



1. 서론

유엔 개발프로그램 위원회가 1990년에 "아프리카에 집중된 빈곤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개발도상 지역들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낮은 평균수명에 가장 높은 유아사망률과 문맹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공업 선진국	다른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평균수명	74세	62세	51세
의료혜택	100%	63%	45%
식수보급률	100%	55%	37%
일일 필요영양 보급률	132%	102%	91%
절대빈곤			50% 이상

1980년대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10년간"(a lost decade)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국민 평균 소득이 20% 줄었고 교육투자비율도 심각할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매일 1만6천 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황폐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이 검은 대륙을 구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관심을 말초적인 낙관주의와 비현실적인 타계주의에 돌리게 함으로서 아프리카의 황폐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아프리카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기독교 신앙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는가? (The end is near)

세대주의는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성서를 유추해서 만든 이론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퍼져있는 Bible College에서는 이 이론을 널리 가르치고 있다. 이들 학교 출신들은 성서를 올바르게 읽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독교 이해가 아프리카에 전파될 때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1) 소극적인 수용자세
- 2) 반사회주의 운동
- 3) 기독교 시온주의

3. 부의 복음 (The Gospel of Prosperity)

[선교도전]

가나 선교사 **박은생**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소속 케냐 주재 선교사, St. Paul 연합신학대학 교수



소말리아 선교와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

[선교도전]

소말리아 선교사 **조성덕**

Hisan-WEPA 소속 소말리아 주재 선교사, 난민, 지역개발, 여성기술훈련원 등의 사역



"소말리아"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빨"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사슴 빨처럼 솟아난 홍해와 인도양 연변의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으나 전도는 허락이 안되며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으며 기독교로 전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요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밀접하여 가족들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믿음을 선포하는 데는 많은 용기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모슬렘신앙은 하루 5번씩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기 전 반드시 손과 발, 귀를 씻어서 깨끗이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이들의 문자적인 믿음의 진지함이 오히려 도전이 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단일민족이요 단일어족이요 단일종교인 이 나라가 장기집권했던 대통령을 축출함과 동시에 갑자기 부상한 정권다툼이 부족싸움으로 전개되고 소말리아인들 전체를 혼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곧 끝나겠지 하던 전쟁이 벌써 1년 반이 되어갑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난민이 늘어나고 도둑떼와 강도들이 집집마다, 가게마다 털고 강간하고 차를 뺏는 바람에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보라마(Borama)"는 북서쪽에 위치하며 전쟁의 화가 적은 곳입니다. 이곳은 모슬렘 국가이며 국기조차도 모슬렘 구호를 써넣고 국법은 회교법을 적용하는 독립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으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때야 말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필요한 때요 우리의 헌신을 통한 사랑이 전해질 때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점심에 초대된 "씨"의 말에 우리 도전되고 격려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당신들은 밥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어 기도합니다"라는 대답에 이어 또 언제 기도합니다"라는 대답에 이어 또 언제 기도하느냐, 금식하는 때는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늘어놓았던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밥을 놓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던데 어머니는 한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저희들이 별종(?)의 기독교인이라고 명명하고 일단락 지으려는 어머니의 말에 각종 나라 사람들(영국, 한국, 필리핀 - 며칠 방문차 왔었음)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하고 다닌답니다.

이제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의 행동 속에서 감탄되어 말씀하는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시작하셨으니 중동에서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강하다 생각되던 공산주의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빈자리에 회교권이 자리잡으려 무척 노력합니다.

모슬렘은 점점 강대해지고 번성해가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반면 기독교는 점점 문닫아가고 숨고 있습니다. 오직 10만명에 1명 꼴인 선교사의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를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소말리아이기에 주님께서 이들을 홀으셨고 근처 나라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넓히셨습니다. 케냐에서 지브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넓히셨는데 사역자가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컸전을 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AIM : On Mites and Might and Missions

[선교도전]

AIM International 사무총장 **프레드 빔**



As General Secretary of Africa Inland Mission International, Fred Beam act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I.M. in representing A.I.M. on an international basis. Receiving his Master's as well as Ph.D. at Rutgers in Economics & Economic Zoology, Dr. Beam has made use of his studies to better the mission field in Africa. He has also contributed to a National Television series of 21 programs entitled, The Small Gene of Africa, which deals with science and the Bible.

On Mites and Might and Missions

1. The Goal of AIM for the year 2000 /2. Training in Ministry Outreach (T.I.M.O)
3. Africa's Great Cities. /4. AIDS Victims-'Endangered Specials'
5. Cooperation- An 'Operation' of Love / 6. Where Have All the Teachers Gone?

SIM : Shouldering Responsibilities

[선교도전]

SIM International 총괄 디렉터 **안 헤이**

Ian Hay is General Director of SIM International, an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more than 8,000 indigenous churches in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fielding the more than 1,700 missionaries. A graduate of Bryan College, Rev. Hay went on and earned his M.A. degree in Biblical Education at Columbia Graduate School of Bible and Missions. His first missions experience was serving as a missionary in Kuta, Nigeria. Some books that he is the author of include: Now Why Did I Do That? The Biblical Basis of Motivation, Unity and Purity: Keeping the Balance and Foundations: Scriptural Principles Undergirding SIM.

1. Introduction
2. The Purpose of SIM is to Glorify God
 - A. The First Task Is Evangelism
 - B. Temerity, Creativity, and Flexibility - The Hallmark of Missions These Days
 - C. There Must Be a Commitment to Evangelism
 - D. Good Works
3. Church Planting
 - A. Establishing the Church by Any Means
 - B. Establishing Responsible Churches that Are Out-Going in Their Witness
4. Conclusion

우간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우간다 선교사 **김정운**

World Concern 소속 우간다 주재 선교사, 간호학교설립, 평신도지도자 및 간호사 양성 수원



MADI WEST NILE DIOCESE 내에 현재 임옥순, 박숙경, 배상호 목사님 가정, 김정운 등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이 지역 선교사역을 월드컨선 선교기관에서 국제 AIM선교기관과 연결 ARUA DISRICT KULUVA 병원에서 의료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WEST NILE 지역민은 백만이 넘고 주로 ALUR KAKWA 그리고 LUGBARA 부족으로 거의가 농업과 가축에 종사하고 나일강 지역민은 수산업, 적은 수가 상업에 종사하며 의식주 상태는 85년도 전쟁시에 비해 많이 호전되었으나 계속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의 사역이 부족한 병원 의료인들이었기에 주로 병원 내에서 머물렀으나 89년에 월드 컨선을 통해 전해온 자동차로 전도사역이 가능케 되어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2년 현재에는 전도팀이 학생과 헌신된 직원들,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이 모여 전도훈련을 받고 사역합니다.

1. 교도소 전도상황
2. ARUA TOWN 노방전도
3. 군인 병영 진도
4. 보초소 방문
5. 병원 전도는 수시로 모두가 참여합니다.

주말에 가지는 천도사역이 시간적으로 쫓기고 지치기도 합니다. 선교병원 내에 아직도 의료의 손이 부족하여 신실한 의료 선교사를 구합니다. 필요한 병원일과 학교일에 충실하며 전도사역이 우선이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ARUA-WFST NILE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기 기도합니다. 수단 등에서 피난민이 몰려와 이슬람 교도가 급증되는데 전도에 능력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교회지도자들과 홍역에 어려움이 있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간다

복음화 사역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몰려와 사역하기를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략

- 1) 병원 내 복음화
- 2) ARUA 지역 복음화
 - 지도자 양성 (목회자, 평신도)
 - 노방전도 강화
 - 기관 방문 천도
- 3) WEST NILE 복음화
 - 지도자 양성 (제자훈련)
 - 졸업생 전도사역의 참여 권장
 - 교회 지도자와의 연결 동역
 - 교회 지도자 교육 (한국, 미국, 영국 등)
- 4) UGANDA 복음화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현황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스와질랜드 선교사 **김종양**

African Continent 선교회 소속 스와질랜드 주재 선교사, 전도, 교회개척 및 제자훈련 등의 사역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프리카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날씨가 뜨겁고 가난하며 야생동물이 많고 전염병과 풍토병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힘든 지역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아프리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만한 단 한가지 조건이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어서 어느날 독일의 공과대학에 유학 온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온 크리스천인 존 파울 형제와 가나에서 온 그의 부인 애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영국으로 가 영어를 배우고 신학을 하던 중 중앙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던 80세된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 말라위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독의 병원선교회에서 매월 500불의 선교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해오던 두 곳의 영국 선교 단체에 선교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영국 선교단체에서는 영어와 선교비 지원의 부족을 이유로 선교사 선발을 기피했습니다. 몇 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중앙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잠베시 선교회를 통하여 드디어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 도착한 후 3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 1) 비자문제
- 2) 선교사간의 갈등 문제
- 3) 선교비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의 선교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스와질랜드 사역은 Zionist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악지역에 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60여명의 어린이들과 성인 20여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역은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의 거둬난 크리스천 학생 6명을 스와질랜드로 초청하여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4년제 신학교에서 신학과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6년동안 원주민 선교사로 용사하면서 경험한 것은 원주민 선교보다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선교사가 되는 자격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큰 교단이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나 돈 많은 사업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원주민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Africa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ECWA 회장 **판야 바바**



Panya Baba served as a missionary, pastor and church leader for more than twenty years before assuming the leadership as President of the Evangelical Churches of West Africa in Nigeria (ECWA). For eighteen years he directed the work of this mission and saw it expand from 194 missionaries to 725. His missions training includes studies at the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and Fuller School of World Missions.

1. Concept of Foreign Mission and National Church,
 - 1) Description,
2. Historical Background
 - 1) Colonial Era, 2) Independent Era, 3) The three self-principles of the national church,
3. Types of Relationships
 - 1) General relationship 2) The relationship depends on the factors,
4. Missions and the National Churches Need Each Other
5. Pattern of Relationship
 - 1) Denominational mission and the national church, 2) Non-denominational mission and the national church,
6. Pattern of Relationships
 - 1) Fusion type in Zaire, 2) Community type in Paris Mission,
 - 3) Partnership in Obedience in Brazil, 4) Mutuality and equality,

저녁선교대회 설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대회장 **차현희**





새바탕기도회

선교도전/ Victor Kim
설교/ 이병희 목사 라성세계복음교회

성경강해

강사/ 아지스 페르난도 YFC 스리랑카 디렉터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정진경 목사 신촌성결교회
주제강연 II 강사/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선교도전 I 강사/ 황윤일 선교사 페루
선교도전 II 강사/ 강두호 선교사 파라과이
선교도전 III 강사/ 김봉래 선교사 볼리비아
선교도전 IV 강사/ 데이빗 커밍스 WBT
선교도전 V 강사/ 래리 키이스 OC

제척선교대회

선교보고/ 강성일 선교사 브라질
선교보고/ 김영화 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보고/ 김경하 선교사 콜롬비아
선교도전/ Luis Bush Partners International
설교/ 한진관 목사 뉴욕퀸즈한인교회

들어야 할 세 가지 음성

[새벽기도회 설교]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 **이병희**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마가복음 1:38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최대관심사는 바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선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리에까지 가면서라도 영혼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8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도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Hudson Taylor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한 후 선교사 지망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가며 나왔다. 그들을 향해 Taylor 목사님은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그 때 Taylor 목사님은 "다 좋은 대답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고 말한 후 선교사가 되어 여러가지 역경과 어려움, 고달픔과 외로움, 그리고 각종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음성을 잘 분별해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가라"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보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희 교회 선교주일에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실 때 저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다. 브라질 사람들은 특히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축구 시합을 구경가서 "누가 공을 차서 골인 시키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누가 공을 잘 패스해 주어서 골인시키도록 했느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선교에 있어서도 보통 성도들은 "누가 선교지역에 가서 영혼구원을 위해 일하느냐"를 보지만 선교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누가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를 잘 도와서 그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영혼구원을 위해 뿔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선교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화로운 단어만은 아니다. 정말로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지에 나가 각종 위협과 어려움, 굶주림과 외로움, 고달픔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풍부한 선교비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 "오라", "보내라"는 음성을 잘 들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귀히 들어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차세대 **빅터 김**



에베소서

[성경강해]

Youth For Christ 스리랑카 디렉터 **아지스 페르난도**

Ajith Fernando is the national director of Youth For Christ in Sri Lanka. He has numerous published works, including 「The Christian's Attitude Toward World Religions」. Dr. Fernando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conferences.



1. The Nature of Lostness (4.17,18)

- 1) The Futility (Frustration) of Christians Came About When We Rejected God
- 2) Many Non-Christians Try to Gain Salvation Through Their Own Efforts
- 3) People Who Are Lost, Are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 4) Alienation from the Life of God Is Because of the Ignorance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s
- 5) The Only Hope Is to Have the Grace of God

2. Sensuality as an Expression of Lostness (4.19)

- 1) The First Greek Noun that Expresses Sinfulness Is "Aseigeia" or Sensuality
- 2) The Second Greek Noun Is "Akatharsia" or Impurity
- 3) The Third Greek Noun Is "Pleonexia" or Lost

3. Staying Clear of Sin (5.3-4)

- 1) There Must Not Be Any Immorality in a Christian Because We Are God's Holy People
- 2) Plan an Alternative Activity to Get Our Mind Off of Sin or Temptation
- 3) Sinful Pleasures Leave Us Unfulfilled
- 4) Christians Are Different From Non-Christians Because They Are Holy

4. The Consequence of Immorality (5.5-6)

5. Putting Off and Putting On (4.20-24)

- 1) We Must Lay Aside Our Old Lifestyle of the Word and Put on the Right Life
- 2) God Gives Us the Strength by Renewing Our Spirits

6. Truthfulness as a Key to Godliness and Fellowship (4.25)

- 1) Falsehood Is a Serious Sin
- 2) We Must Deal with Lying as Soon as We Get Tempted to
- 3) There Is a Connection Lying and Our Christian Fellowship

7. Anger that Is Not Sinful (4.26,31)

- 1) We Must Settle Our Problems that Can Be Settled Immediately
- 2) There Are Two Truths to Help Us Overcome Bitterness
- 3) There Are Consequences if You Do Not Resolve Your Problem of Anger

8. A Radically Different Lifestyle (4.27-29)

- 1) No Part of Human Nature Has Escaped Sin, but We Have the Capacity to Perceive Good

세계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협력

[주제강연]

신촌성결교회 원로 정진경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다. 현재 34,000여개의 교회와 12,000,000명에 육박하는 신도수를 보유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를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한 7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교단이나 선교기관 등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선교사들이 세계 각처로 파송되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선교보고지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는 것은 심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지난 2-3년간은 소련, 동구권의 공산체계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선교가 어려웠던 공산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긴박성의 고초와 함께 각 선교기관과 개교회에서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몽고 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재정지원도 급히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특유의 집회열과 기도운동, 전도의 열정 등이 해외선교에도 현신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선교를 수 백년 앞서 실시해 온 서구교회나 미주교회에 비하면 경험적인 면에서 뒤지고 그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되풀이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세계 한국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선교전문가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4년 전에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었고, 이제 금년에 제2차 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여 다시 한번 한인 크리스천들이 지상명령 수행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모였다는 것은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선교는 대상, 방법, 전략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팀웍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팀웍의 훈련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달도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분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여진 에딘버러 대회 이후의 발견되어 온 산물이고 보면 연합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생경이 가르쳐주는 연합의 의미와 한국인, 한국교회라는 동질성 속에서 세계 교라는 대명제 아래 연합을 도모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도 있으리라고 믿는다.

1. 선교를 위한 연합에 관한 성서적 선교신학의 정립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동기유발에 있어서 아무런 강조점이 없는 것이다.

선교를 위한 연합을 추구한다면 먼저 선교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활동의 강조점이 "인간화(Humanization)나 복음화(Evangelization)나?" 하는 데는 오늘 우리의 선교목적에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회협의회가 강조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타종교, 환경 등의 세상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비인간화된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대하여 복음주의 측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우선권을 교회협의회가 받아들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한국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서로 상반된 선교신학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은 조직체의 연합만으로도 안되며 프로그램만의 연합, 신학적인 연합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연합은 성서가 말하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 14:20, 고전 12:13) 하나님의 은

총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일치됨을 경험하는 기초 위에서 연합이 출발해야 한다. 이런 연합운동은 본래의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잔언약의 제7문단에서도 교회의 일치성은 신성의 일치성이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하여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엡 4:3-6, 13) 신학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불일치된 교회의 증거는 화해의 복음을 무너뜨리지만 일치된 교회의 증거는 능력에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요 13:35, 17:21)

현재 심히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도 교회협의회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한다면 복음주의와의 일치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활동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활동이며 성령의 의로 인간을 성화시키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도 앞장서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고 재해석한다면 복음주의가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셈이다. 1952년 월링겐대회에 이르기까지 교회협의회 주도적 사상은 복음주의도 연합할 수 있는 복음적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복음주의는 교회협의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겸허히 반성하며 또한 협의회가 복음에서 이탈한 것을 깨우쳐 줌으로서 진정한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죄의 개인적인 측면을 복음주의가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죄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을 교회협의회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서구교회의 주도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팽배해 가고 제도적 교회의 지나친 교권주의와 개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운동,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봉사해야 할 과제는 교회협의회와 더불어 복음주의 교회들의 공동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복음주의 교회는 1966년 휘튼(Wheaton) 선언, 1974년 로잔언약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교회연합을 위한 복음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서적 선교신학을 정립하도록 하는 오늘의 과제는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기초를 갖도록 조언해야 하며 둘째로는 복음선교사역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협의회와 비판과 피선교지의 의식적인 전환으로 서구중심적이고 교파중심적인 기존의 복음전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겸손한 자기반성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의 분열된 선교정책과 교파의 분열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가 교파분열로 인하여 경쟁적인 전도와 교회설립의 역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협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모두가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 선교협력의 실제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회협의회 복음주의 진영과의 신학적 양극화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양상의 불일치와 비협조적인 요소가 있어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기체적인 단체는 자라나야만 한다. 선교학자들은 일정한 지역이나 종족 중에서 신자의 수가 20% 미만인 지역을 복음화의 취약지로 간주한다. 그만큼 숫자로는 자력으로 자기 종족이나 부족을 복음화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통계상으로 25%의 기독교 인구는 그 수가 응집력을 가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동란으로 인하여 시대가 불안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을 때 기독교 신앙은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러나 교회 내적인 협력사업에는 미숙하고 미약한 면을 노출시켜왔다. 이는 교회 내적인 훈련에 의해 제자도를 따르는 신자를 산출해 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외적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미약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통종교의 배경에서 성장한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자를 의지하는 신앙패턴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급격한 산업발전에서 생겨난 자본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동화되어 현재적이고 물량적인 성취, 성공심리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가 지극히 사적인 한계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심한 기복신앙까지 작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고나 교회의 사회적, 세계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겸비한 자세는 뒤로 하고 현세적 부의 성취나 과시적인 교회행사를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교회는 내향적 교회중심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 목표로 착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이며 교회는 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기구이며 선교과정에서 형성되는 제2차적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다분히 교회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호켄다이크의 주장대로 교회중심적인 생각은 위법적인 축(Illegitimate Center)을 잡고 회전하는 것처럼 항상 정도(正道)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교회성장에 대한 열망과 지나친 관심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중심주의 내지는 개교회 중심주의에 빠지게 하는 폐단을 나타낸다.

각 교단마다 교세확장계획을 세우고 그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특히 교세가 적은 교단에서의 상호협력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교회 밖의 기독교운동들(Para-Church Movements)이나 대학생을 겨냥한 학원선교단체들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 무수히 생겨나는 각종 선교단체들도 역시 성장, 자립, 자리굳히기 등으로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고대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와 흡사한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한다"고 당시의 경쟁적인 전도형태를 언급했으며 18절에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그리스도로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며 실제화하기 위해서 1988년 1월 18일에 한국교회의 6개 교단 선교지도자들과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 동반자적인 선교협력을 모색한 후 한국 동반자 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개인주의적인 사역에 치중해 오던 것을 팀워크에 의한 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시도였다. 1988년에 개최된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북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의 세계선교를 의지를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내에서는 학생선교운동을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선교한국"이라는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적 "어바나"대회를 방불케 하였다. 특히 1991년 11월에 서울에서 열

린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복음화대회"에서는 다시 한 번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선교기관, 선교기관과 선교기관들 간의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재촉하였다.

1988년에 구성된 한국 동반자 선교협의회는 1990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각 교단과 각 선교단체가 팀워크를 이루어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분열을 계속해 옴으로써 국가나 사회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목소리를 합하여 낼 수 없었다. 이에 국가와 사회, 남북통일 문제, 이단에 대처하는 문제를 위한 한국기독교의 목소리를 하나로 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29일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되었는데 여기엔 각 교단을 총망라하고 각종 기독교단체를 가입회원으로 하여 명실공히 개신교의 총연합을 피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여기서 하나로 연합된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선교의 과업도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구를 마련할 것이다. 조직적이며 제도적인 기구는 형성되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각 교단이나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선교협력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전통에 선 교단과 교단의 관계, 한국교회와 서구 여러 선교단체들과의 관계, 한국교회와 피선교지교회와의 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복음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며 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타적이거나 경계의 장벽을 둘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는 선교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발전시켜가도록 협력하여 전문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는대로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엔 모종의 갈등이 상존해 왔었다. 그 하나는 주도권의 문제이다. 어떤 특수한 종류의 사역에 대하여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때 선교단체에서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주도권을 잡고 교회의 성경공부를 이끌어 왔으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성교회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었으므로 선교에서도 주도권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는 지도력의 문제이다. 기성교회의 분열과 파벌 현상은 지도력의 분산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한국교회를 대표한 지도자의 빈곤까지 느끼게 하였으나 국내외의 역사적 근거를 가진 선교회들은 일사분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었다. 세번째 문제는 사역

의 특성이 서로 달라 우선적 사역의 강조점에서 갈등이 있었다. 교회가 감정적 부흥회를 통한 숫자의 증가를 피하면서 무속적 요소, 신비적 오류, 주관적 체험 중심으로 흘러 신앙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른 사이비, 이단 종교도 파생되어 나올 정도로 부정적 요소를 보이고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는 제자훈련, 선교 등의 과제에 집중적 노력을 하였으므로 기성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자세도 보이고 있었다. 네번째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다. 교회는 소속교단과 교파의 특정한 신학노선을 따르며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위치가 상당히 높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개의 선교단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평신도가 쉽게 따를 수 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는 선교회에 교인을 잃지 않으려 하고 한편 선교회는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불신임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교회와 선교기관은 세계선교라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과업을 놓고 협력사업을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갈등 속에서 우리의 귀한 인력과 재력 그리고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다. 21세기라는 시대적 변화와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때에 교회와 선교단체는 이른바 동반자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두 구조는 상호협조적이며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두 구조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두 구조는 상존하는 긴장 때문에 서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선교협력이 가능한 분야들

해외선교를 우리에게 앞서 실시해 온 서구의 교회나 선교기관들은 이 협력사역에 있어서 많이 성숙해 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선교현지에서나 본국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월드컵선교회가 우간다에 파송한 김정윤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클루바병원에서도 AIM 선교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으며 MAF(Missionary Aviation Fellowship, 항공선교회)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나 물자들을 수송하는 사역을 협력하고 있다. WBC(Worldwide Evangelism for Christ) 선교회 국제총무인 Dietrich Kuhl 박사도 WEC 선교회의 선교현지에서 사역하는 고신, 개혁,

통합, 합동, 성결, 침례교 선교사들은 WEC의 가족이지만 그 기관과 더불어 일하는 선교사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체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개교회가 다른 선교기관이나 교단의 선교부와는 동떨어져 부실한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전략도 없이 선교사를 여기저기 파송하여 여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공명심과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독단적인 선교도 있을 것이다. 여기엔 부작용이 많고 지속성이 약하다. 협력을 하면 힘이 덜 들 뿐 아니라 풍부한 사역을 가능케 하지만 단독적인 선교를 하게 되면 부담도 크고 한정된 경험을 되풀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가?

1) 정보의 교환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정확한 정보가 나뉘어져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상황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필요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 이 정보는 풍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교류에 교단 간에 선교단체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2) 선교사 후보자의 선정

현대의 선교는 폭넓게 기능화되어 있다. 옛날처럼 한 선교사의 가족이 어느 오지 밀림에서 평생을 보내는 형태의 사역은 거의 드물게 되었다. 선교지를 보는 관점도 지역적인 대상에서 특정적인 대상으로 바뀌었다. 과거엔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선교사를 보내었으나 지금은 모슬렘 지역, 힌두지역, 불교지역 등의 특정한 타종교의 지역이라든지 어린이 선교지, 청소년선교 등의 연령적인 구분 하에 선교대상지를 정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피난민 지역, 고아사역 지역인가, 또는 도시지역인가, 농촌지역인가를 고려하여 파송한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인적자원이 있으며 어느 단체에 이에 합당한 선교사 후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호협력이 없이는 책임자의 발굴이 힘든 것이다.

3) 선교사의 훈련

최근 각교단에서 선교훈련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히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합

동측 총회본부에서 '선교훈련원(M.T.I.)'이 운영되고 있고 장신대 안에 통합측의 '세계선교훈련원'이 있으며 기성측에도 '선교의 집'이 훈련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고신측엔 KMIT가 있다. KOMF와 협력사역하는 GMTC와 외향선교회의 CCMTI, KIM의 선교훈련 프로그램 같은 각 선교단체의 훈련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직까지 긴밀한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과 재정면에서도 기대 이하로 열악한 상태이다.

선교사 훈련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많은 부분이 실제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하는데 선교사로서 사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훈련은 그 자체가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간증이나 사역현장경험을 듣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각기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이러한 선교훈련프로그램에 상호교류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자료를 나눈다면 각 훈련원이 공히 풍성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나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 그리고 여러가지 업무로 인해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교파나 선교기관을 막론하고 상호교류를 해야만 할 것이다.

4) 선교사 파송과 지원 및 관리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교회가 단독지원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가 많다. 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지만 여기엔 문제도 없지 않다. 교회 내에 갑작스런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교역자의 이동, 교회정책의 변화, 예기치 않은 일 등) 그런 일로부터 신속한 다른 대처를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큰 프로젝트가 생길 때 한 교회가 부담하기엔 무거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 교회가 지원을 분담하여 여러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면 선교사의 지원도 안정되고 선교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에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파송선교사가 어느 특정한 사역을 위해 파송된다면 (예를 들어 의료선교, 문서선교, 방송선교, 선원선교 등) 그러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파송하게 되면 그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교사의 관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의 영적관리, 행정적 관리, 생활과 사역관리 등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심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선교정책과 선교사관리를 하고 있는 선교기관이라면 그 재료와 원리를 교회와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선교사가 함께 협력하는 피선교지교회나 교단이라든지 외국선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선교사 관리란 선교사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함으로써 선교사역에 발전이 있도록 협력하는 면에서의 관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발전하면 각 선교지에 지역구를 설정하여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서부아프리카 등) 지역 조정관(Area Coordinators)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의 상호협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선교사들의 일반적인 관리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본국의 교단 간, 선교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한 가운데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5) 해외선교기관과의 협력

지난 70년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서양선교단체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거나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한국교회가 제주도나 중국 산둥성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 총회가 가결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엔 교단이 갈라지고 교권이 난무하고 교회비리가 많이 나타날 때 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니가 교회가 해야 할 선교를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단체들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서양중심선교가 아닌 각 나라 각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한국 뿐이 아닌 아시아 여러나라 안에서 일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제 한국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선교기관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한국교회 단독으로 선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주적이며 선교를 주도하고 책임을 지면서 서양선교단체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을 협력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들에게 기여하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는 장기 정책수립에 따라 하는 합리적인 선교라기 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위주의 선교를 해왔

으며 한국선교사의 대부분이 교회가 존재해 있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는 모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선교적 상황이 많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부득불 선교지의 교회와 협력할 수 밖에 없고 경험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서양선교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자신을 갖고 서양선교단체에 예속됨이 없이 자주적인 선교사역을 해야하는가 하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 저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자체라는 집단적 개념,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주의적 개념을 넘어서서 세계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해외선교기관과의 바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

세계선교의 시간은 제한적이며 이제는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지금은 교단의 교리나 형식 때문에 다두고 갈등할 시기가 아니며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속히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교회는 자기성장 추구의 단계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세계 도처에서 부르며 손짓하는 오늘날의 마케도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선교단체는 자기 기구의 독점적인 발전만 도모하지 말고 이 선교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훈련기술 및 전략을 지역교회와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교단체도 선교과업 수행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 교회가 선교의 주도력을 잡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금세기에 우리 한국민은 세계 각처로 이민하여 한국인의 끈기와 저력을 보이며 이국 땅에서 잘 정착해 왔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거의 예외 없이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교민들의 교회는 본국 내의 교회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문화적 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장점과 상당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북미, 남미, 호주, 유럽, 아시아 등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 간다면 2천년대는 명실공히 한인세계선교의 세기가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전달해주신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쥐고 호흡을 맞추어 힘있게 달리는 선교의 역군들이 되어야겠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 1:27-28)

2천년대를 향한 한국 이민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선교협력 방안

[주제강연]

퀸즈장로교회 담임 **장영춘**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미주기독교복방선교회 이사장



오늘 남북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보았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울부짖는 환상을 또 다시 보고 듣는 엄숙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 16:9)
"Come and Help Us"

1.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사도행전 16장 6-10절을 보면 기독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 장이 열리는 장엄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테가 한팀이 되어 아시아에서 선교를 전개하고 있을 때 돌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절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결심하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 선교사역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능력으로 기름부으시고 사용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 1:8)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시몬이라는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배신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한 자였습니다. 그는 또 비겁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의 체험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성령께서 친히 택하여 따로 세웁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불렀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 13:2-4)

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듯 성령은 복음 증거자를 세우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선교전선에 투신할 일군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며 또한 세우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다고 또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택하여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흥회나 전도대회 그리고 선교대회 등에서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50명이라면 그 중에 단 한 명이 선교전선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50대 1의 비율인 것입니다.

2) 선교지 설정도 즉, 선교 대상국과 민족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죄우됩니다.

처음에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여행지를 차례로 순방하여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이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나 오늘이나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서대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즉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하여 그릇된 길을 막으셨으며, 불순종하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토해내게 하시어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아시아의 복음 전도의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의 "우리를 도우라"는 호소는 영혼이 구원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 이외엔 도움을 받을 아무런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2. 우리 한민족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1) 한국교회의 사명

100여년 전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 온 이래 일제하의 36년과 공산주의에 의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인한 교회의 수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 이제는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이 숫자는 남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성장률은 인구 성장률을 600%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선교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선교할 인재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신학교육만 보아도 170여개 신학교에서 매해 1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느 나라든지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세계는 도처에서 한민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

우리 미주 한인교회는 정치, 외교, 문화, 교통 면에서 세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미국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이므로 선교사는 반드시 영어를 자유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는 세계에서 공용되는 화폐이며 모든 나라의 화폐보다 가치가 있고 강세입니다. 또한 88올림픽 이후 세계는 한민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도 영어 문화권을 가진 한인들은 어디에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나 "한국인은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를 부르는 나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구라파는 밤9시, 미국은 오후 2시, 한국은 아침 7시 곧 영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한국 교회는 선교 국가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3. 한국 이민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과제

1)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상 정립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로운 교회상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샘에 물이 가득차야 흘러 넘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제아무리 전도폭발을 하고 선교 사명에 대하여 가르치고 강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이 선교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교인,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간구해야겠습니다.

2)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상 정립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모이는 교회로서 이상적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천명, 5천명 그리고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 갔으나 주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사울을 중심으로 무서운 핍박을 일으켜 안일하게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흠어셨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진 것입니다. 핍박을 인하여 흠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행 8:1-4)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세계선교의 씨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선교의 씨알로 사용하시려고 북쪽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를 들여보내어서 가장 악독하게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속속들이 남하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년대부터 한국민이 북미와 캐나다, 남미로 흠어지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다수였습니다. 그러하여 한국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북미에 있는 원주민 교회는 감소하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지만 한인 교회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기말에 한민족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하여 세계도처에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우기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내에 한인교회가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2000교회에 평균 요인이 100명이면 20만교인이 됩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 저마다 선교의 지상 명령에 부응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흠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 한국 이민교회의 선교협력 방안

우리 한국교회는 70년 후반부터 선교열이 일기 시작하여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각 교단이나 선교기관들을 통하여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도처에서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서구교회에 비하면 경험적인 면에서나 협력적인 면에서 뒤지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와 한국 이민교회가 협력 선교를 추구하기 보다는 개교회 차원의 선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경쟁적으로 선교하므로 선교사의 선발이나 훈련 및 파송,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다른 선교기관이나 교단의 선교부와 동떨어져 부실한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전략도 없이 선교사를 여기저기 파송하여 여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공명심과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협력선교를 했더라면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터인데 경쟁적으로 개별 선교를 하므로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들끼리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협력선교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선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구교회의 선교부와 함께 협력하여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선교협력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기 위하여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같은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한인세계선교협의회가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에 흩어져 일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단체 및 교단 선교책임자들과 북미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동반자적 선교협력방안과 선교정책을 모색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이민교회가 어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교정보의 교환과 선교전략의 수립

어느 선교학자는 "선교는 정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세상과 불신, 미신과 우상과 사탄과 싸우는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사탄의 영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에 대한 바른 정보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선교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정보나 전략이 없

이 열정만 가지고 선교지에 나서므로 많은 정력과 시간, 물질을 허비하게 됩니다. 선교정보의 교환과 선교전략 수립을 위하여 교단 간에 그리고 선교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 선교사 후보생 선정과 훈련

이민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한인교회가 부흥되고 그 후속조치로 2세 지도자 발굴과 지도육성은 매우 중요한 이민교회의 과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인구는 0.2%에 불과하나 신학생의 비율은 5-25%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보수주의 신학교일수록 한인학생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5세와 2세대 중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개교회별로 선교사훈련원들이 생기고 있으나 자질 있는 선교사 후보생의 선정과 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민교회는 선교사들의 수를 앞세우기보다는 자격있는 선교사를 엄선하여 훈련하고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협력을 통하여 어느 교회에 어느 단체에 합당한 선교사 후보가 있는지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선교지에서의 팀웍(Team Work) 형성

한인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개교파주의, 개교회주의의 편협한 선교경쟁 때문에 어느 지역에든지 한국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교파주의와 교단주의, 지방주의 등의 부작용이 있어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런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선교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교회나 어느 교단의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인세계선교협의회와 같은 초교파적인 협의회가 선교협의를 통하여 협력선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각자의 은사를 살려 선교사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는 팀사역을 해야 보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이 수행될 것입니다.

4) 전교인 선교요원화운동 전개

군인으로 비유한다면 3가지 유형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 후방에서 작전을 세우는 자
 나. 모금을 맡아 전달하는 자
 다. 일선에 나아가 총을 들고 직접 뛰며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첫째, 무릎선교사가 있는데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둘째, 손선교사로서 물질로 선교자금을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셋째, 발과 입선교사로 선교일선에 나아가 직접 뛰며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이민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선교요원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중생한 모든 교인들이 위의 세 부류의 선교사 중 하나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선교후원을 위해서 북미주 전체 기독교인 20만명이 1주일에 1불씩만 선교헌금을 낸다면 한 주에 20만불의 선교헌금이 적립됩니다. 1년이면 1,000만불의 선교헌금이 될 것입니다.

페루 선교

[선교도전]

페루 선교사 **황윤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파송 페루 주재 선교사, 교회개척, 목회후보생 훈련 등의 사역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롬 10:13-18, 고후 6:2)

[선교도전]

파라과이 선교사 **강두호**

예장합동 파송 파라과이 주재 선교사, 교회개척, 신학교, 중고등학교, 병원 등의 사역



지금은 성경적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마 24)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명하신 뜻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복음의 절대성 (고전 1:18-23) - 성경 66권은 일점 일획도 가감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복음만이 구원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성경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 (마 24:14)

2. 복음전도의 긴급성 (전 3:1-8, 고후 6:2) - 전도할 문이 열려져 있는 때이다. 기회를 놓치면 불행은 온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다. 선교의 절대적 의무감으로 살아야 할 때이다.

3. 복음전도의 소명감 (고전 9:16-18, 롬 14:7-8) -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가지라. 소명감에 불타는 열심을 가지라. 말보다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자.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책임감당)

4. 복음적 성령을 받으라 (행 16:6-10, 고전 2:13)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 전도자의 바른 자세요,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전도의 능력을 얻는 길이다. 선교는 성령지시대로 따를 때 승리한다.

5. 선교지 확장 (마 28:19-20, 행 1:8) - 네 장막터를 넓히는 선교전략 (유기적 관계). 민족 복음에서 세계 복음으로 향상시키자.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다. 찾아가는 전도의 때가 임박함. 교회의 사명 : 교육 (교육기관 설립, 인재양성), 선교 (미개척지 발굴과 교회설립), 봉사 (의료, 구제, 생활개선지도)

결론 - 오순절 다락방의 뜨거운 선교의 영은 우리들을 통해 다시 폭발하고 있다. 사랑의 눈을 열어 탄식하는 영혼들을 바로 보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남미선교의 긴급성

[선교도전]

볼리비아 선교사 **김봉래**

기독교성결교총회 파송 볼리비아 주재 선교사, 교회개혁, 지도자양성 및 지역개발 등의 사역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

늘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선교현장에서 눈물과 땀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반갑게 만나게 된 선교사 전우들께 주님의 위로와 면려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주최측과 여러 후원교회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주안에서 여러분들 뵙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미 볼리비아에서 10년째 선교하고 있는 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중심 내륙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약 10배의 국토에 인구는 700만이고 인구밀도는 KM당 6명이고 국민소득은 연평균 \$510입니다. 종교는 카톨릭이 83%이고 개신교가 7.6%, 나머지가 토속종교 내지는 무종교입니다. 언어는 46개 언어 중 서바나어가 대표적이고 케추아어, 아이미라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관이 있으며 교포수는 약 200세대이고 대개가 의류상, 전자제품상과 약간의 생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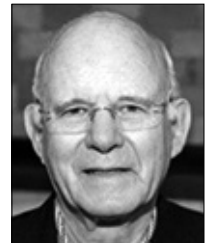
저는 1981년 9월 4일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스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라파스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산타크루즈의 한인교회에서 수년간 시무하면서 원주민선교를 하다가 198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주민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지의 일반적 상황과 사역활동 그리고 사역 중에 겪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저 자신에게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동역자 여러분에게는 남미선교에 적극 동참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Wycliffe

[선교도전]

호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회장 **데이빗 커밍스**

David, Cummings is currently seeing as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International in Australia. Mr. Cummings has served Wycliffe Bible Translators for more than 34 years and been the president for the past 10 years. He served the Lord in Papua New Guinea as a Bible translator for 7 years. He has served as an administrator for Wycliffe Bible Translators International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Rev. Cummings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Biblical Studies and ministry from South Pacific School of Graduate Studies.



OC International

[선교도전]

OC International 회장 래리 키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파송 페루 주재 선교사, 교회개척, 목회후보생 훈련 등의 사역

1. Introduction

2. Explanatory Passage of OC Missionary

- 1) Acts 9:26-28
- 2) Acts 11:22-26
- 3) OC Missionary Daniel Oh

3. Larry Keyes & Wife Blessing from OC

- 1) God's Training
- 2) God's Call
- 3) Seeing the Blessings of Obedience

4. OC Challenges - Worldwide

- 1) Outreach to Philippines
- 2) Outreach to Africa

5. Conclusion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브라질 선교사 강성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파송 브라질 주재 선교사, 교회개척, 전도 및 성경학교 등의 사역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상황과 선교전략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아르헨티나 선교사 **김영화**

예정합동 파송 아르헨티나 주재 선교사, 방송선교, 신학교, 성경학교 및 교회개척 등의 사역



서언

명실공히 한국교회는 선교주자로서의 그 잠재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 성경을 강조하는 말씀 정립의 자세와 강단과 하늘 문 여는 기도의 영적 힘의 열기와 헌금을 모으는 거룩한 열성이나 헌신을 결단한 사명자의 수에 있어 세계가 인정하며 주목하는 금세 기독교 성장의 한 모범된 야곱 같은 민족이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자만에 의한 선민주의 사상도 아니요 샤머니즘의 이탈된 한민족 선교사상도 아니요 축복받은 우리가 일제히 각성하는 사명감의 발로에서 나온 한민족 선교사상이요 주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 아직 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남아메리카의 선교후원에 대한 매력에 있어 미온적이다. 남미를 천주교 국가로 주지하면서 막연히 그 구원을 인정하는 혼란 속에 선교대상국으로 인정하는 결단이 타 지역의 선교국의 참여도에 비해 너무 약하다. 반면에 오늘의 선교 황금어장은 라틴아메리카라는 각성의 소리 또한 높다.

이런 시점에서 남미선교의 긴요성과 보편성을 재조명하며 강조할 사명을 느끼면서 굳게 펜을 잡았다. 요행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문화, 종교, 정치는 그 유사점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 21년전에 지구 땅끝 선교지 아르헨티나에 이주한 이래 보고 느끼고 전해 듣고 9년간 선교사역을 통한 선교실제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1. 남미 카톨릭 문화권

2. 남미의 개신교 선교상황

3. 남미선교의 긴요성과 보편성

- 1) 사탄숭배종파들
- 2) 범람하는 사탄숭배의 참상들

4. 주 아르헨티나 한국선교회의 선교칼럼

- 1) 오지 선교사역
- 2) 도시 선교사역
 - 가. 엘 브엔 빠스톨 교회의 목양보고서
 - 나. 라틴아메리카 신학교 설립 운영
 - 다. F.M. 방송국 설립 운영사역

5. 2000년대를 향한 현지 복음화 선교전략

맺는 말

서두에서 한국민족의 마지막 선교사명과 세계가 한국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풍조를 선교차원에서 조명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선교의 긴요성과 보편성을 선교현장에서 체득한 자료를 가지고 이상과 같이 증거하였고 부족한 저를 들어서 역사하신 요병이어의 선교역사를 간증했다.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상황과 선교전략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콜롬비아 선교사 김경하

예장통합 파송 콜롬비아 주재 선교사, 지도자훈련원 및 계절신학교 운영 등의 사역

라틴아메리카의 도전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Partners International 회장 루이스 부시

Luis Bush serves as international president of Partners International which is associated with almost 70 indigenous ministries in 50 countries. Rev. Bush is a graduate of Dallas Theological Seminary in Texas. He has been a pastor in El Salvador. Published credits include co-authorship of 「Partnering in Ministry」 with Lorry Lutz. Rev. Bush is also leader of AD 2000 and was the coordinator for COMIBAM in 1987.



1. Introduction

2. The Contextual Challenge of Latin America

- 1) The Economic Crisis
- 2) The Political Crisis
- 3) The Evangelical Response

3. The Ideological Challenge of Liberation Theology

4. The Missiological Challenges of Latin America

- 1) The Challenge of the Cities
- 2) The Challenge of the Tribal Peoples
- 3) The Challenge of the Students

5. The Religious Challenges of Latin America

- 1) The Challenge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 2) The Challenge of the "Spirits"

6. The Evangelical Challenge in Latin America

- 1) The Challenge of a Growing Church
- 2) The Challenge of an Explosive Missions' Vision
- 3) COMIBAM 87 - the Conference
- 4) COMIBAM - Continuation

7. Conclusion

Latin America is a great challenge for the missions field from every expanse of its country. From city to rural areas, the economic & political crisis creates a demand and yearning for Christ that needs to be met. Rev. Luis Bush is here to give reasons for a recruitment approach for the Korean Church to Latin America.

저녁선교대회 설교

[저녁선교대회 설교]

뉴욕 퀸즈한인교회 담임 **한진관**

뉴욕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의장, 세계선교신학대학 학장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박상목 선교사
설교/ 김상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성경강해

강사/ 아지스 페르난도 National director of YFC in Sri Lanka

주제강연

강사/ 고석희 목사 뉴욕갈보리세계선교교회

프레젠테이션

사회/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설교/ 림인식 목사 노량진교회
성찬/ 임동선 목사 동양선교교회

프리머스의 비전을 가져라

[새벽기도회 설교]

뉴욕성서교회 담임 **김상모**

뉴욕성서교회 담임목사, 미주 베트남성교회

[민수기 24:14-25]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인생이라는 이민 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나 저것 이냐의 기로에서 자신들의 신앙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미주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삶들이 있다. 하나는 프리머스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타운 사람들이다.

영국민족으로서 북미주에 처음으로 집단이민 온 그룹이 들이 있으니 하나는 청교도들보다 13년 먼저 미국 땅을 밟은 남쪽의 제임스타운 사람들이다.

1. 제임스타운 사람들.
2. 프리머스 사람들

나는 남쪽의 제임스타운도 북쪽의 프리머스도 다 답사해 보았다. 역시 남쪽의 유적지에서는 역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북쪽에서는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각종 기념비의 문구 속에서 많은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건국이념 정신은 똑 같은 영국의 이민사이지만 남쪽의 제임스타운의 개척정신에서가 아니라 북쪽 프리머스 사람들의 개척정신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이민자들이 제임스타운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 보자는 원시적 욕구 충족에만 그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별 볼일 없는 하나의 사실(Fact)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민 역사이식은 보다 높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건(Event)을 창조해 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민자들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민자들이라기보다는 청교도들의 신앙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새질서를 이 땅에 이룩할 사명을 지닌 선교사들이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보냄을 받은 자는 선교사요 남아있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자는 선교자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있는가? 남쪽의 제임스타운인가? 아니면 북쪽의 프리머스인가? 우리는 북쪽의 프리머스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프리머스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이것이 2000년대를 향한 한민족이 새롭게 받은 사명의 큰 비전인 것이다. 선교사와 선교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명을 십이 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자들은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 이곳이 교회의 지상과제요 우리들의 응답이요 곧 신앙고백이요 행위인 것이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소서. 주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프리머서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땅으로" 보내소서. 우리가 프리머스의 비전을 택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2000년대를 향한 세계복음화 비전과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의 역할

[주제강연]

뉴욕갈보리세계선교교회 담임 고석희

뉴욕갈보리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선교협력위원장



1. 서론

21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역사의 분수령 시기 2000년은 온 인류에게 새 시대를 향한 희망과 도전을 요청하며 특히 우리들 각성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영적 상상력을 유발시키며 세계복음화의 기념비적 이정표(Symbolic Milestone)를 세우도록 독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시대 감각과 세계복음화의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적 복음주의 선교운동들이 오늘날 시기 2000년을 「천국추수 목표의 해」(Target Year of Harvest for the Kingdom)로 상징하는 공통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 1월 5-8일 싱가포르에서 61개국 314명의 세계선교운동 지도자들이 회동한 「2000년대를 향한 세계복음화 전략 회의」의 집계에 의하면 현재 2000년대 지구촌 완전복음화를 목표로 태동되거나 추진되는 선교전략은 무려 2,000여 종 이상이며 그 중 387개는 범세계적 대규모 선교전략이요 나머지 1,600여개는 국가단위 혹은 지역단위 복음화 전략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만 실현된다 해도 세계는 변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세계복음화 완성은 낙관을 불허하는 악조건들이 수다하다. 매일 평균 40만의 생명이 복음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매일 37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므로 복음화 성장율에 진전이 없다는 점, 세계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연인구 증가율이 곧 종교인구 증가율로 직결되는 반면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만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추세가 둔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인 정치 문화적 종교사상적 혼합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의 범람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기독교 구원

론의 절대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 등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세계교회의 시급한 선교적 각성과 동원, 선교세력들의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전선 구축, 철저한 선교전략의 모색과 실천 그리고 우리 각성된 헌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도전과 모험과 희생과 순교적 투쟁이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2.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상명령의 「미완성과업」은 얼마나 남았는가?

세계복음화는 「모든 민족, 온 세상」(마 24:14), 「온 천하, 만민」(막 16:15), 「땅끝까지」(행 1:8), 「모든 족속」(마 18:19)에 대한 복음화를 의미한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복음화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종족복음화운동의 개념인 것이다.

1) 「종족그룹」개념 (「People Group」 Idea)

언어를 혼잡케 한 바벨탑의 심판 이후로 지구촌의 인류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로 분할되었다.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촌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려 24,000여개의 타문화권 종족그룹(Cross-cultural People Group)들로 구

성되었다. 그런데 지구상의 24,000여 종족그룹 가운데 지금 까지 약 13,000여 종족들이 복음화되었고 나머지 약 11,000여 종족그룹이 지상명령의 미완성과업으로 남아 있다.

이 11,000여 미복음화 종족그룹(Unreached People Group)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착교회가 없는 「숨은 종족」 (Hidden People)을 말한다.

이 미복음화종족(Unreached People)은 주로 복음화 비율 50% 이하인 30개국 안에 산재하였으며 현재 53억의 인류 가운데 23.7%에 해당하는 12억5천만명에 이른다. 이들을 복음화 하는 것이 오늘날 범세계적 선교운동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상을 통계가능단위(Manageable Unites)인 종족그룹별로 분할하여 도전하는 「종족단위 복음화전략」이 1970년대 맥가브란(McGavran), 랄프 윈터(Ralph D. Winter) 그리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을 통해 보편화 된 이후 세계복음화의 개념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갑자기 「한 촌락의 이야기」(talk of the town)가 되었고 손에 잡히는 절대적 가능성의 실상이 되었다.

2) 「종족입양」전략 (「Adopt a People」 Strategy)

그러면 어떻게 11,000여 미복음화종족에 대한 미완성과업을 끝낼 것인가?

첫째, 서기 2000년까지 11,000여 미복음화 종족그룹 안에 「생동력있고 성장하며 선교적 열정이 충만한 토착교회들을 세우고」(to plant vibrant, growing and mission-minded indigenous churches).

둘째, 그 토착교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종족그룹을 복음화하도록 한다(let these indigenous churches evangelize their own people)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약 18억의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주의자는 약 5억4천만명, 그들의 복음적 교회는 66만개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11,000여개의 미복음화종족그룹을 위해 선교적으

로 동원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600개의 복음적 교회가 한 종족씩만 입양한다면 세계복음화는 통쾌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환상적인 산술인가!

만약 이와 같은 「종족입양」 전략이 하나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교회의 전폭적 순종과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천국추수(Harvest of the Kingdom)의 영광은 인류역사 속에 불기둥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3. 2000년대 지구촌 완전 복음화의 비전

1) 「세계복음화 2000년 운동」의 폭발 (World Evangelization by A.D. 2000 Movement)

198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세계복음화 국제대회에서 토마스 왕(Thomas Wang)은 이렇게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할 자가 누구인가? 휴 매니스트들인가? 세속주의자들인가? 정치가들인가? 아니면 UN인가? 이는 오직 그의 몸된 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신성한 책임이다. 오늘날 교회들과 범세계적 선교운동들로 형성된 하나님의 강한 군대(Mighty Army of God)가 서기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 끝내자고 거대한 합창단처럼 합성을 외치며 성령을 좇아 달려가는 것을 나는 본다.」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결정적 기회로 휘어잡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범세계적 선교운동들은 2000년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비전을 환상에서 실상으로 바꾸고 있다.

대표적 복음화 운동을 소개한다.

- (1) 「2000년대를 향한 세계」 (The World by 2000)
- (2) 「담대한 선교전략」 (Bold Mission Thrust)
- (3) 「성령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을 위한 북아메리카대회」 (General Congress on the Holy Spirit and World Evangelization in North America)

- (4) 「2000년대를 향한 싱가포르 세계복음화 전략회의」(Singapore Consultation for World Evangelization by A.D. 2000)
 (5) 「로잔 II 마닐라 세계복음화 국제대회」(Lausanne II in Manila International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
 (6) DAWN 운동
 (7) 「새생명 2000운동」(New Life 2000 Movement)
 (8) 「선교 2000운동」(Mission 2000 Movement)
 (9)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

2) 정치적 경제적 상황변화

정치적 상황변화, 경제적 상황변화 등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혁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상황조건을 호전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러시아와 동구권에 발생한 「이테올로기의 공백」 현상을 복음으로 대치할 수 있는 절호의 선교적 기회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몽고, 캄푸차, 베트남, 쿠바, 심지어 북한 등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걸프전쟁의 영향을 받은 모슬렘권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을 통한 민주화, 자유화를 촉구하는 세계사적 대세를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 복음의 문은 열리고 선교의 반응도는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채와 극한적 빈곤상황에 시달리는 제3세계의 힌두권, 모슬렘권 후진국들이 복음선교사는 배척할 지라도 직업선교사는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용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00년말 현재 복음폐쇄국가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며 간접선교를 하는 평신도(Tentmaker)가 무려 15만명에 달한다.

3) 통신망과 과학기술의 발달

현대는 「정보시대」(Intelligence Age)이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못지 않게 막을 길 없는 광대한 통신망을 통해 흘러들어간 서구의 자유화의 물결이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사상적 신념체계를 붕괴시킨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처럼 정보통신은 막

강한 힘을 발휘한다.

오늘날 지구촌은 정보망, 통신망, 방송망, 교통망, 영화 컴퓨터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1일 생활권」(one-day living community)으로 촌락화되었다. 이는 세계복음화운동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신문, 우편, 전신, 전화, 팩스, 텔렉스 등 정보통신망, 레코드, 라디오, T.V., 비디오(VCR) 등 방송망, 자전거,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망, 영화, 컴퓨터 등 과학기술은 세계복음화운동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인공위성을 통한 범세계적 선교정보 네트워크를 기대한다면 하나의 환상에 그치겠는가?

4) 제3세계 선교세력의 급부상 (The Dramatic Growth of Third World Mission)

첫째, 제3세계 기독교세력의 급성장

바울 사도 이래 선교운동의 서진(西進)현상은 거의 1900년 동안이나 서구 기독교가 복음의 관리자가 되도록 했다. 예컨대 1780년 비서구기독교의 전체의 0.5%, 1918년에도 6%에 불과했다. 그런데 1980년을 「분수령의 해」(Year of Watershed)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1985년에는 66%, 1990년에는 무려 72%의 복음주의자들이 제3세계에 살게되었다. 이렇게 세계 기독교의 주도권은 제3세계로 이동된 것이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의 실제적 증가숫자로 보면 한국교회가 단연코 세계 1위인데 역사상 유례없는 이와 같은 극적 성장 현상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겠는가!

둘째, 제3세계 선교사의 비약적 증가

1980년대 제3세계 교회성장률도 놀라운 추세를 보였으나 더욱 경탄할 사실은 제3세계 선교사의 극적 성장추세이다. 1980년대 10년간 제3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평균성장률은 매년 6.7%에 비해 제3세계 복음주의 선교사의 평균증가율은 매년 13.3%이며 이는 10년 통산 성장률 348%의 폭발적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대륙별 선교사 성장세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제3세계 선교사 대륙별 성장현황 (1990년 말 현재)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1980년	6,048	5,689	1,127	374	13,238
1988년	17,299	14,989	3,026	610	35,924
1990년	22,497	19,097	3,874	689	46,157

서구선교단체 소속 제3세계 선교사 2,727명을 포함하면 총계 48,884명

1980년 말 제3세계 선교사는 13,23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90년 말 무려 35,464명이나 증가하여 48,884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폭발적 증가추세는 동기간 서구선교사 증가율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1979-88년 10년간 서구선교사 증가율은 연당 4.0%, 10년당 48%에 불과한 반면 제3세계 선교사는 1980-90년 비슷한 기간에 연당 13.3% 10년당 348%의 극적 성장세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제3세계 선교세력은 오늘날 서구 선교세력보다 무려 5배나 강한 성장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3세계 선교세력의 폭발적 증가율은 이미 1990년 말로 전체선교사의 35.6%를 점령했으며 만약 현재의 성장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년대 세계복음화운동의 주도권은 제3세계로 이양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1998년 어느 시점에 비서구 선교세력은 서구를 추월할 것이므로 서기 2000년이 되면 서구선교사는 131,700명, 제3세계 선교사는 164,2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세계 개신교 선교사의 55.5%를 차지하게 되는 제3세계 선교세력의 막강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3세계 선교사의 폭발적 증가율은 단지 하나의 통계수치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고난받으며 투쟁하며 희생하며 증거하며 매우 효율적이며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인 서구 선교사들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한 타문화권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레리 페이트(Larry D. Pate)는 말한다.

「기독교의 중심세력」(Center of Gravity in Christianity)이 서반구에서 동반구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

서반구와 북반구는 경계하라. 동반구와 남반구가 오고 있지 않은가. 정복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반구와 북반구가 영적, 도덕적 하락현상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헌신의 열정이 점점 식어질 뿐만 아니라 쾌락과 안일에 자신들을 방치한다면 지도력의 이동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제2차 로잔대회에서 토마스 왕(Thomas Wang)은 경고했다.

4.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의 선교적 역할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취시키는 역할 (Unique of JESUS CHRIST)

선교의 신학이나 사역이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선교의 주체(subject)이며 명령자이며 집행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Uniqueness)을 확고부동한 진리와 신앙고백으로 파수하고 기독교의 구원관의 절대성을 타협하며 지키며 「그가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복음적 기본자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대적 동향인 종교적 신학적 혼합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 날로 증폭되는 다원화현상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신앙과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다원론자(Pluralist)들을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길 가운데 한 길로 치부하며 우리 복음주의자들을 주관적, 독선적, 배타적 종교관의 희생자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 타락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교회의 핵심적 신앙고백이 될 때만 성령은 그런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병기로 사용하신다.

KWMC가 1988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선언문에서「우리는 세계선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믿는다」고 밝힌 것은 바로 「KWMC 선교운동」의 정신(spirit)과 신앙고백과 방향성의 천명이었다.

그러므로 KWMC는 향후 주께서 강립하시는 그 날까지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주도하며 세계복음화 운동에 동참해 나갈 때 이와 같은 복음주의적 노선을 굳게 지키며 교회와 선교현장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Uniqueness of JESUS CHRIST)을 강조하고 고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줄로 믿는다.

이것인 「KWMC 선교운동」의 최우선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2) 한인선교사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

세계복음화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from Jerusalem to Irain Jaya) 대행군을 계속해 올 때 하나님은 복음의 전령들을 친히 차출하시고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심장, 전인격적 전생애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오대양 육대주, 사막과 바다,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감옥과 유형지에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의 철장권세로 사탄의 면상을 후려치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을 맞으며,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항상 심령에 눌린 바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오직 그 하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역사를 관통하여 달려온 저 장엄한 선교사의 대행군을 보라!

기독교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을 가로질러
성령과 함께 달려온
저 위대한 복음의 전권대사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저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들의 대행군을!
그들의 눈은 역사를 꿰뚫고,
그들의 입은 복음을 외치며,
그들의 손은 인류의 고통을 쓰다듬고,
그들의 발은 귀신의 처소를 짓밟으며,
그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쏟아지며,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불타고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십자가의 군병들의 이 장렬한 대행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한인 선교사의 폭발적 증가추세를 예상케 한다.

KWMC'88 제1차 대회 때 타문화권 한인 선교사는 약 360명으로 집산되었다. 그런데 금번 KWMC'92 제2차 대회를 준비하면서 집계한 결과 약 1,000명의 FM3 타문화권 장단기 한인 선교사가 약 9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만에 640여명이 증가한 것은 매년 평균 30%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만약 동일한 추세로 계속 성장한다면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다음 페이지와 같은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3) 청년 대학생 선교운동을 촉발하는 역할

하나님의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은 19세기 말엽 위대한 복음전도자 무디(D.L. Moody)와 피어슨(A.T. Pierson) 등의 영적 감동력, 프린스턴대학 졸업생 로버트 윌더(Rob-

〈연평균 30% 성장률로 추산해 본 한인 선교사 증가추세〉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예상 선교사	360	468	608	791	1,028	1,337	1,738	2,259	2,937	3,181	4,963	6,452	8,388

ert P. Wilder)의 선교적 비전, 코넬대학생 존 모트(John R. Mott)의 천재적 조직력을 사용하여 당시 북아메리카대륙을 풍미한 「대학생자원 해외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일으켰다.

당시 성령의 선교적 충동에 도전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에 복음화를!」이라는 찬란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을 외쳤다. 그들은 서기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끝내자고 하는 비장한 환상과 열정을 불태우며 동시대 교회들의 선교적 대각성을 독촉하며 오대양 육대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대한 비전은 세계선교운동사에 빛나는 대약진의 장(章)을 기록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혼잡한 언어를 땅 끝까지 정복하는 지상명령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사명의 쟁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역사의 휘장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그들은 갔다. 역사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들의 불타는 비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비전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심장을 불태웠던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것은 이제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동안 분명히 보았다. 「제2차 한인세계 선교대회」,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동원명령 받은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의 기도 속에, 증언 속에, 고백 속에, 대화 속에 분명히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비장한 결단과 헌신과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 위대한 「세계비전」(World Vision)의 열망이 북미주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한민족의 젊은 심장들을 불태우며 확산된다면 마침내 전세계를 석권하는 「한인대학생 자원해외선교운동」(Korean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KWMC는 이를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젊은이들」, 그들이 바로 역사의 미래이며, 이 운동

의 견인차(牽引車)이다.

4) 한인교회의 선교적 동원과 평신도 선교운동을 활성화하는 역할

존 스토트는 「로잔언약해설」(Lausanne Covenant Commentary)에서 「온 교회의 총동원 없이 온 세계의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외치며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들의 동원을 호소했다.

그리고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도 「온 세계를 향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온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체교회의 협력과 총동원을 호소했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선교운동의 저변확대, 다시 말하면 교회의 99.9%를 점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각성과 헌신과 동원과 후원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뿌리 없는 나무는 쓰러지듯 뿌리 없는 운동은 열매가 없다. 선교운동이 평신도운동으로 연결될 때만 교회의 선교적 동원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5) 성령운동과 선교운동의 쇄신과 융합을 도모하는 역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하신 말씀은 성령운동과 선교운동의 유기적 상관성과 상호융합을 통한 세계복음화 실현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리므로 성령은 「선교의 영」이며, 선교는 「성령의 선교」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며 사람은 성령의 병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교의 불길을 반드시 성령의 기쁨에 의해 점화되고 계속 타올라야 한다.

첫째, 성령운동의 선교적 쇄신

선교적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이며 그 분출하는 거룩한 피의 박동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힘차게 방출시킨다. 그런데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출은 오직 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령충만은 언제나 선교적 각성과 도전과 열정과 헌신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불타는 성령운동이 이미 수십년간 한반도를 휩쓸었지만 한국교회의 선교적 후진성과 폐쇄성은 아직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개인적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매몰되는 보편적 현상을 탈피하고 범세계적 선교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이와 같은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강력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긴박성을 깨닫는 선교적 대각성운동으로 승화될 수만 있다면 세계는 변혁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한반도에 불기둥처럼 타오르지 않겠는가!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선교적 쇄신을 위한 강한 노력이 또한 KWMC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둘째, 선교운동의 영적쇄신

사탄의 간교한 꾀술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가로막지 못할 때 그 운동을 가차없이 더럽히는 일이다. 사탄이 만약 그 운동만 앞에 내세우고 그 운동의 영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영적운동을 가차없이 물질화시켜서 철저히 부패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세속화와 물질화에서 그 운동을 구출해 내는 유일한 길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쇄신과 성령충만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what we do)보다도 「우리가 누구냐」(what we are)에 더욱 마음을 두신다. 우리 선교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명자들의 영적쇄신은 세계복음화운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열겠는가? 무엇이 선교현장에서 이교도의 마음을 열겠는가?

막강한 조직력도, 효과적인 전략도, 풍부한 재정적 지원도 마침내 이교도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문을 열고 이교화된 마음에 감동을 부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결정적 힘은 되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성령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갱신, 신앙적 단련, 도덕적 무장, 복음적 설교, 구령의 열정, 기도의 헌신, 희생적 사랑 등을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불길은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타올라야 하며 선교사역자들은 끊임없는 성령의 재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성령운동과 선교운동의 쇄신과 융합을 위한 줄기찬 노력이 또한 KWMC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6) 기도선교운동 (Prayer Mission Movement)

기도는 세계선교운동의 최우선 전략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가 불타기 시작하면 세계는 변혁되고 천사들은 더욱 능력있게 움직이고 더욱 신속히 날며 하나님의 복음운동은 급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과연 고통하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하는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고통하는 세계를 위해!

World Vision의 창설자 밥 피얼즈(Bob Piers)는 늘 지구본(globe)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운동은 부흥운동을 촉발시켰고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을 촉발시켰다!

언제나 시작은 기도운동이었다!

기도의 투쟁은 사탄과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

교회의 절대다수인 평신도들의 선교적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선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인적, 물적 지원확대, 그리고 선교운동 자체의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이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위한 최선의 전략, 최우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기도선교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더욱이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은사이며 영적 자부심이 아닌가? 한국교회 4만여 재단에 떠오르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불길 속에 세계선교의 미완성과 과업이 불쏘시개처럼 떠오르기만 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신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KWMC는 막강하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기도선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7) 「동반사역」(Partnership)의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권장, 협력, 조정」(Promote, Cooperate, Coordinate)의 역할

진정한 협력(genuine cooperation)은 진정한 능력(genuine power)이다. 협력만큼 큰 능력이 있겠는가?

최고의 능률은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복음화운동의 능률도 「그리스도의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세계복음화」(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가 WE인 것처럼 선교는 「우리(WE)」가 하는 일이지 「나」(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동정신과 공동체훈련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통일성이 파괴되고 선교운동의 집중력이 훼손될 때마다 승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로 인한 소아적 갈등, 경쟁, 대립, 분열, 분쟁이라는 슬픈 사실을 절감하고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때부터 「동반자선교」(Partnership Mission)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로잔운동에서 태동한 「기독교 21세기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을 중심으로 2000년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지도자들이 범세계적 조직망을 통해 비전과 믿음과 정보와 전략을 교류하며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상명령 완성의 공동목표와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범세계적 범교회적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인선교세력들의 동반자적 협력문제 역시 핵심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파의식이 농후한 민족성의 비극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영적 활력은 배웠어도 영적 연합은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한 어느 서구신학자의 비판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교회 성장률 세계 1위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 만약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긴박한 지상명령을 위해 소아적 개인주의 교파주의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범교회적으로 총동원되어 협력선교의 큰 길을 열고 타문화권선교의 큰 문을 열기만 한다면, 1990년대는 선교사 파송을 세계 1위의 진실로 위대한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의 협력선교를 위한 위대한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신학적 견해, 신앙적 노선, 교회적 입장, 교파적 배경을 초월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과 북미주 한인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선양하지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1,5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KWMC의 이름으로 회동한 1988년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그리

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긴박한 선교적 사명과 동반자협력전신을 재확인하고 재선양하기 위해 2,500명이 KWMC의 이름으로 회동한 금년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를 한국교회의 선교협력을 위한 「대광장」(Public Square)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세력(Mission Force)들은 KWMC의 「선교적 우산」(Mission Umbrella) 아래 총집결하여 세계복음화의 공동목표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각 선교세력들의 독자적 특수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상호협조적 「동반사역」을 통해 그 독자성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전선 구축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 조건이므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세력들이 KWMC를 중심으로 「동반사역」의 조직망(Network)과 연락망(Connection)을 통해 선교적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긴박한 「미완성과업」을 위한 「비전의 융합」(Fusion of Vision), 기도의 연합, 정보와 전략과 훈련의 상호교류, 그리고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과 동원(Mobilizing)과 번식(Multiplying)을 쟁취할 수 있으므로 분파적 갈등, 경쟁, 충돌로 인한 낭비는 최소화 될 것이며 집중된 한인선교세력의 국제적 영향력은 최대화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위한 「권장」(Promote)과 「협력」(Cooperate)과 「조정」(Coordinate)의 구심적 역할을 명시한 KWMC의 현장 총칙은 한국교회와 KWMC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한다!

결론

선교(Mission)는 생명(Life)이다.

선교는 대회(Conference)나 운동(Movement)이나 과업(Task)이나 전략(Strategy)이기 이전에 생명에 대한 감동이며, 열정이며, 사명감이다. 호흡하는 생명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 지옥에서 유희불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는 선교의 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불, 지금 우리의 심장에, 머리에, 입술에, 눈동자에, 그리고 손과 발에 타오르는 이 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통하는 세계를 향해 나가자!

「와서 도우라」고 「세계가 우리는 부른다」
불타시겠는가?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점의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서기 2000년의 성탄절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선물로 「지구촌 완전복음화」를 드리자!

폐회예배 설교

[폐회예배 설교]

노량진교회 담임 **림인식**





다양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장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1. 선교일반 Mission Basics

①-01	성령과 세계선교	한진관	화	BGC 250
①-02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	노봉린	화	Armerding 20
①-03	세계선교의 최신동향	폴 피어슨	화	Armerding 126
①-04	한국선교사 파송과 선교현장	최종상	수	Pierce Chapel 104
①-05	신학의 상황화와 선교	전호진	수	BGC 272
①-06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와의 관계	도문갑	수	BGC 276
①-07	리스도인의 신앙 인격형성	림택권	수	BGC 252
①-08	2000년대를 향한 세계복음화운동	루이스 부시	수	Armerding 126
①-09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지스 페르난도	수	Armerding Lecture
①-10	세계복음화 현황	고석희	목	BGC Wilson D
①-11	교지의 문화적 적응	폴 히버트	목	Armerding 126
①-12	국제유학생선교	제인 펠즈	목	Armerding 223
①-13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로버트 콜맨	목	Armerding Lecture
①-14	세계경제동향과 세계선교	엘든 J. 하워드	목	Breyer 8/9
①-15	선교단체의 운영과 선교행정	조동소	금	BGC 253
①-16	종말과 선교	이광복	금	BGC Wilson D
①-17	상황화와 복음	존 그레이션	금	Armerding 126
①-18	대학생선교운동	월 노트	금	Breyer 207
①-19	기독교 선교운동의 발자취	데이빗 하워드	금	Breyer 207

2. 선교후보생 For Missionary Candidates

②-01	선교사가 되기까지 준비과정	짐 스넬	화	Armerding 18
②-02	선교사의 소명	얀 헤이	화	Armerding Lecture
②-03	단기선교 : 장점과 단점	김활영	화	Breyer 302
②-04	북미 한인들의 선교참여방안	백운영	화	Breyer 207
②-05	남미의 선교도전	리카르도 로드리게즈	화	Armerding 123
②-06	모슬렘권의 선교도전	패트릭 케이트	화	Blanchard 125
②-07	아시아의 선교도전	김활영	화	Armerding 122
②-08	중국의 선교도전	조나단 차오	화	Blanchard 272
②-09	선교사의 자격구비	이은무	수	Armerding 18
②-10	단기선교의 이론과 실제	김영훈	수	Breyer 302
②-11	선교사훈련	이태웅	수	Breyer 207
②-12	동구권의 선교도전	피터 쿠즈믹	수	Armerding 20
②-13	선교기관의 이해	래리 페이트	목	Armerding 18
②-14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 훈련	강승삼	목	Breyer 207
②-15	성경번역선교	마릴린 라즐로	목	Breyer 103
②-16	선교지의 신학교사역	신홍식	목	Breyer 302
②-17	러시아 선교도전	A. 비쉬코프	목	Armerding 20
②-18	남미의 선교도전	랜달 위티그	목	Armerding 123
②-19	태평양 시대의 북미 2세들의 역할	이원설	목	BGC Barrows
②-20	아시아 선교도전	최찬영	목	Armerding 122
②-21	의료선교의 이론과 실제	전희근	금	Breyer 302
②-22	아프리카의 선교	프레드 빔	금	Armerding 20
②-23	힌두권의 선교도전	줄리엣 토마스	금	Blanchard 272
②-24	북미원주민 선교도전	짐 해밀튼	금	Blanchard 125
②-25	교육적 선교사역	워렌 데이	금	Blanchard 273

3. 지역교회와 선교 Local Church and Missions

③-01	개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운영	이원상	화	BGC 276
③-02	교회와 선교	이상남	화	BGC Wilson D
③-03	새벽기도운동과 교회성장	김삼환	화	BGC Barrow
③-04	지역교회 선교위원회 운영	조갑수	화	BGC B10
③-05	지역교회 선교동원	데이빗 메이스	화	BGC 255
③-06	지역교회의 선교계몽	유태중	수	BGC 255
③-07	지역교회 평신도의 선교참여 방안	이병희	수	BGC B10
③-08	상황에 적응하는 지도자 이원상	김경옥	수	BGC 250
③-09	선교와 이단	신성중	수	BGC Wilson D
③-10	평신도의 세계선교 참여 - 문제점과 해결책	유효명	목	BGC B10
③-11	지역교회 선교재정 관리	서준택	목	BGC 255
③-12	교회와 선교회의 관계 및 교회연합	전동식	목	BGC 276
③-13	교회와 서구 선교단체 간의 협력	테드 바넷	목	Pierce Chapel 104
③-14	지역교회 청소년들의 선교교육	박광자	금	BGC 255
③-15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운동	김상묵	금	BGC Wilson C
③-16	지역교회 복음전도훈련	김선배	금	BGC 276
③-17	지역교회 선교의식 개발과 교회발전	빌 윌드롭	금	BGC 272

4. 타문화권선교 Cross-Cultural Missions

④-01	이슬람권선교 - 이슬람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전재욱	화	Pierce Chapel 140
④-02	불교권에서의 선교사역	김정웅	화	BGC B12
④-03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 중동의 변화	김원호	화	Breyer 8/9
④-04	일본선교의 문제점 - 神道	이근삼	화	BGC 253
④-05	선교사의 영성훈련	서삼정	화	BGC 252
④-06	복음선교와 신학교육	이정근	화	BGC Wilson B
④-07	시청각을 통한 타문화권선교	홍춘만	화	BGC 272
④-08	지역사회개발선교전략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정인찬	화	BGC 263
④-09	성경번역을 통한 토착교회 개발	마릴린 라즐로	화	Breyer 103
④-10	선교사의 가정생활	폴 넬슨	화	BGC Wilson C
④-11	선교지의 권능사역	팀 워너	화	Blanchard 273
④-12	공산체제의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	A. 세멘추크	화	Armerding 223

④-13	로만 카톨릭권에서의 선교사역	김유식	수	BGC B12
④-14	선교지의 신학적 기초	성기호	수	BGC Wilson B
④-15	한국교회의 발전과 네비우스 선교방법	정석산	수	BGC 253
④-16	성경번역은 어떻게 하나?	포레스트 젠더	수	Breyer 103
④-17	선교사의 자녀교육	로저 다이어	수	BGC Wilson C
④-18	이슬람권에서의 선교사역	정재화	목	BGC B12
④-19	남미의 영적상황과 선교	허원구	목	BGC Wilson B
④-20	선교사의 인격훈련	김득렬	목	BGC 252
④-21	선교지의 교회개혁	주진국	목	Armerding 129
④-22	선교사역 신임 방안 및 정책	고인호	목	BGC 250
④-23	선교사의 안식년 및 후생복지	리차드 윈첼	목	BGC Wilson C
④-24	제삼세계 지도자 개발 및 선교전략	이종형	금	BGC 250
④-25	힌두권에서의 선교사역	김영자	금	BGC B12
④-26	선교사의 영성관리	김남수	금	BGC 252
④-27	성경번역	데이빗 커밍스	금	Breyer 103

5. 특수선교 Specialized Ministries in Missions

⑤-01	기능인(농업)선교에 대한 주장	조성범	화	Pierce Chapel 201
⑤-02	선교지의 전문인 사역: 학원선교 중심	한정국	화	Armerding 129
⑤-03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	조동진	수	BGC 263
⑤-04	방송과 선교: AD2000 Movement를 중심으로	송용필	수	Pierce Chapel 201
⑤-05	대도시선교	김충모	목	BGC 253
⑤-06	인형극 이론과 실제	신관홍	목	BGC 272
⑤-07	북한교회 재건과 한국교회의 사명	김명혁	목	BGC 263
⑤-08	문서선교와 그 영향	박도원	목	Pierce Chapel 201
⑤-09	북한병원선교	박세록	금	BGC 263
⑤-10	선교지의 전문적 사역 - 중국을 와서 도우라	이관숙	금	BGC Wilson B
⑤-11	항만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전철한	금	Pierce Chapel 201
⑤-12	세계선교에 미치는 정음과 福音의 상승효과	김석연	금	Pierce Chapel 104
⑤-13	선교지 현장 지역개발	김익배	금	Blanchard 139
⑤-14	자비량 선교	크리스티 윌슨	금	Armerding Lecture
⑤-15	사업과 선교	드와이트 노드스트롬	금	Armerding 18

1. 선교일반

①-1 성령과 세계선교

한진관 뉴욕퀵즈한인교회 담임



뉴욕퀵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의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1.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1)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 2) 성령행전이 세계선교이다.
- 3) 성령님의 역사만이 선교이다.

2. 성령운동으로 세계선교가 되어야 한다.

- 1)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세계선교가 이루어 질 수 없다.
- 2)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성령감람으로 성령세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선교를 시작한다.
- 3) 오늘도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세계선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성령세례만이 세계선교의 시발점이다.

3. 성령에 따르는 "권능"이 세계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권능속에 다음의 사실들이 따른다.

- 1) 기도에 열중하는 일이다.
- 2) 생동하는 말씀이 선포된다.
- 3)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 4)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 5) 성도의 사랑의 교제로서 그리스도의 몸(교회)이 형성된다.
- 6) 복음이 "연병"과 같이 세계에 전파된다.

4.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증인"들로 형성되는 "생명을 걸고 생명먹기"이다.

- 1) "권능"받은 성도가 증인이 된다.
- 2) 증인이란 주님께 받은 생명을 복음전파를 위해 소모하는 성도이다
- 3)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 4) 내 한 생명 바쳐서 무한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세계선교이다.

①-2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

노봉린 ACTS 교수



국제복음주의협회(WEF) 신학분과 위원회 총무, OMF 선교사로 20년간 사역중,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 교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역사를 깊이 살펴볼 때에 세계선교의 중심점이 세계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상의 특정지역의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며 시대에 따라서 그의 초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인 성격상 선교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마 28:19, 20; 행 1:8; 벰전 2:9, 10) 이 지상명령은 모든 세 대. 모든 장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중세 교회, 종교개혁시대의 교회 그리고 현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순종하여 왔다.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선교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선교와 교회 성장과의 긴밀한 연결성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교회는 급성장하였음을 초대교회의 안디옥교회(행 13: 1-5), 소아시아의 일곱교회(계 2장)와 초대 교회 교부들의 선교의 발자취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운동에서도 그와 같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교회, AD 635년에 중국 시안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중앙아시아의 시리아 교회, 13세기, 14세기때 중국에 온 로마캐톨릭의 선교사를, 16세기의 프란시스 짜비에르와 마테오 리치 등의 선교사들을 열거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유럽에서 시작한 현대교회 선교역사에서도 많은 예들이 있다. Batholomeus Ziegenbalg와 Henrick Plutschau, 현대선교사의 아버지 William Carey, Robert Morrison, Hudson Taylor, Adoniram Judson, David Livingstone 등의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파송한 영국과 독일과 북아메리카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였다.

반면 교회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선교적인 동정심을 잃을 때에 그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쇠약해지고 교인수가 사라지게 되는데 한때 성황했던 북아프리카 교회가 살아진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기독교화된 북아프리카 지역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슬렘의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내에 잠재했던 영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즉 그들에게는 바울과 안디옥 크리스천들이 가졌던 선교적인 사랑의 마음이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지난 20년간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선교적인 도전이다. 만약 우리가 전세계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잃어버리면 7세기에 직면한 아프리카 교회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모른다. 이것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여 선교하는 이유이다.

2. 1960년대부터 시작한 제3세계 선교의 부흥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현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서의 선교운동의 급속한 발전이다. 서구 교회의 쇠퇴와 더불어 이들 국가의 선교의 부흥이 괄목한 사실이다. 서구교회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휴머니즘이 교회에 스며들어 기독교인들의 영적생활을 악화시켰다.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와 남미 교회들이 서구선교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아시아의 AMA, 나이지리아의 ECWA와 남미의 COMIBAN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3. 택함받은 한국교회

선택받은 Chosen(조선)의 한국교회가 20세기 땅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교회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듯이 그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①-3 세계선교의 최신동향 The Cutting Edge of Mission Today 폴 피어슨 풀러신학교 세계선교학교 학장



풀러신학교 세계선교학교 학장이자 교수인 폴 피어슨 박사는 브라질, 포르투갈,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교회개혁자로,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장로회신학교 총장을 지내며 각 지역에 교회개혁 사역을 하였고 장로교 내에서 세계선교를 위한 강한 목소리와 행동을 취해왔다. 저서로 〈성숙하고자 하는 젊은 교회: 브라질의 장로교〉, 〈사도행전의 주제〉 등이 있다.

This workshop will outline important trends that have come about in the 1990's. It will primarily be a descriptive and is prescriptive only by implication, but the workshop will stimulate our thinking as we attempt to be faithful in the new decade.

1.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ross-cultural Missionary Movement
 - 1) Significant mission movements coming out of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he past 20 years.
 - 2) Key Issues.
2. Urbanization
3. Contextualization of the Gospel
 - 1) The good news of God's redemptive activity must be communicated 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 2) Contextualization has to do with issues that the Gospel addresses.
4. Overcoming the Great Reversal
 - 1) 18th and 19th century.
 - 2) Focus has shifted from social service to social action.
5. The Role of Women
6. Non-Traditional Missionary Groups, primarily Charismatic
7. Alternative Methods of Selecting and Training Leaders
 - 1) Traditional missions have depended heavily on academic institutions.
 - 2) Theological education.

①-4 한국선교사 파송과 선교현장

최종상 OM국제선교회 선교사



OM국제선교회 선교사, 현재 London Bible College 수학 중

지난 110여년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교회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역동적 선교참여를 기대케 하고 있다. 이런 기대는 1974년 로잔선교대회에서 맥가브란 박사가 "한국은 1984년까지 2,00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예언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90년의 통계는 한국의 FM-2/3 선교사가 1,123명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통계는 '선교사'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없겠으나 1992년까지도 아직 타문화권 선교사가 맥가브란 박사의 예언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꾸준히 실천하며 성장해 온 세계선교 참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선교사 및 단체 편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79	1982	1986	1990
선교기관 수	21	47	89	65
선교사 수	93	323	511	1645
사역국가 수	26	87	47	87

물론 수적증가가 성장의 유일한 척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교사 및 선교기관의 한국교회의 놀라운 선교생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80년대 이후부터 특히 FM-2와 FM-3 사역선교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선교사들은 70 년대에 이룬 한국교회의 성장과 8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한국 선교성장은 세계 개신교 역사상 드문 것으로 보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은 1986년 패트릭 존스톤의 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아시아 10 개국의 개신교인당 선교사 파송률은 5,930:1인데 한국은 28,300:1로서 교세에 비한 선교감당률은 특히 쳐지고 있어 경중이 되고 있다.

물론 지난 6년간의 선교사 파송, 자비량선교사 파송, 단기선교사 파송, 선교참여, "선교한국대회"의 모판 역할로 한국은 향후 10년 내에 5,000명 혹은 10,000명의 선교사를 확보하는 중요한 선교국이 될 것이며, 또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현장은 6대주의 87개국에 걸쳐 있으며, 교회개척사역, 의료사역, 교육사업, 구제사역, 전도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피와 땀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선교사 간의 갈등도 있고 외국선교기관에 속하여 사역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많다. 그러나 국제 감각과 의사소통에 뒤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들은 헌신과 노력, 기도와 헌신 인과의 동질성 형성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오시는 날까지 선교사 발굴, 훈련, 파송, 선교지 및 사역 확보를 해야겠고 전도중심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기르며 겸손히 지상명령을 힘껏 수행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겠다.

①-5 신학의 상황화와 선교

전호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전 고신대학교 학장

20세기 세계선교는 연합운동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통문화와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가 신학과 선교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상황화는 70년대 WCC의 TEF가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이 목회현장과 신학 간에 괴리현상이 나타난다는 자성과 해방신학을 신학교육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서 대두되어 복음주의 선교신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상황화란 먼저 전통문화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토착화의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억압적 정치와 불의한 경제구조로 고민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정치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와도 관련된다. 즉, 선교에서 National Geography(전통문화)와 Times(시대상황)를 동시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1. 상황화의 요구

교회의 자립은 영적 동력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종교현상에 너무 의존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이교화와 혼합주의의 위협이 내재한다. 아프리카 교회는 영적 생명의 결여로, 동방의 교회는 지나친 토착화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21세기 세계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상황화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선교지 문화의 파괴자로 보일 것이 아니라 문화보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비서구 문화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과 비수용을 분명히 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2. 급진적인 상황화

해방신학을 토대로 한 상황화는 본문(text)보다는 상황(context)에 더 우선성을 두는 오류를 범한다. 문화와 상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상실한다는 비판을 금치 못한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모든 신학을 서구의 것으로 부정할 때 과연 성경적 신학은 무엇인가?

3.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의 과제

제3세계 신학이 너무 본문을 무시하고 상황적이라면 한국의 복음주의는 너무나 비상황적이어서 청년들과 지성인 선자들을 잃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의 시대적, 상황적 적응을 외면하여 신자들이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현장이 괴리되는 이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신학은 묻지 않은 질문에 너무 많은 정통 해답을 제시하였고, 자유주의는 묻는 질문에 성경적 해답을 주지 못하고 다만 과격한 상황적 대안만을 제시하였다. 성경의 말씀을 상황에 잘 적용하는 상황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①-6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와의 관계

도문갑 GMF 총무



한국해외선교회(GMF) 총무, 충신대학교교회 지도목사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1) 선교단체에 대한 이해, 2) 역사적 갈등관계, 3) 효과적인 동역의 분야

2. 지역교회의 역할

1) 선교사의 모관, 2) 선교사 파송의 주체, 3) 기도와 재정후원의 모체, 4) 선교사역 확대, 발전의 원동력

3. 선교단체의 기능

1) 선교단체의 기본 체제, 2) 선교지의 지원, 관리업무, 3) 국내의 선교행정 및 지원업무, 4) 선교정책개발과 전략적 사역

4. 선교사의 사역과 삶

1) 선교사와 선교정책, 2) 선교지의 교회와의 관계

결론 - 현지에 대한 선교재정의 투자와 운용은 올바른 선교지 이해를 통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선교전략 연구와 정책수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①-7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 형성

림택권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선교교육위원장

①-8 2000년대를 향한 세계복음화운동

루이스 부시 Partners International 국제회장



루이스 부시 목사는 파트너스 인터네셔널의 국제회장으로 사역하며 50개국의 70여 현지사역을 돕고 있다. 텍사스 소재의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하고 엘살바도르에서 목회자로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AD2000의 지도자이며 1987년 COMIBAM의 코디네이터로도 활약하였다. 공저로 <선교에서의 동반자사역>이 있다.

①-9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지스 페르난도 Youth For Christ 스리랑카 디렉터



아지스 페르난도는 스리랑카의 유스 포 크라이스트의 전국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으며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비롯한 3권의 저서가 있다.

①-10 1992년 세계복음화 현황

고석희 뉴욕갈보리세계선교교회 담임



뉴욕갈보리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선교협력위원장

①-11 선교지의 문화적 적응 Cultural Adaptation

폴 히버트 트리니타신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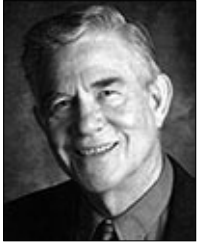
폴 G. 히버트 박사는 트리니타신학교의 선교인류학과 남아시아학과의 교수이자 학과장이며 미국인류학협회, 아시아학회, 남인도학회의 회원이다. 테이버대학에서 성경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미네소타대학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였고 <선교와 인류학> 잡지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였다.

①-12 국제유학생선교 Ministry to International Student

제인 펠즈

①-13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생활

로버트 콜만 전도와세계선교학교 학장



로버트 콜만 박사는 전도와 세계선교학교의 학장이며 트리니티신학교의 선교와 전도 학과장이다. 텍사스 소재의 사우스웨스턴대학과 프린스턴신학교를 나와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잔협회의 창단멤버이기도 한 로버트 콜만 박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전도와 제자도를 강조하며 베스트셀러인 「전도의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19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1. Great Commission

- 1) We interpret this commission as a call to go overseas.
- 2) Is going out to a distant land to work for Christ the only way to fulfill the command?
- 3) The word 'disciple' translates as a 'learner'.

2. Jesus and His Way of Life

- 1) Renounced His own rights to identify with our need.
- 2) Spiritual leadership necessary to multiply Christ's ministry
- 3) A model that every believer can follow.

3. Practical Guidelines

①-14 세계 경제동향과 세계선교

엘든 하워드 SIM International 총괄 디렉터



엘든 하워드는 SIM International의 총괄 디렉터로 단체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미시건주립대학에서 경영학 B.A.를 수료하고 럿거스대학에서 공공행정 석사과정을 밟은 그는 IFMA(국제초교파해외선교협의회)의 사업행정위원회에서 1970년부터 1986년까지 사역하였고 가나와 라이베리아 SIM에서 재정을 담당하며 선교사역에 참여하였다. 이후 1991년 SIM의 제너럴 디렉터로 취임하였다. <선교단체의 재정과 회계 메뉴얼>등 여러 글들을 공저하였다.

①-15 선교단체 운영과 선교행정

조동소 KIM 총재

국제협력기구(KIM) 총재 직무대행, 수습선교사 교육 및 훈련담당

2서구 선진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선교운동이 침체되고, 냉각될 뿐 아니라 선교의 이름 아래 참된 선교의 길에서 이탈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횃불을 높이 들고 2000년대의 선교의 동량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신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제일 사명으로 선교를 부르짖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의 지나친 과열과 폭발로 선교가 무질서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냉정하게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에 선교단체의 운영과 선교행정을 성경에 조망해 봄으로써 다가오는 시대에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1. 선교단체 본부는 선교사의 선교동기와 선교윤리의 순화를 위하여 끊임 없이 교회를 계몽하고 선교사를 지도 훈련 관리하여야 한다. (행 1:8; 13:33; 고전 9:16-27)
2.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후 4:1-5; 6:1-10; 살후 3:6-15; 요삼 1-12)
3. 선교단체는 비합법적 선교활동을 저지하여야 한다. (딤후 2:1-7; 3:1-7)
4. 선교사 훈련기관의 질적향상이 필요하다 (행 19:9-10; 딤후 4:6-16)
5. 선교단체는 사회주의 국가의 선교운동도 개선하여야 한다. (행 8:26-40; 엡 4:17-20)
6. 선교단체들은 "선교단체 협의회"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교의 두뇌들을 묶어야 한다. (롬 1:1-16; 고전 12:12-27)
7.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발굴, 교육, 훈련, 그리고 파송 관리하는 것이다. (행 13:1-3)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파송만이 아니고 선교정보수집, 선교정책연구, 선교문헌의 발간과 보급, 건전한 선교단체와 교류와 연구의 교환, 선교운동의 계몽. 선교를 위한 교육과 연구 등등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①-16 종말과 선교

이광복 서울양문교회 담임



서울양문교회 담임목사, 목양성경연구원 원장.

1. 성경 종말신앙 (사 45:7)

1) 성경 종말의 의미 - a. 결론 중의 결론, b. 종말논쟁, c. 말세의 의미, d. 계시, 재림, 종말의 용어, e. 신학자 종말관, f. 종말론 현대신학

2) 성경의 징조 - 재림 전의 징조는 축복의 표징(마 16:3)인 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일곱가지 징조 중 네 가지의 내용을 소개한다. - a. 이스라엘의 징조, b. 종교적 징조, c. 사회적 징조, d. 자연계의 징조

3) 올바른 재림 신앙 - 재림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지만, 잘못된 신앙관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함정이 된다. 광신적 재림신앙론과 부정적 소극적 재림신앙론이 경계의 대상이라면, 복된 그 날을 사모하는 재림신앙론은 올바른 재림신앙론이라 하겠다. - a. 광신적인 재림론 경계, b. 소극적 부정적인 태도는 금물, c. 그 날을 사모하라!

2. 선교신앙

1) 선교의 의미 - a. 초립 b. 종말

2) 한국교회의 사명 - a. 신앙적인 면 b. 한국교회의 물질, c.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 d. 아시아 태평양 시대

3) 선교사 현황 - a. 선교사 파송 현황 (55위) , b. 바울의 전도모습

①-17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 형성

존 그레이션 휘튼대학교 선교학 교수



Dr. John Gratton is Professor of Missions and Chair of the Missions/Intercultural and Evangelism Department at Wheaton College Graduate School. Prior to joining the Wheaton College Faculty, Dr. Gratton was Associate Home Director of the Africa Inland Mission for eight years. He has also served as a missionary in theological education in Kenya and Zaire. Dr. Gratton's education includes his B.A. from Gordon College, his M.A. from Wheaton College, and his Ph.D. from New York University. Dr. Gratton is also a speaker who has lectured in a number of places and countries. He also has a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numerous magazines.

1. Introduction

2. Elements in Contextualization - Definition

3. World of Change - 1) Changes in Society Throughout History 2) Recent Changes 3) Effect of Technology

4. Contextualization: Multi-faceted - 1) Different Types of Contextualization 2) Theology's Direct Relationship to Contextualization

3) The Steps of the Church to Come into Being 4) Theological Education -Particularly Ministry

5. The Gospel and Culture - Different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of Contextualization

6. Contextualization Defined - 1) Oration's Definition 2) Arguments of Definition

7. Two Imperatives - 1) Relevance to Context 2) Fidelity to the Truth 3) How Contextualization Should Be Viewed

8. Contextualization in Life - Relating to What We Are

9. Conclusion - Contextualization deals with relating to the gospel, or permitting it to relate to a particular culture in all its dimensions. John Oration helps us define it and also takes the meaning to further extents by explaining all the facets of the ministry where contextualization applies.

①-18 학생선교운동 The Student Missionary Movement

월 노트

①-19 기독교운동의 발자취

데이빗 하워드 WEF 국제 디렉터

WEF(세계복음주연맹)의 국제 디렉터로 데이빗 하워드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각국별 WEF의 행정전반을 살피고 둘째는 국제적으로 교회간, 비정치적, 비교파적인 WEF의 사역을 관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어바나 '73과 '76과 1980년 태국에서 열린 COWE의 디렉터로 사역하였고 코스타리카 신학교 교수와 라틴아메리카미션의 콜롬비아 필드 디렉터 사역을 통해 직접 선교에도 헌신하였다.

1. Apostolic Period 30 to 100 AD.
2. Roman Empire 100 to 500 AD.
3. Dark Ages 500 to 1300 AD
4. Roman Catholic Missions 1300 to 1700 AD
5. Early Protestant Mission 1600 to 1800 AD
 - 1) Reformation Period, 2) English Missions (pre-Carey), 3) European Missions
6. Modern Protest and Mission 1800 to Present
 - 1) England, 2) North America, 3) Two-Thirds World
7. Present Situation
 - 1) Some Issues Facing the Church and Mission Today, 2) Some Trends in missions today

2. 선교후보생

②-1 선교사가 되기까지 준비과정

짐 스넬 캐나다 SIM 선교후보자 담당

짐 스넬은 캐나다 SIM에서 선교후보자 담당자로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평가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밴쿠버성경대학에서 종교교육으로 학사를, 브리티시컬럼비아기술대학에서 건축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프랑스 서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위해 프랑스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1. Personal Preparation For Effective Ministry - 1) Spiritual Maturity 2) Involvement In Your Local Church 3) Personal Characteristics
 2. Discovering God's Perspective On Missions - a Biblical understanding of what missions is about.
 3. Learning About the World's Needs and Mission Opportunities - It is essential that you become an informed learner in your preparation for missionary service.
 4. Gaining Vocational, Bible and Cross-Cultural Skills - 1) Vocational Training 2) Bible Training 3) Cross-Cultural Training
 5. Selecting A Mission Agency - 1) Narrowing your choices. 2) Four key considerations in choosing a mission agency.
 6. Developing A Support Team
 7. Following Through To Application - 1) Preliminary Information. 2) Formal Application and Interview. 3) Candidate Orientation. 4) Deputation/Resource Development Ministry. 5) Language Acquisition. 6) Language Study.
- CONCLUSION: On Going Development - Preparing to be a cross-cultural missionary is like preparing to work overseas. In the workshop, critical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ny preparation of being a cross-cultural missionary will be discussed.

②-2 선교사의 소명 The Calling of a Missionary

안 헤이 SIM International 총괄 디렉터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8,000개 이상의 현지교회와 사역하며 1,7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는 SIM International의 총괄 디렉터인 안 헤이는 브라이언대학에서 B.A.를, 콜롬비아 성경/선교대학원 성경교육 M.A.과정을 수료하고 나이지리아 쿠타에서 첫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왜 그것을 하였는가?>, <동기, 연합, 정결의 성경적 기초>, <발란스와 기초 잡기>, <SIM의 성경적 원리>.

②-3 단기선교 : 강점과 약점

김활영 필리핀 선교사



②-4 북미한인들의 선교참여방안

백운영 필리핀 선교사



M.Div., Th.M., Partners for World Mission, Philippines.

This workshop will discover the potentials Korean-American mission forces possess for the world evangelization. A brief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American church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the unique role of the intergenerational Korean-Americans for the world mission will be covered.

A necessary preparation as a missionary will be discussed extensively from the view point of a 1.5 generation missionary. He will discuss step by step processes of the missionary preparations such as theological training, gathering information, choosing a mission organization, training period and factors behind deputations.

Lastly, some advantages of Korean-American missionary will be discussed. What are some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of the Korean-Americans on the field and how the unique cultural background helped in doing mission works at various field situations.

1. Uniquenes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

- 1) Socio-cultural overview of the Korean-Americans
-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3) Potentials and Vision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2. Relationship between uniqueness of Korean-American mission forces to the actual missionary preparation and its work in the field.

- 1) Missionary Preparation
- 2) Missionary work in the field
 - a. Korean-American missionary's uniqueness and its adaptation on the field in various ministry activities.
 - b. Advantages of Korean-American missionary.
 - c. Some examples of difficulties faced on the field.
- 3) Common conflicts with the home churches.

3. Responsibility and Roles of the Korean-American missionaries

- 1) Co-operative relationship Korean-American missionaries must have on the field with:
 - a. Missionaries from Korea
 - b. Missionaries of new emerging Non-Western mission forces
 - c. Western missionaries
 - d. National church leaders and society leaders on the field.
- 2)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izing mission forces.
- 3) Role of Korean Americans in World Evangelization effort
- 4) Discussion and conclusion.

②-5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도전

리카르도 로드리게즈

②-6 모슬렘권의 선교도전

페이트 케이트 인터네셔널 미션 회장/총디렉터

패트릭 오헤어 케이트 박사는 인터네셔널 미션(IM)의 회장이자 총디렉터로 IM은 이집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인도, 이란, 일본, 케냐, 북미,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와 두 개의 "닫힌"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윗튼대학에서 선교, 특히 중동지역과 아랍/페르시아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했고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들을 향한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 경험을 갖고 있다. <동역사역>을 로리 러츠와 공저하였다.

1. Why Should Koreans Reach Muslims? - 1) Exciting Facts About Korean Church History 2) Quote by Ruth Tucker
2. Why Is the Church Growing so Fast in Korea? - 1) God's Call 2) Reason for Placement at a Strategic Juncture in History
3. How Will You Respond? - 1) Reaction to God's Call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2) Examples in the Past 3) Cross-cultural Barriers Needed to Be Overcome 4) The Muslim Standpoint on Christianity 5) Main Reason Koreans Should Reach the Muslims 6) Korean Reservations 7) The Challenge and Christ's Response to that Challenge 8) Obtaining the Support of Family by Informing Them
4. Opportunities for Korean College and Seminary Graduates in the Muslim World - 1) IMI Needs in Reaching the Muslim World 2) Evangelism Techniques 3) Biblical and Theological Training Requirements 4) Linguistic Abilities in Need
5.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Missions - 1) Non-Muslims 2) Muslims Reached 3) Summer Training Program in Muslim Evangelism 4) Credentials of IMI and Plans for Koreans at IMI
6. Why Should the Church Reach Muslims? - 1) God Calling You 2) Jesus' Call 3) Scriptures from Paul

Koreans are quickly becoming a strong force in the missions field. That is why and Patrick Cate sees a great plan awaiting them to serve the Lord. Due to the cultural orientation of Koreans, Dr. Cate feels a great opportunity is at hand for Koreans to spread the Gospel to Muslims who comprise 1/5 of the world's population.

②-7 필리핀의 선교도전

김활영 필리핀 선교사



②-8 중국의 선교도전

조나단 차오 중국교회연구센터 디렉터



조나단 차오 박사는 홍콩에 소재한 중국교회연구센터의 창립자이자 디렉터로 이를 통해 중국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연구를 펼치고 있으며 주별/월별로 중국어 영어로 간행물을 내고 있으며 중국 내의 목회자들과 전도자들 훈련을 위한 "공중신학교"라는 반시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다. 차오 박사는 제네바대학에서 B.A.를,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Div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동양학으로 Ph.D.를 수여하였다.

②-9 선교사의 자격구비

이은무 싱가포르 선교사



세계협력선교회 소속 싱가포르 주재 선교사, 1976년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성숙한 교회라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참여하여야 한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은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데 이는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선교헌신자들의 선교사로서의 자격과 소명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 (Before Being Called)

- 1) 증생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High Calling), 혹은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Sent apart from the chosen)이라고 하듯이 많은 희생과 핍박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영적자세는 거듭남의 경험과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 2)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이 선교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신으로 선교지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 3) 교회봉사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한다. (Practice your love through serving the church) -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교회생활에서 나타나므로 교회봉사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 4)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확인하여야 한다. (Conform your missionary calling) - 우리의 생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한 삶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응답하고 있는가?

2. 선교사의 천성적인 자격 (Natural Capability of Missionary)

- 1) 적응성 (Adaptability) 2) 융통성 (Flexibility) 3) 창조성 (Creativity) 4) 협동정신 (Co-operation Spirit)

3. 선교사의 자격구비 (General Qualification)

- 1) 영성적 자격 (Spiritual Qualification) 2) 정서적인 자격 (Emotional Qualification) 3) 건강적 자격 (Health Qualification)

4. 학적인 자격 (Academical Qualification)

②-10 단기선교의 이론과 실제

김영훈 필리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

필리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케냐에서 단기의료사역.

1. 교회와 평신도 단기선교

평신도 단기선교는 어느 개인의 호기심이나 모험심에 의한 개인적 사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개 교회의 선교부나 어느 선교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내지 협력과 감독 아래 이루어질 때 그 사역의 목적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다.

- 1) 교회 선교부와 평신도 단기선교
- 2) 선교기관과 평신도 단기선교

2. 평신도 단기선교의 구체적 방안

- 1) 교회선교부의 계획 2) 평신도 단기 선교팀의 구성 3) 평신도 단기 선교의 준비 및 훈련
- 4) 교회의 재정적 훈련 5) 현지에서의 주의사항 6) 선교보고 및 남은 사역

본 강의 원고는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회원으로 1991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②-11 선교훈련

이태웅 한국해외선교회 이사장



한국해외선교회 이사장, 선교훈련원 원장, 여의도침례교회 협동목사.

서론 : 선교훈련의 종합성 (William Taylor 박사)

1. 선교훈련이 필요한 이유
2. 선교훈련의 목표 - 1) 가시적 목표 (Explicit) 2) 비가시적 목표 (implicit)
3. 선교훈련의 커리큘럼
4. 선교훈련 방법 - 1) Pluddeman, High Context, Low Context 2) Bowen 3) 일반적, 공식적, 비공식적, 비형식적

5. 선교훈련의 모델 - 1) 신학교 2) 전문선교훈련원 3) 계절별 훈련 4) 교회 부설 선교훈련원
 6. 선교훈련과 공동체 훈련 - 1) 가정생활 2) 교제 3) 대인관계 4) 지도력
 7. 선교훈련과 전공분야 - 1) 전문인 선교사 2) 전임 선교사
 8. 선교훈련의 대상들 - 1) 단기 2) 장기/일반 3) 전문인 4) 비거주
 9. 선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 주는 조언 - 1) 성서 등 일반영성훈련 2) 전도/제자훈련 중시 3) 일반 사회적응 노력 4) 가정관리 철저
 10. 선교훈련을 위한 도서
 11. 선교훈련센터들
- 결론

②-12 동구권의 선교도전

피터 쿠즈믹 오스젝복음주의신학대학 교수



피터 쿠즈믹 박사는 유고슬라비아 오스젝 복음주의신학대학의 교수로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B.A.를, 위튼대학에서 M.A.를 유고슬라비아의 자그렘카톨릭신학교에서 M.Th., Th.D. 학위를 최우등으로 수여했다. 쿠즈믹 박사는 유고슬라비아 다수의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풀러신학교에서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현재 고든콘웰신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있다.

②-13 선교기관의 역할과 기능

래리 D. 패이트

1. Introduction
2. Axioms of Emerging Missions Organization
 - 1) Effective Organization Depends on Effective Strategy
 - 2) Organizational Patterns Tend to Perpetuate Themselves
 - 3) Strategic Planning becomes more important As the Emerging Missions Movement Matures and Increases in Size.
 - 4) Church Administrative Structures Tend to Increase Their Control Over Mission Structures Over Time
 - 5) Mission Structures Tend Toward Becoming Increasingly Autonomous Over Time
 - 6) When a Dynamic, Balanced Tension Between Mission Structures and Church Structures Is Maintained, the Church Expands More Rapidly and Increases in Spiritual Zeal
 - 7) Argentina Model
3. Local Church Based Missionary Sending - 1) Advantages 2) Disadvantages 3) African Models 4) India Models
4. A Broader Perspective
5. Conclusion - Common conventional Western theory on mission structures not been able to cater or meet the needs of non-Western leaders who think that there may be more effective ways to organize mission structures. By pointing out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structure, Dr. Pate hopes to bridge the Western-non/Western gap.

②-14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 훈련 Missionary Training in N. America

강승삼



1. Introduction
2. Prior consideraton to the planning of Korean-American Missionary Training Program
 - 1) Bicultural context 2) Educational aspect 3) Grand geographical aspect
 - 4) Three types of missionary training 5) Missionary training models
 - 6) Overview of missionary training
3. Korean World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in North America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KWMTI 2) Why is KWMTI necessary? 3) Field internship
- 4) Outline of courses 5) Starting and organizing

②-15 성경번역을 통한 토착교회 개발

마릴린 라스즐로 파푸아 뉴기니 언어학자/선교사



마릴린 라스즐로는 파푸아 뉴기니의 고립된 세픽 종족 가운데서 1969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는 언어학자다. 바이란대학에서 B.A.를, 인디애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현재까지 세픽 종족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들의 언어로 마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전후서를 번역했다. 신약성서 전체를 번역하는 목표로 사역중이다.

②-16 선교지의 신학교 사역

신홍식 태국 선교사



방콕신학교 부총장, 1971년부터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

Introduction: Kinds and Levels

1. The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Field Seminary

1) Ecclesiastical Functions

a. Church development through the national servants b. Supportive ministry to the national churches

2) Missiological Instruments

a. Strategic means for the evangelistic goal b. Culturally relevant products for the evangelistic church

3) Implementational Considerations

a. Contextual effectiveness b. Cooperative efforts (internal and external) c. Ethics in operation

4) Pedagogical Aspects

a. Balanced education (intellect, integrity, skill) b. Demonstrative - empirical education

2. The Missionary Role at the Field Seminary

1) Theological Educator - a. Academic and linguistic qualifications b. Cross-cultural experience in Ministry

2) Fellow-worker - a. Humility b. Toleration c. Self-sacrifice

3). Partnership in Operation - a. Person of promoting b. Person of sharing c. Person of encouraging

4) Disciple-maker in ministry

3. The Church Participation for the Field Seminary

1) National Church (field) - a. Responsibilities in the recruitment b. Resources for the operation

2) Missionary Church (home) - a. Partaking in the personnel need b. Partaking in the material need c. Partaking in the spiritual need

Conclusion: Problems and Prayer.

②-17 러시아의 선교도전

알렉세이 비치코프 러시아 All Union Council 사무총장

②-18 남미의 선교도전

랜달 위티그 Desarrollo Christiano Internationl 디렉터



Desarrollo Christiano Internationl의 디렉터인 랜달 위티그는 훈련프로그램들과 저널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돕고 있다. 나약대학과 윗튼대학원을 나와 남미에서 전도활동을 해왔던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14년 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했다. 현재 윗튼대학원에서 교육사역을 공부하고 있다.

1. Introduction:
2. The growth in most of the countries can be traced to the crisis in the social-economic systems:
3.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omething of the history of the conquest if we are also to understand Latin America.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s that affect ministry:

5. Keys for ministry: 1) Outsiders are often out - looked down upon. 2) Relationships must be built.

3) Understand their religious orientation: 4) Evangelism is needed in some area still:

6. Greatest need in Latin America is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of national leadership.

7. Evangelism is needed in some areas still.

8. Conclusions: There are real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ut they need to be met by people willing to understand and learn the culture, the history and what God has already done in Latin America. It will require significant sacrifice and humility to be used significantly. Long time commitments are needed to build lives and serve effectively the church in Latin America.

②-19 태평양시대의 북미 2세들의 역할

이원설 한국기독교연맹 이사장



최연소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최초의 주미 장학관, 경희대 부총장, 한남대 총장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연맹 이사장, 세계대학총장회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태평양 기독교학교연맹 명예회장.

②-20 아시아의 선교도전

최찬영 해방 후 최초 선교사



성서공회세계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 한국이 파송한 해방 후 최초 선교사로 1955년 태국으로 파송받았었고 아시아인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했고 최초로 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 총무로 봉사했다.

②-21 의료선교의 이론과 실제

전희근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선교부장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선교부장, World Med Missions 소속 의료단기선교사.

어떤 선교사가 모슬렘 나라의 병원에 파견되어 진료 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를 의료선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료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의료선교와 복음전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본 강의에서는 먼저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하고 의료선교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선교의 역사를 검토함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선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셋째, 신유(Divine Healing)와 현대의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인치유란 무엇이며 의료선교의 상황화 (Contextualization of Medical Mission)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이 아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의료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왜 모든 선교지의 선교부 내에 의료선교 사역이 있어야 하며 어떻게 선교사들이 의료선교의 총지휘를 할 수 있겠는가를 PHC (Primary Health Care - Alma Ata 선언, 1978)와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모델을 검토하며 토의하고자 한다.

②-22 아프리카의 선교

프레드 빔 AIM 사무총장



AIM(아프리카내지선교회)의 사무총장인 프레드 빔 박사는 럿거스대학에서 경제학과 응용동물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프리카에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또한 내셔널TV에서 성경과 과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21개의 <아프리카의 작은 유전자>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②-23 힌두권의 선교도전

줄리엣 토마스 인도 OM 여성사역 디렉터



토마스 여사는 인도의 OM(Operation Mibilzation) 여성사역 디렉터로 교회 내의 여성, 소녀, 부부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아르파나 국가기도 여성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토마스 여사는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사로 사역하였고 최근에는 인도 월드비전의 부의장으로 있다. 토마스 여사의 사역목표는 인도 여성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다.

1. Introduction

2. The Concepts & Contest of Hinduism - 1) Hinduism: A Religion Difficult to Define

2) Hinduism in Its Religious Context (A, Philosophic Hinduism B, Religious Hinduism C, Popular

Hinduism - a, temples & worship b, planets & their influence c, India as a Holy Land)

3) Main Features of Hinduism 4) Modern Trends in Hinduism

3. Christ for India - 1) Christianity: Hindu Perspective (A, Christianity as a Foreign Political Domination, B, Christianity is a Western Religion) 2) Christianizing in Ethnic Groups 3) Contextualizing Without Compromise

4. Communicating Christ to Hindus - 1) Bridges and Barriers 2) Do's and Don'ts

5. Conclusion - There is probably no greater challenge than to reach the Hindu culture in India. Juliet Thomas is here to elaborate on how Christianity, a predominantly Western Religion, can touch someone whose religion is predominantly Eastern.

②-24 북미원주민 선교도전

짐 해밀턴

②-25 교육적 선교사역 Educational Ministries

워렌 데이 AIM 선교지망자 디렉터

Warren Day is currently serving as the Director of Candidate Personnel for Africa Inland Mission International (AIM). He is responsible for recruiting and training new missionaries for a cross cultural ministry. He began working for Mrica Inland Missions International since 1969 as a teacher and dorm parent in Kenya for 9 years. Mr. Day received his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Math Education from Taylor University and received his Masters in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Currently he is attending the Alliance seminary. Mr. Day has published several works, one of which is the book Knowing God's Will.

1. Introduction

1) Biblical Basis. 2) The cross-cultural setting.

2.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 National Schools.

We recognize that education involves more than imparting knowledge. Christians who are professional educators, our responsibility is not only to impart knowledge, but to also build into the lives of our students. Educational programs have had major influences on spreading the Gospel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3. 지역교회와 선교

㉓-1 개(個)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운영

이원상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본 협의회(KWMC) 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1. 목적

2. 목표

- 1)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지상 최대 명령에 준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을 인식 시킨다.
- 2)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선교사 파송의 중요성을 교회가 먼저 인식하고 실행한다.
- 3)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사 파송을 통해 세계의 영적 필요성을 인식케 한다.
- 4)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사 파송은 기도와 후원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식케 한다.
- 5) 모든 성도들에게 지역 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지임을 인식시킨다.

3. 원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에 준하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그 원리로 한다.

4. 방법

- 1) 단기 선교사 파송 2) 장기 선교사 파송

5. 실제적인 예

본 예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선교의 일을 나눔으로 그 예를 삼아보려 한다.

6. 운영

현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협력선교를 운영 관리하며, 단기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교육 및 훈련을 운영 관리하며, 중앙선교회에서는 파송 선교사 및 선교지를 운영 관리한다..

㉓-2 교회와 선교

이상남 한인등대교회 담임



한인등대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중앙위원

교회와 선교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교회이다.

1. 신약 성서에 나타난 선교적 요청

선교의 개념은 구약에서 봉오리가 맺었고 신약에서 꽃피었다. W.O. Carver 교수는 "만약에 신약성서 안에 선교의 대명령이 없었다면 신약성경은 쓰여질 이유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신약성경은 오직 "선교사적 이상"이라는 조명하에서만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고전 15:1-4; 눅 1:1-2; 요 1; 행 4:20; 마 28:18-20; 행 5:42, 5:28, 17:6, 13-28; 계 11:15; 막 16:15; 눅 24:47; 요 20:21; 행 1:8; 행 2:42)

1) 땅끝까지 가라 2) 성령께 순종하라

2. 교회의 선교적 기능

교회는 선교의 에이전시(Agency)이다. 선교의 총본부장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본 받아 지으신 54억 인구를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계각국에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나아가 지중해 연안 일대 등으로 퍼져나가 예수를 전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님을 영적 지도자로 그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랐다.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다. 선교와 교회부흥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되므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 선교사의 후원을 물질에 그치지 않고 선교사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입체적 노력을 통하여 100%의 선교사역을 해야 한다 Samuel M.

Zwemer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받은 바 축복을 교회 밖으로 계속 내보내라고 세운 것이다" 라고 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환하게 비추므로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타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3. 목사와 선교

목사가 선교에 대하여 먼저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선교전략과 정책을 세워서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4. 교회와 선교훈련 프로그램

- 1) 전체 교인을 선교프로그램에 참여시킴
- 2) 효과적인 선교전략 수립
 - a. 선교사 선정 b. 선교지 선정 c. 전 선교활동 (Pre-Evangelism)
 - d. 선교사 정착 문제
 - e. 선교사역의 먼 앞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㉓-3 새벽기도운동과 교회성장

김삼환 서울 명성교회 담임



서울 명성교회 담임목사, 한국외향선교회 회장

㉓-4 지역교회 선교위원회 운영

조갑수 플러신학교 교수



1. Workshop의 목적
 - 1) 선교정책 2) 선교교육 3) 선교전략
2. 선교위원회 구성
 - 1) 선교위원회 구성 2) 선교위원회 운영원칙
3. 선교정책 수립단계
 - 1) 선교목적 달성 2) 선교목표 달성 3) 계획(Planning) 4) 실천(Action) 5) 수정(Correction) 6) 평가(Evaluation) 7) 목적 및 목표 재설정 8) 선교정책 수립단계 도표 9) 목표의 상호 관계성
4. 선교정책(개교회용 선교정책 초안) - 교실에서 배부됨 (5-10 페이지)
5. 선교교육을 위한 선교대회
 - 1) 선교관심 촉구 (간증, 세미나, 기도회, 선교보고) 2) 선교증보기도 3) 미니선교대회 기획 및 조직 (선교관심자 중심)
- 4) 전교회 각 부서가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 및 홍보 5) 행사진도표 (교실에서 배부)
6. 선교교육 내용
7. 선교의 현대동향 및 주요 과제들
8. 세계종교현황

기독교 17억, 회교 9억, 힌두교 6억, 중국의 전통종교 4억, 불교 3억, 토착종교 2억9천만, 기타종교 2억, 세속주의 8억.
9. 선교전략
 - 1) 선교정의 (Defining the Mission)
 - 2) 선교의 대상자와 대상자 선정 (The People to be Reached)

㉓-5 지역교회 선교동원

데이빗 메이스 ACMC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 디렉터



데이빗 메이스는 ACMC(교회선교위원회연합회)의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 디렉터로 지역교회를 세계선교로 동원하며 그 자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스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시간, 켄터지 지역의 ACMC에서 사역을 펼쳐 왔다. 테일러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후에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위튼대학에서 신학으로 M.A.를 받았다. 이집트, 케냐, 자이레, 과테말라에서도 사역한 경험이 있다.

1. Vision - 1) Pastor 2) Purpose 3) The Missions Leadership 4) The Biblical Foundation
 2. Management - 1) Policy 2) Strategy 3) The Mission Budget 4) Funding Methods
 3. Ministry - 1) Selecting and Supporting Mission Work 2) Educating the Congregation in Missions
 - 3) Prayer 4) Involving the Congregation 5) Growing Missionaries 6) Ongoing Training For Church Leaders
- Conclusion: This workshop explores three major components of the ongoing missionary involvement of the church: vision, management, and ministry.

㉓-6 지역교회의 선교계몽

유태종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중앙위원

㉓-7 지역교회 평신도의 선교참여 방안

이병희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서론 - 교회의 존재이유를 G. Getz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둘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째가 예배적 사명이라면 둘째는 선교적 사명이다. 사도행전 1:8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선교사명인 것이다.

복음전파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역을 평신도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의 평신도(Lay People)의 위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배우고 잘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만 복음사역에 헌신할 것을 교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류구원 사역의 역군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은 평신도 복음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효과적인 평신도들의 선교참여를 계획 추진하여야 한다.

본론 - 선교신학의 McGavran 교수는 그의 저서 「교회성장 이해」에서 "교회성장은 선교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있으며 선교신학과 정책의 수립이 없이는 선교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평신도 선교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선교사명을 지닌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선교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전략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참여의 실례들을 열거한다. 교회 차원에서는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교사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선교정책을 세우며 년차별로 목표를 설정한다.

방안

- 1) 정규 특별집회시 선교상황을 소개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킴
- 2) 선교주일을 정하여 특별강사를 초청하여 선교의식 고취 (매월, 분기별)
- 3) 계획된 선교사를 위한 선교현금을 하게한다.
- 4)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선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후원
- 5) 각 선교회별로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후원케 한다.
- 6) 각 단체별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특수활동 권장 (바자회, 음악회)
- 7) 단체별로 교회선교부와 협의선교사업을 맡아 한다 - 빈민선교, 자매교회방문 등
- 8) 단기선교사파송을 권장하고 파송예배를 드린다.
- 9) 전문인 또는 직업인들을 선교지에 파견하여 선교현장을 체험케 한다.
- 10) 선교대회나 세미나에 교인들이 파견한다. 선교현신자들을 발굴 육성한다.
- 11) 담임목사의 선교여행시 평신도들이 동참케 한다.
- 12) 선교여행, 단기선교, 선교집회 등 참석 후 교회집회에서 간증케 함으로 많은 교인들이 도전을 받게 한다.

③-8 상황에 적응하는 지도력

김경옥 필그림침례교회 영어목회

필그림침례교회 영어목회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서론 - 현대의 목회나 선교활동 등 각종 사역에서 정적이고 틀에 박힌 지도력으로는 효과적인 사역을 담당할 수 없다. 효과적인 지도력 발휘를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미나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상황에 적응하는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상황에 적응하는 지도력"에 대한 정의

- 1)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에 대한 변화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 2) 각종 상황에 대한 연화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 3)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변화에 대한 기능이다.

2. 지도자의 분석력과 적응력의 중요성과 성령의 활동

각종 상황의 연화에 대한 분석력과 적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아울러 여러 사람의 각종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상황판단력과 분석력, 적응력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효과적인 지도력이 발휘될 수 없고,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력"(Servant Leadership)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특성적인 지도력과 적용적인 지도력의 접근

- 1) 특성적인 지도력은 지도자의 특성들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이다. 지도자는 역동적이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하는 등등이다.
- 2) 적용적인 지도력은 각종 행동에 대한 관찰하는 접근방법이다. 행동과 상황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적응 등의 방법이다.

4. 지도자행동의 모델들

- 1) 과업(업무)중심의 지도형태(권위주의자) - 목적달성을 위해, 지위와 권력, 권위를 사용한다.
- 2) 인간관계중심의 지도형태(민주주의자) - 구성원간의 자율적인 권위와 인간관계의 활력을 사용한다.
- 3) 오하이오주립대학 지도형태 - 선도적인 조직(Initiating Structure)과 사고(Consideration)의 지도형태이다.
- 4) 삼차원적인 지도형태 - '업무중심'과 '관계중심'의 2차원적인 개념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의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결론 - 사람들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각 사람들의 능력, 동기, 기술, 훈련 등에 따라서 분석력을 발휘하여 각종 연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적이고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㉓-9 선교와 이단

신성중 서울 충현교회 담임



서울 충현교회 담임목사

요즘처럼 이단이 많은 때도 드물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문 잡지 등에서까지 버젓이 난리를 피운다. 숨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일까? 게다가 사이비까지 합치면 한국은 가히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에 이단들이 진출하여 민족복음화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는(92년 1월 24일자 동아일보) 종교인구가 약 3만5천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1만명쯤 된다고 한다. 옛 소련이 종교에 자유를 주자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등이 벌써 전력을 다해서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북한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사이비요 이단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1. 이단(異端)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뜻 : 이단(異端) - 윌터 마틴, 성경구절, 웨스터 사전, 사이비와 이단의 구별은?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다섯가지 유형 -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 계시의 계속성 주장 2) 유대주의자 3) 금욕주의자 (골로새서) 4) 무법주의자 5) 가현설
2. 이단이 생겨지는 배경과 이단에 끌리는 이유
3.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식별법
4. 이단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교회지도자들의 역량 2) 정치적 사회적 안정 3)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함

㉓-10 평신도의 세계선교 참여: 문제점과 해결책

유효명 KWMC 평신도 위원장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위원장.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백년이 되는 198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평신도들은 아직 선교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해도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많은 교회도 "자체 성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교를 제2차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세계인구 54억8천만명 중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36억4천7백만명이나 되며 18억3천43백만명, 그 중 복음적인 신자는 5억4천만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갈 영혼들이 세계인구의 2/3인 것을 보고서 우리 크리스천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인교회는 자체 성장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한 채 성전건축이라던가 교세확장에만 열심을 내는 것 같아 신앙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성령충만을 외치면서도 개인 개인의 축복만을 갈구하는 Narcissistic한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비뚤어진 기독교인의 얼굴을 본다.

깨끗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 성도의 교제, 봉사활동 등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 교회밖에서는 매분 매초 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은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어 있다.

지상명령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생각되며 우리 평신도들의 세계선교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1) 개인적인 차원, 2) 제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㉓-11 지역교회 선교 재정관리

서준택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장로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장로,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1. 지역교회의 선교사명

2. 선교 계획과 예산

성공적 선교 재정관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짜여진 선교 사업 계획이 성립되어야 하며, 또한 그 선교의 목적이 뚜렷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재정적 예산이 명확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1) 선교사업 계획

2) 선교 재정 예산의 분류 - a. 전도적 재정 예산, b. 교육적 재정 예산, c. 봉사적 재정 예산, d. 행정 및 관리적 재정 예산, e. 사역 및 활동적 재정 예산, f. 선교사를 위한 재정 예산

3. 선교 재정 운영 관리

1) 선교 재정 수입 운영 관리

2) 선교 재정 지출 운영 관리

4. 결론 - 이 대회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한인세계선교협의회는 선교재정 운영방침과 재정/행정관리 (Administration and Finance Manuals for World Missionary Outreach) 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속히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미주에 있는 지역 한인교회는 세계 지구촌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선교의 지상명령에 모두 준수 참여하여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참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㉓-12 교회와 선교회의 관계 및 교회연합

전동식 씨에라비스타한인교회 담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씨에라비스타한인교회 담임목사.

㉓-13 교회와 서구 선교단체 간의 협력

테드 바넷

㉓-14 지역교회 청소년들의 선교자원 개발방안

박광자 나성영락교회 교육전도사



나성영락교회 교육전도사, 브라질에서 7년간 사역.

서론(Introduction)

1. 교회론 (Biblical Perspective of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 교회의 목적과 사명 (The Purpose and the Role of the Local Church Mission)
2. 청소년과 선교 (Historical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Youth in Mission)
 - 어제와 오늘의 청소년과 선교 (Youth of Yesterday and Today in Mission)

· 선교동향과 전망 (Trends in Mission)

3. 청소년 선교교육/훈련 (Practical Perspective of Youth in Mission)

- 실제적 방안 (Practical Suggestions and Steps)
- 실례 (Case Studies)

결론 (Conclusion)

㉓-15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운동

김상묵

㉓-16 지역교회 복음전도훈련

김선배 미국장로교총회 총무



미국장로교총회 한미목회 총무

1. 왜 전도해야 하는가?

- 1) 전도의 핵심 2) 전도의 동기 3) 전도의 세 가지 차원 - 말씀의 삶, 말씀의 행함, 말씀의 전파

2. 어떻게 전도의 장애요소를 극복할 것인가? -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 1) 부정적 이미지 2) 믿음의 불확실성 3) 배척의 염려 4) 사명감 결여 5) 어떻게 전도할 지 몰라서 6) 실패에 대한 우려

3. 복음의 접촉

- 1) 접촉의 중요성 2) 접촉의 원리 3) 접촉하는 사람의 자세 4) 접촉의 방법

4. 무엇을 전할 것인가?

- 1) 복음의 기본내용 - 하나님의 목적, 인간의 필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응답
- 2) 전도문의 사례 3) 나 자신의 개인전도방법을 개발하자

㉓-17 지역교회 선교의식개발과 교회발전

빌 월드롭 ACMC 실행 디렉터



윌리엄 월드롭은 ACMC(교회선교위원회연합)의 실행 디렉터로 미국 내는 물론이고 유럽과 극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다니며 열정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월드롭 목사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를 나와 공군에서 20년 복무했으며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으며 교회에서 목회로 10년간 사역하였다. 특히 동구권 철의 장막 뒤의 루마니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Introduction : Mobilizing for Missions - Supreme Leadership Test

1. THE UNDERLYING ASSUMPTION

- 1) World Evangelization - The Purpose of the Church
- 2) The Antioch Model (Acts 11:19-30; 13:1-3)
- 3) Definition of "World Evangelization" or "Missions"

2. THE TASK TO BE ACCOMPLISHED

- 1) What the Resources Are
- 2) Only the Church Has Them
- 3) Maximize Involvement of the People
- 4) Cross-Culturally- A Few Go, the Rest Send

3.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3 I's)

- 1) Information
- 2) Inspiration
- 3) Involvement

4. THE PEOPLE WHO MAKE IT HAPPEN

- 1) The Senior Pastor- His Unique Role
- 2) Missions Pastor or Other Responsible Staff
- 3) Missions Committee D. Governing Board
- 4) Pulling Them All Together

4. 타문화권선교

4-1 이슬람권 선교 - 이슬람교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전재욱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13년간 파키스탄에서 사역

1. 이슬람교의 이해를 위하여 - 1) 이슬람교의 세계관 2) 이슬람교의 구원관 3) 이슬람교의 여성관
2. 이슬람교의 그리스도 이해 - 1) 코란에 나타난 예수의 칭호: 이사, 예언자, 메시아
- 2) 코란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 탄생, 기적,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3) 코란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
3. 이슬람교가 보는 기독교인 상 - 1) 말씀의 사람들 2) 다신론자들 3) 서구문화의 모방자
4. 이슬람교에 대한 선교사명과 방법 - 1) 전통적 서구선교의 본보기 2) 한국기독교청년들의 선교사명 의식과 활동상황 3) 연구와 적용

4-2 불교권에서의 선교사역

김정웅 태국 선교사



지구촌선교회 소속 태국 선교사

서론 - 불교권은 약 10억이 넘으며 미전도 지역대상의 1/3에 해당되는 큰 블록으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복음전파가 힘든 나라들로 일본, 태국 등은 기독교인이 1% 미만이며 먼저 구원받은 한국교회를 통해 저들에게 선교할 사명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력투구해야 할 영역이다.

개요 - 주전 6세기에 인도의 Gautama Buddha 석가모니와 그의 교훈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초기 2,000여년 동안 전파가 활발했으나 그 후 500여년은 저조했다. 현재는 기독교 등의 자극을 받아 부흥운동과 선교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Animism이 강한 나라에서 활발하다.

1. 불교의 세계관 (Worldview)
2. 기독교와 크게 다른 점
3. 선교사역의 실제적인 전략들
 - 1) 영적인 능력 2) 복음전달자의 인격 3) 인내가 필요 4) 가족단위의 전도 5) 분명한 목표의식 6) 영적대결 7) 사회적인 봉사과 관심 8) 저들의 사회제도를 인정하며 선도하고 비성경적요소 제거 9) 불교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전도의 바탕 마련 10) Holistic Strategies
4. 실제적인 태국의 예
 - 1) 현지 지도자와 선교사와의 바른 관계성
 - 2) 축복 태국 (Blessing Thailand Project)
 - 3) 전도 후 제자훈련을 통해 전국적인 교회개척 운동
 - 4) 촌부리 선교센터 사역

결론 - 영적대결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소망이 있으며 현지 지도자들을 키워 저들을 중심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뤄 나갈 때 가능성이 있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광대하고 공효한 문이 열림.(고전 16:9)

④-3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 중동의 변화

김원호 터키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터어키 선교사, OM과 선교협력

지난 1991년 12월 13일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열린 이슬람협의회 기구 회원국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서 소련 위성국가였던 <아젤바이잔>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준했는데 흥미있었던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라파트가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비 이슬람교도들을 향한 종교전쟁을 주장했지만 온건 아랍국가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 회의 자체에도 이라크 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이슬람 국가간의 분열과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아랍국가들의 불참으로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람의 미래에 대한 한 세미나에서 이집트인 학자가 한 말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에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말하길 "이슬람의 세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 가운데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본 글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중동에서 발생한 초기 이슬람과 정치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슬람의 정복 역사와 변화를 통하여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중동에서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말세지말에 사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중동
2. 이슬람의 발생과 움마
 - 1) 이슬람의 발생 2) 움마
3. 이슬람의 정복 역사와 현재 동향
 - 1) 이슬람의 정복 역사 2) 현재 동향

결론 - 케네쓰 크랙의 글 「The Call of the Minaret」에서 회교사원에서 모슬렘 교도들에게 기도시각을 알리는 「에잔」 소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모슬렘 세계의 도전에 응하라는 암시적 부름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5중요청(five fold call)을 말하고 있는데 5중요청이란 이해, 봉사, 만회, 해석 및 인내에의 요청이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인들이 수행해야 할 회복 사업을 가리켜 '만회'(retrival)이란 말을 사용하여 이슬람이 생겨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회의 실패에서 기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찾게 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만회라고 볼 수 있다. 진정 중동 땅에서의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0억에 가까운 모슬렘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는 일에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중동의 얼어붙은 땅은 해빙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티븐 니일 주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본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슬렘들은 나사렛의 예수를 보고 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결코 그를 보지 못했기에 오해와 편견의 베일이 그들의 얼굴에 덮여있는 것입니다."

④-4 일본 선교의 문제점 - 神道

이근삼 고신대학 학장



고신대학 교수, 현 고신대 학장.

일제 말엽에 한국교회는 일본 신도 군국주의와 비장한 싸움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한국교회는 국가 민족과 함께 해방되어 자유하는 교회로 오늘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선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神道主義를 여러가지의 관점으로 분석한 후 일본의 한국 강점했던 시기에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그 신학적 배경을 열거하고 오늘날 일본에서의 선교적 대응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 국민의 심성에 배어 있는 신도
2. 신사 비종교회는 옳았는가?
3. 신사참배는 옳았는가?
4. 한국의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그 신학적 배경
5. 선교적인 대응자세

④-5 영성훈련

서삼정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1. 영성훈련의 필요성
 - 1) 시대적 요청 2) 참된 영성운동의 방향 - 교회운동 + 성령운동 + 경건운동
2. 영성훈련의 의미
 - 1) 혹은 영을 회복시키는 운동 2) 회복된 영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힘을 키우는 것
3. 영성훈련의 방법

- 1) 신령한 것 사모케 함 (고전 13:1) 2) 성령충만을 갈구케 함 3) 말씀에 사로잡혀야 함
- 4) 성결생활을 해야 함 (출 19:22, 28:36) 5) 성령에 순종 (갈 5: 16) 6) 전적 헌신

4. 영적훈련의 결과

- 1) 영안이 밝아짐 (겔 37:1-10) - a.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됨 (왕하 6:16) b. 천사 마귀 영의 세계를 더욱 알게 됨 (창 18: 19) c. 미래를 더욱 알게 됨 (환상, 꿈) (요 16: 13)
- 2) 영의 귀가 열림 - a. 영적 깨달음 (삼상 3:3) b. 말씀의 깨달음 (사 50:4) c. 세미한 주의 음성 분별 (왕상 19:12) d. 하나님의 뜻을 분별 (롬 12:2)
- 3) 영적 교제 (요 4:24, 롬 7:6, 롬 15:6)
 - a. 영으로 기도 (고전 14: 14) b. 영으로 찬송 (고전 14:15) c. 영으로 교제 (고전 2:11-12)
- 4) 영적 감화력 - a. 영적인 모습 나타남 (왕하 4:9) b. 강화와 감동을 준다 (왕하 3:15) c. 설교에 감화력 생긴다 (행 2:37)
- 5) 영적 권세 - a. 말의 권세 (왕하 4:16, 마 10:12) b. 마귀 다스림 (마 10:1) c. 영적 담력 (딤후 3:13) d. 일에 권세 (눅 9:1)

4-6 복음선교와 신학교육

이정근 LA유니온교회 담임



LA유니온교회 담임목사, 세계선교대학 학감

1. 교육선교의 명령
2. 선교사와 신학교육 - 1) 신학교육기관을 창설하여 경영하는 일 2) 기존 신학교육기관의 전담교수
- 3) 신학생의 현장교육 지도 4)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신학교육
3. 신학교육의 목적 - 1) 선교사 육성 2) 목회자 육성 3) 신학자 육성 4) 평신도 지도자 육성
4. 학제
5. 커리큘럼 - 1) 영성 훈련모형 2) 학문성 훈련모형 3) 전문성 훈련모형 4) 지도성 훈련모형

6. 학생과 교수
7. 교수방법
8. 시일과 재정
9. 신학교육의 토착화
10. 맺는 말 - 선교가 시작될 때에 신학교육도 시작되어야 한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신학교육이 있어야 한다. 혹은 신학교육 자체가 바로 선교이다.

4-7 시청각을 통한 타문화권 선교

홍춘만 샌디에고한인장로교회 담임



샌디에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크로스웨이 세미나 강사

서론 : 시청각 교재의 교육적 효과.
 대뇌 좌우반구의 활용과 기억력의 효과
 Crossway 성서연구 (저자 Harry N. Wendt)의 시청각 교재 활용
 - 그림은 언어, 인종, 나라, 지역, 역사, 남녀노소를 초월한 만인 공통의 언어이다.
 -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천연색 그림과 슬라이드 화면을 봄으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한다.

- 시청각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성경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

본론 : 시청각 교재를 통한 성경연구의 실제 활용

1. 구약의 주제들
 - 1)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 2) 천지창조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내용 개관
 - 3) 창세기 1-11장의 구조와 그 주제 4)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사명
 - 5)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6) 역대의 왕과 그 나라와 포로생활
 - 7)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 8) 바벨론 포로 생활과 엄청난 소식
 - 9) 포로 후 시대와 새 이스라엘 10) 하나님의 나라
2. 신약과 그리스도(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 1) 성경에 관하여 2) 세례와 출애굽 사건 3) 삼위일체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4) 성경의 핵심- 율법과 복음
 - 5) 메시아의 연회 - 주의 성만찬 6) 교회론 7) 기도과 주기도문 8) 종말이 올 때 9) 이단론 10) 구원받은 자의 할 일

④-8 지역사회개발선교전략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정인찬 휴스톤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를 취득하였고 휴스톤한인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휴스톤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대백과사전 (편저자)」, 「은사와 은혜」, 「젠티성경교재 시리즈」 등이 있다.

④-9 성경번역을 통한 토착교회 개발

마릴린 라스즐로 파푸아 뉴기니 언어학자/선교사



마릴린 라스즐로는 파푸아 뉴기니의 고립된 세픽 종족 가운데서 1969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는 언어학자다. 바이란대학에서 B.A.를, 인디애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현재까지 세픽 종족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들의 언어로 마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전후서를 번역했다. 신약성서 전체를 번역하는 목표로 사역중이다.

④-10 선교사의 가정생활

폴 넬슨 선교사인턴쉽 회장



폴 넬슨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선교사인턴쉽(Missionary Internship)의 회장이다. 테일러대학에서 종교학으로 BA를, 교육으로 BS를 받았고 웨인주립대학에서 교육 지도력 테크놀로지 분야로 MEd를 받았다.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서 교육감독과 교사로, 또 마닐라와 나이로비에서 선교사자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 의장으로도 섬겼다.

1. FAMILY PRIORITIES AND MISSIONARY SERVICE

- 1) Family and Ministry 2) Family Versus Ministry 3) Family in Ministry

2. CROSS-CULTURAL LIVING

- 1) Which Family System Do We Model? 2) What Support System ? 3) Does the "Mission Family"

Take in New Families?

4) How Is My Family Connected to the Mission System? 5) What Response To Radical Change?

6) How Is My Family Connected To Our Family Of Origin? 7) What Impact Will Living Overseas Have On Our Family?

3. FAMILY LIFE CYCLE AND MISSIONARY SERVICE

1) Unattached Young Adult 2) Establishment 3) New Parent 4) Pre-School Family 5) School Age Family

6) Adolescent Family 7) Family With Young Adult 8) Empty Nest - Aging Family

4. RETURNING HOME

1) Cultural Identity 2) Third Culture Children 3) The Best Of Both Worlds

④-11 선교지의 권능사역

티모시 워너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 프로그램의 교수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티모시 워너 박사는 테일러대학을 나와 뉴욕대학과 인디애나대학에, 뉴욕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시에라 레온에서 사역하기도 하였으며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영적무장을 위한 다수의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 <신학교에서의 일반교육의 위치와 발란스 잡기> 등이 있다.

④-12 공산체제의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

앤드류 세먼칙

④-13 로마카톨릭권 선교에 대하여

김유식 필리핀 선교사



필리핀신학교 교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필리핀주재 선교사

오늘날 세계선교 환경변화에 있어서 특기할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로마카톨릭권에 대한 관심이다. 숫적으로만 보아도 카톨릭교도는 980,769,300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의 18.2%에 해당하며 앞으로 2000년대에는 1,144,000,000명(이는 세계 인구의 21.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같은 연도의 개신교인구의 약 3배에 해당한다 - David B. Barrett).

그러면 로마카톨릭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떤가? '카톨릭은 이단인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만일 구원이 있다면 어떤 선교전략상의 관계 모색이 필요한가? 만일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중요한 선교영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나 이에 대한 해답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간단하게 "저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저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단순논리로가 아니라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각하게 묻고 대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카톨릭에 대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초보단계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복음주의적 입장의 교회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입장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14여년 동안 카톨릭권인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씨름도 있었고 나름대로 관찰도 있었지만 본 지면에서는 카톨릭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현지 선교사로서 카톨릭권 선교에 대하여 몇 가지 서술하고자 한다.

1. 로마카톨릭권 선교의 필요성
2. 카톨릭권 선교의 가능성
3. 한국교회의 카톨릭권 선교의 적합성(適合性)

이제 바야흐로 세계선교는 총력 선교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 모든 크리스천,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가 함께 힘을 모두어, 모든 정보와 모든 미디어를 공유하며, 모든 방법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러기에 Hidden People Group을 찾아서 밀림과 오지를 뚫는 선교와 동시에 고도의 문명사회의 위안 길에 버려진 도시 빈민을 찾아가야 하며, 활짝 열려진 공산권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종교권의 문을 순교를 각오하고 두드리는 선교와 동시에 기독교 문명권 속에 명목 신자로 안주하는 카톨릭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14 선교지의 신학적 기초

성기호 성결교신학대학 학장



성결교신학대학 학장

타문화권에서 선교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보수진영과 자유주의의 입장이 다르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토착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복음의 내용도 이에 따라 변화해야 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은 다를지 몰라도 전해져야 할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이 복음주의의 입장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하며 동일한 복음을 전한 것이 타문화권 선교의 모범이 될 것이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생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재림의 날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적 선교는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④-15 한국교회 발전과 네비우스 선교방법

정석산 로스엔젤스제일장로교회 담임

로스엔젤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1. 머리말
2. 한국교회 성장 과정과 발전의 개요
3. 네비우스 선교사와 한국교회
4. 네비우스 선교 방법과 한국교회 - 네비우스 선교 방법과 그 이념은 그의 저서들과 그에 관한 연구문서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 골자는 다음의 세 대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 2)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운동은 토착적이어야 한다
 - 3) 선교는 교육적인 면에서 진보적이어야 한다.
5.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대한 평가 -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방법에 대한 무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영향이 높은 수준의 학과 학자 양성을 저지시키어 교회의 사회참여에 빈약케 했다. 둘째, 3자(자급, 자전, 자치)적 교회운동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그리고 한국민족을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셋째, 자급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에 빠졌다. 위의 비평에 대해 생각해 보면
 - 1) 교육 수준에 관하여
 - 2) 개 교회주의와 물질주의에 관하여
 - 3) 민족주의에 관하여
6.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귀함이 바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
7. 맺는 말

④-16 성경번역은 어떻게 하나?

포레스트 젠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미중북부 지역 디렉터



포레스터 젠더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의 미국 중북부 지역 디렉터로 위클리프에서 20년간 사역해 온 베테랑으로 콜롬비아/파나마 지역에서 파일럿/수리공, 그리고 필드 디렉터로 선교사의 사역을 하기도 하였다. 시카고 무디신학교에서 항공을 전공했으며 현재 신약성경이 16개의 언어로 번역되는 마지막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선교대회와 세미나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1. The Need for Translation
 - 1) Over 6,000 languages in use in the world today.
 - 2) Over 3,000 languages without God's Word
 - 3) How Wycliffe Bible Translators fit in.

2. The Tools for Translation

- 1) Phonology 2) Grammar 3) Literacy 4) Anthropology 5) Translation problems

3. The Results of Translation

- 1) Evangelism 2) Church planting 3) Trained Indigenous leadership

4. The Commitment to Translation

- 1) How it fulfills the Great Commission 2) The translator as a catalyst
- 3) Could I be a translator? Could I recruit someone who would be if he/ she knew about the need?

④-17 선교사의 자녀교육

로저 다이어 웨이스아카데미 관리감독자

현재 선교사자녀들을 위한 학교인 웨이스아카데미의 관리감독자로 있는 로저 다이어는 20년간 호주의 공공학교에서 행정담당으로 일하다가 80년대 초반 웨이스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짜는 일을 맡아 미국 외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껏 사역해 오고 있다. 저서로 <호주의 아이들은 무엇에 반응하는가?> 등이 있다.

1. Introduction
2. What is Education?
3. Two Questions:
 - 1) Is this what the Education of MKs really is?
 - 2) Why is the Education of MKs different?
4. Question 1-The Greatest Educational Influences on the MK are:
5. What are the various options available for our children?
6. How to choose the best method of education for an MK Ask:
7. Other practical questions to be asked include:
8. Other factors which may influence the choice of MK education
9. Question 2 - Why is the education of MKs different?
10. Conclusion

It has been said that the education of MK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s' ministry and the length of the missionaries service overseas. MKs are precious and because of their cross cultural heritage,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even more effective than their parents as world Christians.

④-18 이슬람권에서의 선교사역

정재화 방글라데시 다카 연합신학원

방글라데시 다카 연합신학원 교장,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역사 즉 모슬렘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중세기의 12차례의 십자군 전쟁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슬렘들이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은 강도요 약탈자였다. 더욱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 영국은 그들의 노동력, 생산력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착취해 갔으므로 백인인 영국인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은 착취자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많은 구제와 기술개발,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그 나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인상이 심기워졌다.

방글라데시에 현재 헌신된 기독교인이 몇이나 될까? 윌리엄 케리가 복음을 전한지 지금 꼭 200년이 되는데 기독교가 겨우 0.1% 정도라면 우리나라보다 앞선 방글라데시 기독교 역사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몹시 가난하므로 또한 돕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태풍, 홍수의 물결을 무수한 인명을 앗아가고 그나마 있는 농작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우리는 여지껏 실패 속에서 여러 방법으로 일해왔다. 소득중대가 어떻게 하면서 염소분양도 했고 유치원, 성경클래스, 여고 운영, 아픈 사람을 도와 병원을 오가며 돕는 일 등.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다. 내 얼굴을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은 있어도 목사인 내게 복음을 듣겠다고 초청하는 자들은 없었다. 나의 이름은 - 실상은 별로 돕지도 못했는데 - 도와주는 사람으로서만 널리 알려져 있었다. 현재는 신학교와 교회개혁만을 주력하는 우리들은 신학생들에게 복음전도시 처음부터 헌신하는 기독교인 만드는 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정하고 "첫째,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마을로 가서 전도한다. 둘째, 복음과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은 복음으로써만 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리의 이 전략과 원칙을 아는 방글라데시의 친구 목사들은 이런 식으로 10년이 걸려도 교회 하나 개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평생에 하나라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힌두마을 아마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학생 중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진 학생에게 약을 주어 도와주도록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그 전도사에겐 모든 동네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약 달라"고만 했지 복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마을은 실패지역이 되었다. 촌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랜 지병인 불치라던 해주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여러 돕는 일들과 병행해서 복음을 전하다보니 도움받는 일이 습관화되었고 동시에 복음은 약화되고 변질되어감을 느꼈다. 즉 예수는 돕는자로서만의 인식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전도처 중에는 단지 도움을 받으려고 출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가끔씩 전도나간 학생들이 "전도지역 마다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무물을 파주거나 자그마한 학교를 지어주자"고 타협을 요구해 왔으나 단호히 거절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면서 그들이 그 반지의 가치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억지로 그들에게 다이아반지를 주기 위해 맛있는 빵을 주면서 제발 좀 이 반지를 끼어달라고 사정할 필요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이 복음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왜, 복음과 함께 병원을, 학교를, 식량배급을, 기술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결코 이런 여러가지 돕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 민족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것과 복음을 함께 전하지 말자는 것이다. 돕는 일은 하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돕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한 후에 돕는 사람이 아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게 해서 헌신된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전도할 때 봉사자와 전도자를 따로 세우던 그 공식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적용됨을 알고 나는 실행할 뿐이다.

④-19 남미의 영적상황과 선교

허원구 칠레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칠레 선교사

1. 서론

2. 정복과 박탈의 땅 남미

- 1) 오래된 피해의식 2) 뿌리의식과 역사의식, 가치관의 결여 3) 아직도 남아있는 피지배민족 근성
- 4) 민족주의

3. 남미 카톨릭의 영향

- 1) 남미 카톨릭의 시작 2) 카톨릭의 영향 3) 마리아 정령신앙
- 4) 남미카톨릭의 위기 - a. 신부의 절대 부족 b. 해방신학의 문제 c. 개신교의 맹렬한 추격
- 5) 카톨릭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대책 - a. 제2차 바티칸공의회 (1962-1966) b. 카톨릭 성령운동 c. 새로운 전략

4. 남미 개신교회의 상황

- 1) 괄목할 만한 성장 2)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압도적 3) 전통교회의 침체 4) 전통교회와 오순절 계통 교회의 현저한 양분
- 5) 남미의 개신교세력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 6) 사회정의 문제와 경제문제 7) 아직도 현존하는 카톨릭의 핍박.
- 8) 남미적이며 성서적인 건전한 신학확립의 요구 9) 교파주의 극복의 요구 10) 남미인 주도의 선교운동 확대

5. 남미선교의 과제

- 1) 철저한 3자 저책 (자립, 자치, 자전도)에 의한 선교정책 수립 2) 중산층 이상의 전도 3) 대학생 전도
- 4) 복음의 취약지들 5) 미전도 지역 6) 지도자 양성과 제자훈련의 시급성 7) 남미인 선교사 파송

6. 결론

④-20 선교사의 인격훈련

김득렬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중앙위원장

1. 기독교 복음과 선교와 선교사
2. 선교사의 정체 (正體, Identity)
3. 선교사의 소명
4. 선교사의 준비
5. 선교사의 개인생활
6. 선교사의 가정생활

7. 선교사의 공(公)생활

④-21 선교지의 교회개척

주진국 케냐 선교사



미주성결교 파송 케냐 선교사, 아프리카선교정보원 원장

1. 왜 교회개척이 필요한가? (Why Church-planting)
2. 교회개척자 (Church-Planter)
 - 1) 교회개척자의 자격 (Qualification of church planters)
 - 2) 교회개척자의 분류 (Classification)
 - 3) 신학적 요소 (Theological factor)

3. 선교지 상황과 교회개척

- 1) 토양검사 2) 상황적 고려 (Situational Consideration) 3) 교회개척 유망지역 (교회성장의 입지 조건)

4. 교회개척의 실천

- 1) 교회개척 전략의 3원리 (Three principles of the church planting strategy)
- 2) 교회개척의 실제 3단계 : 본 의제의 가장 중심적 논의
 - a. 계획 (Plan) b. 준비 (Preparation) c. 실행 (Practice)
 - 예비단계 (Preliminary Step)
 - 실행단계 (Implementation)
 - 이양단계 (Leadership Transition)

5. 교회성장 이론의 허와 실

수많은 책자들이 교회성장 이론에 대하여 긍정적 논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특별히 선교현장의 선교사들 중에는 그같은 이론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의 과제는 논의된 좋은 이론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융통성있게 적용하느냐 하는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④-22 선교사역 신임방안 및 정책

고인호 필라임마누엘교회 담임



필라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선교신임위원장

지난 88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후 이듬해 10월에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모인 한인세계선교협의회에 년차총회에서 "선교사역 신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무슨 방안과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부득이 선교사역 신임위원회가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조직이 되었다. 그러면 선교사역 신임문제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들이었던가?

어떤 선교사가 신임할 수 있는 선교사이고 어떤 선교사가 신임할 수 없는 선교사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모르는 교회에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인세계선교협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할 자가 누구인가 하여 89년 년차총회에서 이 일을 맡아하기로 결정하였다.

1. 역사적 고찰 2. 방안 3. 해결책

④-23 선교사의 안식년 및 후생복지

리처드 윈첼 TEAM 총괄 디렉터

리처드 윈첼 박사는 1975년부터 TEAM의 제너럴 디렉터로 사역해 오고 있다. TEAM은 북미주에 있는 가장 큰 해외선교단체 중 하나로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재생산하는 현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윈첼 박사는 IFMA(초교파해외선교협회)의 신탁이사회 회장으로 도 사역하며 북미 전지역에 걸쳐 여러 교회, 신학교,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Richard Winchell has served as General Director of TEAM since 1975. TEAM is one of the larger foreign mission agencies based in North America. TEAM's purpose is to help churches send missionaries to plant reproducing churches in other nations. Dr. Winchell also works as Presiden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and as a speaker in churches, Bible schools and seminaries, and conferences throughout North America.

④-24 제3세계 지도자개발 및 선교전략

이종형 뉴욕믿음장로교회 담임



뉴욕믿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서론 -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2천년간이 지났으나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전 인구의 5분의 3이 넘고 숨겨진 부족이 16,750부족이다. 2000년이 되면 예상되는 62억중 80%가 제3세계에 있고 그 75%가 아시아에 있게 되고 아시아의 복음화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은 제3세계 지도자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오늘의 현실과 문제 - 지난 2천년간의 선교의 중심지는 로마, 스페인/포르투갈, 화란, 독일, 영국, 불란서, 캐나다 및 미국 등 주로 서방세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3세계 국가들은 선교를 받는 대상국가였으나 변화가 일고 있다.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장과 식민주의와 관련된 백인 위주의 선교정책의 실패 등과 같은 여러가지 영향과 선교지 교회의 성장, 민족의식 등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의 정립이 형성되었다.

2. 제3세계 교회의 선교참여 - 제3세계 국가가 발전하면서도 교회도 발전하였는데 1980년을 기점으로 서방/비서방 국가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비서방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복음화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서 선교국과 동반자 관계 및 타민족 선교를 시작하고 있으며 과거 역사적인 동일 피해자로서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함으로써 선교의 효과가 더 큼을 볼 수 있다. 제3세계에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0만명의 제3세계 선교사가 파송될 것이다. 아울러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외에 이들은 자기 민족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 또한 많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제3세계 지도자 개발과 선교전략 - 현재 제3세계 선교사나 제3세계 지도자개발이라는 주제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방선교사들이 피선교지 교회지도자들과 선교지 교회를 동등의 위치에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에 비서방교회지도자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

- 1) 제3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
- 2)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결론

④-25 힌두권에서의 선교사역

김영자 인도 선교사



힌두교의 일반적인 상식 (인도사람들의 일반적 종교의식)

1. 인본주의적 신관

2. 운명론자들 : 곧 카스트 제도대로 살아간다.

Bramins - Chetris - Vaisyas - Sudras

이것이 인도인들의 운명이며 정치철학이며 또한 종교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아무 불평불만이 없으며 설사 있다해도 표현되어 질 수 없는 그들의 혈관 속에 피와 같다. 길에서 태어나서 불평없이 길에서 운명하는 수가 전체인구의 7-8%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인도의 형편을 보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 왔는지는 짐작이 된다.

- 1) 공홀이 여기는 마음
- 2) 선교사와 힌두교
- 3) 복음과 힌두교의 접목
- 4) 구령사업에 힘쓰는 주의 종들

3. 기독교에 대항하는 힌두교

RSS Movement (The Rashtriya Swayamasevak Sangh)와 VHP(The Vishva Hindu Parshad) Reformed Hinduism 등 힌두교 열성분자들. 이러한 힌두교 국가에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지는 오직 성령의 역사뿐인 줄 안다. 미련한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선교사역 속에 있다.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의 지혜를 함께 받아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1) 신은 다 같다고 믿고 있는 힌두교사상이 혈관에 타고 흐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심어줄 수 있는가?
- 2) RSS나 VHP 등 복음을 대항하여 맞서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 3) Rich Christian의 별명을 벗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길은?
- 4)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넘어 선교할 수 있는가?
- 5) 서남아시아에는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고 더욱이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힌두교국가들(인도, 네팔) 안에 어떻게 머물러 선교를 할 수 있는가?

④-26 선교사의 영성관리

김남수 뉴욕순복음교회 담임



뉴욕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4-27 성경번역**데이빗 커밍스 호주 위클리피성경번역선교회 회장**

호주 위클리피성경번역선교회의 현 회장이자 디렉터로 있는 데이빗 커밍스는 위클리피에서 34년간 사역하였고 회장으로는 10년째이며 파푸아뉴기니에서 7년간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도 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지의 위클리피선교회에서 행정가로 섬겼다. 남태평양대학원에서 성경공부와 사역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5. 특수선교

㉮-1 기능인(농업) 선교에 대한 주장

조성범 그루터기선교회 대표



그루터기선교회 대표

선교 200년을 향한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선교라는 명제 앞에 나뉠대로의 열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 서 있다. 어쩌면 이런 열정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를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선택 앞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선교는 지나온 선교역사들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오늘의 선교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기 작은 부분에서나마 선교전략에 관한 것을 진술해 보려고 한다.

1. 선교의 현주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왜 기능인 선교를 주장하는가?
3. 이중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
4.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2 선교지에서의 전문인 선교: 학원선교 중심

한정국 OMF 선교사



OMF 선교사, ACTI 선교훈련원 원장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이 분해되고 모슬렘 지역도 여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경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더욱 연동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최근의 기술 발전과 함께 세계는 한 지구촌처럼 좁아져가고 있다.

선교의 형태도 종래 순수 선교사의 전통적 선교사 형태에서 선교지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직업을 가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비거주 형태의 선교사 등 여러 선교방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 전문인 선교의 성서적 지혜
2. 교회사에 있어서의 사례
3. 대학생 선교의 중요성
4. 한국인들의 사례
5. 한정국 선교사 (본인)의 사례연구
6. 전문인 선교사의 잇점과 불리한 점
 - 1) 이점 - a. Visa 획득의 용이함 b. 가정의 개방 c. 마음을 여는데 도움 d. 삶으로 보여줌 e. 입을 열 수 있는 기회와 대상이 많음
 - 2) 불리한 점 - a. 상당한 시간이 전문직업에 소요됨 b. 선교의 기회가 적을 수 있음 c. 만족감의 부족
7. 전문인 선교사의 준비와 사역

㉔-3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

조동진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원장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원장, 윌리엄캐리대학 교수 겸 고려연구소 소장

1. 공산 정권아래서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2. 역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한다.
3. 통일 조국의 교회는 민족교회라야 한다
 - 1) 통일 조국에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 2) 민족 교회의 신학적 바탕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3) 민족 교회의 즐거움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가?
4. 대북 활동의 부정적 요소들이 여과되어야 한다.
5. 순결한 신앙 양심으로 차분하고 지혜롭게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㉔-4 방송과 선교 : AD2000 Movement를 중심으로

송용필 서울 햇불교회 담임



서울 햇불교회 담임목사, 극동방송 부사장

1. AD2000 Movement - 이 운동은 주후 2000년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믿고 안 믿고의 결심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맡기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이에 임하자는 것이다. 토마스 왕 박사가 이 운동의 총재로 있고 94년에 이 운동을 위한 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 1) Adopt-A-People Movement (한 종족 양자삼기 운동)
 - 2) One-Fifty Movement (오십명에 한 선교사 파송 운동)
- 3) The World Literature Crusade (세계 진도문서 배포계획) 4) New Life 2000 (새생명 2000운동)
- 5) Bold Messian Thurst 6) Charismatic Inetlatives 7) Discipling A Whole Nation Movement (DAWN) 8) Mission 2000
- 2, The World by the year 2000 (약칭 WB2000) - 현재 지구상에는 5,445개의 종족언어(Heart Language)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언어(Trade Language)는 2767M로서 세계인구 97%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WB2000은 주후 2000년까지 이 276개의 언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 운동에는 세계의 4대 선교방송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의 기획단계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요 언어는 276개였으나 최근 인구의 증가로 3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계획의 초청이 불가피해 졌다.
 - 1) HCJB World Radio 2) FEBC (Far East Broadcasting Co.) 3) TWR (Trans World Radio)
 - 4) ELWA (Eternal Living Wenning Africa)
- 3,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 - 하나님께서는 버려지고 축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위대한 도구인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셨다.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이것은 최대의 신앙부흥으로 연결 것이다.

한국교회는 시야를 넓혀 AD2000 Movement나 WB2000 같은 세계적인 선교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이 운동의 선두에서 있는 귀한 방송기관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일을 폭넓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㉔-5 대도시 선교

김충모 일본 시부아복음교회 담임



일본 시부아복음교회 담임목사, C&MA 소속 선교사로 83년부터 사역

㉔-6 인형극 이론과 실재

신관홍 햇불인형극 선교단 대표



햇불인형극 선교단 대표

머리말 - 어린이들의 애완 놀이감으로 만들어졌던 인형들이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극화되어졌고 이제는 연극의 장르에까지 파고들어 확고한 무대 예술의 위치를 굳히면서 다양한 모양의 인형들이 개개의 개성이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형극이 말씀을 전하는 시청각 특수선교에도 크게 사용되고 있다. 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깊은 감동과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듯 심취할 수 있는 힘을 자극으로 줄 수 있으므로 집회를 인도할 때 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결신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 인형극

1) 정의 2) 인형극이 공연되는 목적 3) 인형극의 효과 4) 극본상의 유의점

2. 인형놀이(Puppet Show)

1) 인형놀이의 필요성

2) 인형놀이의 효과

a. 노방전도 할 때 b. 동화할 때 c. 광고할 때 d. 소란한 분위기를 조용히 할 때 e. 분반공부 할 때 f. 야외예배 갔을 때

3. 인형의 종류

1) 줄 인형 (마리오넷) 2) 장대 인형 (로디파펫) 3) 손 인형 (핸드파펫) 4) 손가락 인형 5) 병 인형

6) 탈 인형 7) 바가지 인형 8) 복화술 인형

4. 인형제작

5. 무대 및 배경 제작

6. 인형 조정

⑤-7 북한교회 재건과 한국교회의 사명

김명혁 서울 강변교회 담임



합동신학교 교장, 서울 강변교회 담임목사, 한국복음주의협회 총무

남북통일이 온 민족의 염원이요 온 교회의 기도제목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염원과 기도는 남북통일이라기 보다는 북한선교와 북한복음화라고 하겠다. 물론 분열은 최악의 결과요 통일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민족통일이라기보다는 민족복음화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 자세는 북한선교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며 북한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기도제목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선교와 북한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사명과 과제가 무엇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우리의 준비

는 무엇인가?

1. 북한의 실상

- 1)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수준이 매우 빈곤하다.
- 2)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종교로 온통 물들어 있다.
- 3) 북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으며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 4)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과 봉수교회는 선정용 어용집단이다
- 5) 북한의 종교정책에 다소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남한의 현실 - 개교회주의적 명예추구와 분열 및 물량주의적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는 남한교회는 과연 북한복음화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3. 남북대화와 교류의 현황 -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은 남북의 냉전을 종식하고 각각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공존과 동반자 시대'를 개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한의 교회교류는 매우 부진했다.

4. 북한선교의 현주소와 그 전망 - 북한복음화를 타문화권선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50여년 간의 분단으로 사상과 이념, 문화와 생활의 이질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북한이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곳이므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적합하다.

5. 북한교회 재건과 한국교회의 사명 - 방송선교 및 문서선교, 공산권 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봉수교회의 역할

⑤-8 문서선교와 그 영향

박도원 크리스천저널(미국) 발행/편집인



크리스천저널(미국) 발행인 겸 편집인

1. 의미 - 1) 그리스도의 편지 2)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교매체 3) 변질될 수 없는 자료
2. 효과적인 문서선교 - 1) 교회내의 출판물 발행에 대하여 2) 범교회적으로 해야 할 경우 3) 기독교 신문
3. 그 영향 - 1) 예수께서 쓰셨던 글 (요 8:6) 2) 말씀의 보존 3) 진리의 완성

⑤-9 북한병원선교 :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박세록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회장



디트로이트한인장로교회 장로,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회장

1. 서론 - 자유주의의 한국과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적인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 일찍이 한국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천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이 남북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된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선교의 역할을 맡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완수를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될 한국의 통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여야 할 임무요,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에 앞서 민간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사랑의 교류를 통하여 양자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확인함이 중요한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봉사, 의료협조를 통하여 기독교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북화해는 물론 북한의 복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우리의 사명 - 조국과 민족을 떠나 타국에서 객이 되었던 모세를 불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조국 땅을 떠나 이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남북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3. 북미 기독교의료선교회 - 의료봉사를 통해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작은 밑알이 되고저 디트로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독교의료인들의 모임이다. 그동안 4차에 걸친 북한방문을 통해 19명의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4차에 걸쳐 의학교과서 및 문헌, 의료기재, 의약품 등을 보냈다. 정치, 경제, 사상 등을 초월하여 의료봉사를 통해 동포들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 남북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다. 일은 크고 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4. 평양 제3병원 -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하심으로 평양 광복동에 500개의 bed를 갖춘 병우언을 건축 중이다. 이제 이곳을 통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의료 및 기타 봉사를 할 수 있고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남북화해에 이바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일이 시작된 것이다.
5.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운동 -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게 될 요람인 평양 제3병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과 기도로 후원할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㉟-10 선교지의 전문직 사역: 중국을 와서 도우라

이관숙 중국 지체장애자 구제사업후원회

중국 지체장애자 구제사업후원회에서 지체장애자를 위한 사역

1. 중국대륙 - 중국의 지리와 인구, 역사, 재래종교
2. 기독교전래 - 경교의 전래, 천주교의 전래, 기독교 전래, 선교사와 아편전쟁, 반기독교 운동, 중국교회 독립운동.
3. 중화인민공화국 종교정책 -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2) 선교사 철수 3) 공소대회 4) 문화혁명
4. 중국개방과 교회 - 1) 개방과 현대화 2) 삼자 애국운동 위원회 3) 중국 기독교 협회 4) 애덕기금회 5) 신학교육 6) 외국인 선교금지 7) 기독교 부흥
5. 기독교 통제 - 1) 부흥과 문제 2) 종교에 대한 기본정책 3) 헌법제정 4) 홍보
6. 12억 선교전략 - 1) 선교의 문 2) 열린 선교의 문 3) 사랑의 실천 4) 피부 전도
7. 의료봉사 - 1) 중국지체 장애자 2) 봉사의 깃발 3) 기술자 양성의 필요성 4) 많은 환자 5) 구제사업
8. 영적전쟁의 승리 - 1) 선교의 첩보전략 2) 잊지 못할 사람들 3) 영적전쟁 승리의 날

㉟-11 향만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전철한 한국외향선교회 국제총재



한국외향선교회 국제총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남아프리카 선교사

서론 : 선원선교의 시급성

선원들은 직업 자체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관계로 그리스도의 몸과도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외된 생활을 함으로 이중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 오늘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은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다.

이렇게 선원들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더욱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양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선원들의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선원선교를 역사적으로 조영해보고 오늘의 상황에서 선원선교를 신학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선원선교를 통하여 세계선교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1. 선원선교의 성서적 근거 - 1) 외국인으로서의 선원 2) 어부로서의 선원 3) 가난한 자인 선원
2. 선원선교의 역사적 배경 - 1) 조직되기까지의 노력 2) 형성하는 단계 (1779-1864) 3) Continental Phase (1864-1900) 4) Ecumenical Phase (1900-1914) 5) Asian Phase (1914-Present)
3. 오늘의 상황에서의 선원 - 1) 그들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나? 2) 선원들의 삶과 일의 상태 3) 선원의 가족
4. 선원선교의 신학화 시도 - 1) 선원의 인권문제 2) 오늘의 해방세계에서는 종교적인 다원화 속에서 전도를 우선 3) 선원들의 상황에서 교회의 개념

결론 : 선원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⑤-12 세계선교의 정음(正音)과 복음(福音)의 상승효과

김석연 버팔로뉴욕주립대 객원교수



버팔로 소재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 버팔로한인교회 장로, 선교부장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그 시초부터 정음과 밀접한 유대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효과를 이루어 왔다. 이 정음과 복음의 상승(synergy)효과는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상호의존적,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곱해지고 배가되어 서로를 번식시키고 팽창케하는 작용을 말함이다. 이 양자간의 협동관계가 빚어내는 상승효과는 복음이 앞장섬으로써 정음이 일어난 경우와 정음이 앞서 가면서 복음을 전파시킨 경우로 대별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양자의 협력이 추진 에너지가 되고 있다.

1. 복음이 정음의 부흥을 초래한 경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인데 15세기 중엽에 창제된 정음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문과 한문문화의 강한 세력에 눌리어 한국인의 글자로서 독자적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1887년에는 신약전서를 처음으로 번역한 「예수성교전서」라는 번역본이 한자가 섞이지 않은 순 정음본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는 소위 <언문>이라고 일컬어지던 한글로만 출간된 최초의 책으로서 정음과 복음을 위해 새 역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순 정음>으로 번역된 복음서는 야학을 일으켜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혜택을 입은 이들은 대부분이 부녀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음>은 <암클>이라고도 불리었지만 당시 한국에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복음서는 <정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에 접함으로써 <정음문화>가 세종 당시의 <세종문화>처럼 강한 활력소를 얻어서 부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는 <정음>과 <복음>의 빛이 시온의 새 아침처럼 비취져서 말랐던 한국인의 정신적 광야에는 물이 흐르고 화초가 피고 한국의 선지자 세종대왕의 꿈꾸던 복을 한국인이 누리게 된 것이다.

2. 정음이 복음의 부흥을 일으킨 경우

리처드 언더우드 3세의 저서인 「한국 교회사」 서문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역사가 짧은데 비하여 빠르게 넓게 전파된 것은 <정음 한글: Alphabet>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글의 문자적 효율성을 크게 기린 바 있다. <말의 소리>와 <글자>를 신속히 익힐 수 있는 <정음>이 있었기에 한글의 복음화는 유례없이 빨랐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처럼 정음이 한국의 복음화에 미치고 있는 상승효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훈민정음 - 訓民正音」이라 이름한 근본 의도가 어리석은 백성을 하루 아침에 다 가기 전에 익혀서 문명의 빛에 접하게 하려는 세종의 애민정신이자 민본사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아는 우리로서 정음이 복음화를 앞당긴 일이나 복음화가 <정음화>를 촉진한 일은 훈민정음이 <천부(天父)의 글>로 이루어진 신인협력설(神人協力說, synergism)과 예정조화설(pre-established harmony)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음을 오늘 한국백성을 택하여 세계선교를 마무리 지으실 이유와 그에 따른 비전을 예견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3. 정음과 복음의 상승효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인의 세계선교적 사명

- 1) 중앙아시아 고려족을 위한 선교와 정음의 역할
- 2)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유일한 길은 정음이다.

⑤-13 선교지에서의 사회개발

김익배 국제협력기구소속 선교사



국제협력기구소속 선교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에서 교회개척, 지역개발, 교육, 의료선교

- 1. 사회개발의 정의
- 2. 선교와 사회개발과의 관계
- 3. 사회개발의 필요성
- 4. 사회개발의 범위
- 5. 선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개발

- 1) 지도자 훈련 2) 교회개척을 통한 사회개발 3) 교육을 통한 사회개발 4) 의료선교를 통한 사회개발
- 5) 공동체 운동 6) 복지시설 개발 7) 자립을 위한 자영농장

⑤-14 자비량선교 Tentmaking

크리스티 윌슨 고든켄웰신학교 세계선교학 교수



고든켄웰신학교의 세계선교학 교수인 크리스티 윌슨 박사는 프린스톤대학에서 B.A.를, 프린스톤신학교에서 M.Div.를 받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대학에서 이슬람 동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가 되기 전에 윌슨 박사는 테헤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사직을 하였다. 저서로 <오늘날의 자비량선교 - 세계선교의 대안전략>, <아프가니스탄: 금지된 추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등이 있다.

- 1. A TENTMAKING CONFERENCE IN SEOUL
- 2. A CASE STUDY OF TENTMAKING IN AFGHANISTAN
- 3. THE BIBLICAL BASIS OF TENTMAKING

- 4. THE HISTORICAL BASIS OF TENTMAKING
- 5. THE PRACTICAL BASIS OF TENTMAKING
- 6. DIFFERENT KINDS OF TENTMAKERS
- 7. MANILA CONGRESS STATEMENT ON TENTMAKING

⑤-15 사업과 선교 Christian Businessmen in Mission

드와이트 노드스트롬 퍼시픽리소스 사장



드와이트 노드스트롬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중국지사에서 일하면서 시장점유율을 1위로 올려놓은 탁월한 사업가다. 휴스턴대학에서 M.B.A.를 받았고 홍콩의 중국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하기도 했다. 1989년부터 그는 퍼시픽리소스사의 사장으로 중국과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서 기술자문과 무역업을 하고 있다.

- 1. Introduction 2. Mobilization 3. Recruitment 4. Training 5. Placement 6. Capitalization
- 7. Evaluation 8. Nurture 9. Networking 10. Conclusion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al/legal situations in the world demand that Great Commission Christians consider entering and staying "long-term" (3 or more years) in restricted-access nations as professionals with secular skills. These long-term tentmakers ("TMs") develop in fairly predictable and necessary life stages. The process has been broken down into 8 easy steps which Mr. Nordstrom will go into detail about.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박선숙 외항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싱가폴		
배상호 합동	상항중앙장로교회	임동하	김대경 대신/OM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백운영 PWM	영생장로교회(PA)	이용걸	박진구 기장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백현순 기감	시카고남부감리교회	박이섭	손중철 통합	서울영락교회	임영수
손진락 예성	토론토반석제일장로교회	김재열	이은무 PWM	시카고한인서부교회	조현배
송평구 기성	인천송현성결교회	장자천	한정국 OMF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신원태 합동	위싱턴북부장로교회	나광삼	Jun Vencer WEF 총무	뉴욕퀸즈장로교회	장영춘
신정식 통합	경북안동교회	김기수	베트남		
오승영 침례	갈보리침례교회	안영배	김영관 기감	뉴욕성서교회	김상모
유영록 기감	서울종로감리교회	나원용	인도		
윤형복 합동	자비부담	김충기	김영자 통합	Mid-Atlanta 한인장로교회협의회	목사균
이광수 침례	서울강남중앙침례교회	이동원		시카고미드웨스트교회	김대균
이광윤 침례/마을	위싱턴제일침례교회	이재형	정운진 합동	나성한인교회	김의환
이광재 기감	자비부담	김명혁	Juliet Thomas 강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평신도위원회
이교성 통합	미시간교회협의회		스리랑카		
이동구 개혁	서울강변교회		Ajith Fernando 강사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이명호	자비부담		태국		
이성찬 대신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강대홍 합동	헬로쉽교회(MD)	김원기
이원식 기감	자비부담		김성곤 합동/서문	위싱턴새한장로교회	김화일
이형숙 침례	서울평화교회	신영섭	김용식 기성	뉴욕순복음교회	김남수
전봉주 합동	벨리제일장로교회	전순영	김정숙 합동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김상묵
전순홍 기하성	자비부담		김정웅 지구촌	시카고성결교회	나운태
전준선 통합/마을	북부버지니아장로교회	황수봉	김종일 합동/서문	자비부담	
정두해 기감	신시네티감리교회	김상백	박문수 개혁	자비부담	
조국희 합동	위싱턴한인장로교회	김택용	박선진 지구촌	뉴욕장로교회	이영희
조용중 PWM	하일랜드기독교교회	조영익	박윤식 기성	부산수정동성결교회	남봉현
	시카고성결교회	나운태	송용자 합동/서문	대구서문교회	이성현
	뉴욕벨엘감리교회	박순중	신광준 기감	뉴욕후렛싱제일교회	이승운
진기화 감리	자비부담		신홍식 합동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최기득 기감	자비부담		윤수길 지구촌	위싱턴중앙장로교회	이원상
최기철 침례	자비부담		이교육 ACTS	서울영암교회	임옥
최봉호 합동	자비부담		이영기 기성	위싱턴제일침례교회	이동원
최세종 대신	뉴욕순복음교회	김남수	이용우 기성	아현성결교회	조원근
최수일 고신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김상묵	정도연 개혁	자비부담	
최정희 합동	뉴욕한인장로교회	이영희			
한도수 기장/마을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Met Castillo EFA 선교위원장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Roger Dyer	Faith Academy 교장				
Ben de Jesus	World Alliance Fellowship 회장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정석천 지구촌	시카고제일교회	강인덕	방글라데시		
조준형 통합	플러튼한인침례교회	김송식	박생민 그루터기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최옥희 지구촌	자비부담		박현수 고신	필라제일장로교회	김만우
황운수 개혁	부산수영로교회	정필도	송영선 현지	뉴욕빌라델비아교회	박재철
인도네시아			송희천 기감	하시엔다연합교회	고남철
김병선 PWM	서울홍릉교회	장경두	장순호 기감	밸리연합감리교회(CA)	차현희
김윤석 통합	락빌장로교회	최훈진	정재화 기감	뉴욕산정현교회	손영구
김익배 KIM	벤엘교회(MD)	송영선	Chhakchauak 현지사역자	뉴저지에텐장로교회	김철연
김종국 고신	마이애미장로교회	배현찬	Peter Sayed 현지사역자	자비부담	
서만수 합동	오랜지한인교회	양춘길	부르나이		
서성민 통합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정남식	김용만 세계오메가	휴스톤한인장로교회	김성만
석진용 파이디온	자비부담		말레이시아		
신방현 통합	에텐장로교회(Fullerton, CA)	손경호	노종해 기감	뉴욕후렛싱제일교회	이승운
안성원 PWM	뉴욕효신장로교회	방지각	파푸아뉴기니		
오석재 고신	자비부담		김남수 GBT	하트포드한인장로교회	김의승
오영호 OC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김학창 KOM	믿음장로교회	이종형
이금주 침례	삼버그침례교회	홍일천	이용섭 합동/GBT	휴스톤한인장로교회	김성만
	안디옥침례교회	석정문	홍성호 WBT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위키간침례교회	김기일			
이연송	자비부담		오세아니아		
이윤호 침례/KOMF	안디옥침례교회(VA)	양성연	뉴질랜드		
이현철 고신	가주말투스교회	김진섭	신종혁 통합	신우세계선교교회	임영규
임결철 WMP	한마음교회(CA)	정길수	호주		
조기술 합동	필라선교교회	김대승	홍관표	자비부담	
최수일 고신	필라한인연합교회	림택권			
한승인 통합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Petrus Ocavianus	강사 IMF회장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네팔					
박영진 합동	필라임마누엘교회	고인호			
이성호 통합	라성세계복음교회	이병희			
이춘심 통합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김득렬			
이상룡 고신	가주말투스교회	김진섭			
주선미 통합	자비부담				
M. Maharjan	현지교단총회장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p>● 중동</p> <p>터키</p> <p>김원호 합동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조용성 합동/CCC 산호세세계선교침례교회 강박내</p> <p>쿠웨이트</p> <p>정삼식 미주교신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이상훈</p>			<p>나이지리아</p> <p>김신자 SIM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김명숙 합동/SIM L.A.한인등대교회 이상남 성남용 합동/SIM 시카고서울교회 강덕수 Panya Baba 강사, ECWA총회장 동양선교교회 임동선</p> <p>스위질랜드</p> <p>김종양 남침례 워싱턴대성침례교회 황찬규</p> <p>보츠와나</p> <p>윤봉석 그루터기 로워박한인교회 김풍운 조성범 그루터기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전미령 그루터기 나성총현선교교회 정상우</p> <p>가봉</p> <p>김상옥 통합 올랜드한인장로교회 강재구 서울노광진교회 립인식</p> <p>지부티</p> <p>조성덕 기장 포레스트힐장로교회 양희철 이미립 기장 조권행</p> <p>탄자니아</p> <p>김정립 기감 뉴부른즈워감리교회 김인환 류재영 기감 뉴욕성서교회 김상모 최재선 통합 상향기독교교회연합회 장희선</p> <p>니제르</p> <p>임준표 합동 시카고갈릴리감리교회 이경희</p> <p>라이베리아</p> <p>조형섭 합동 자비부담</p>		
<p>● 아프리카</p> <p>이집트</p> <p>김신숙 합동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김진홍 기감 스테튼아일랜드연합교회 남학희 이준교 합동 서울총현교회 신성중</p> <p>케냐</p> <p>강성진 그리스도 시카고레이크뷰장로교회 이종민 강인중 합동 포트랜드중앙교회 전홍식 김순태 합동/AIM 시카고남서부교회 안성기 김승중 통합 뉴욕새소망장로교회 정도인 김철수 합동 필라한인연합교회 립택권 박상목 미국장로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서삼정 유부웅 기장 휴스톤한인교회 정인찬 임금희 통합 뉴욕퀸즈중앙장로교회 안창의 임연심 순복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이호선 주진국 기성 L.A. 유이온교회 이정근 최명은 합동 시카고벤엘교회 최병수 한성수 합동 뉴욕연약교회 박순오</p> <p>리비아</p> <p>김희윤 대신 자비부담</p>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당대표
우간다			파라과이		
김정윤 월드컨선	시카고헤브론교회	송용걸	강두호 세계복음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임옥순 합동	위싱턴순복음제일교회	이영훈	김성광 통합	뉴욕은혜장로교회	이승재
박숙경 월드컨선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장세운	김춘근 통합	서울소망교회	곽선희
CalebMaw Nguma	현지지도자	조권행	김철기 기감	뉴욕벤엘감리교회	박순중
Yonah Okoh	우간다교회감독회장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임성익 통합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남아공			수리남		
전철한 기성	오렌지중앙성결교회	허경삼	안석렬 합동	필라선교교회	김대승
이원희 기성	갈보리세계선교교회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가나			볼리비아		
박은생 고신/SIM	필라제일장로교회	김만우	김봉래 기성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이신철 고신/SIM	뉴저지제일한인교회	박재영	문익배 통합	북일리노이한인교회	안영철
				위싱턴초대교회	민대석
				뉴욕바울선교교회	정도인
				시애틀한인형제교회	심관식
				자비부담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시에라레온			아르헨티나		
박광석 개혁	위싱턴한인장로교회	김택용	김영화 합동	뉴저지안디옥교회	황은영
신대원 고신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신현국	이용근 세계복음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이은수 합동	자비부담	
			임훈철 합동	서울충현교회	신성중
			정현식 합동	서울평안교회	이성택
			원훈상	자비부담	
브라질			베네주엘라		
강성일 통합	토론토큰빛교회	임현수	정경석 침례	짜이프러스침례교회	박근서
강희동 미주	자비부담				
권한국 개혁	위싱턴한인침례교회	이상훈			
김용식 세계복음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김철기 현지	엠마오선교교회	예태해			
목만수 통합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성충경 세계복음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송진운 합동	서울동도교회	최훈			
양승만 합동	시카고중앙교회	이영재			
이준희 개혁	스테이트아일랜드연합교회	남학희			
전도명 현지의사	미동부기독교의료선교회	서홍석			

● 남아메리카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허원구 통합 RicardoRodriquez	뉴욕동양제일교회 강사 워싱턴중앙장로교회	김일광 이원상	온두라스 김상익 통합	휴스턴한인교회	정인찬
에쿠아도르			● 유럽		
최태중 개혁	시카고구세군영문 시카고서북그리스도의교회	김민제 김순철	스웨덴		
페루			손신철 통합 이성호	나성영락교회 자비부담	박희민
김복향 합동 박영환 통합 황윤일 통합	라성세계복음교회 북가주영락교회 워싱턴시온장로교회	이병희 이정근 이순각	독일		
콜롬비아			김승연 합동 육호기 합동 윤종만 이향모 통합 한은선	뉴욕퀸즈장로교회 자비부담 자비부담 송학대교회 자비부담	장영춘 방관덕
김경하 통합 김위동 통합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미장로교서북부한인교협	김득렬 정관봉	프랑스		
● 중앙아메리카			이극범 통합 이상구 침례 허광욱 감리 한은선	자비부담 자비부담 자비부담 자비부담	
과테말라			포르투갈		
안명수 증현선교 이철수 증현선교	나성증현선교교회 벤엘교회(MD)	정상우 송영선	강병호 고신	서울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멕시코			이탈리아		
신상길 통합 이성균 통합	시카고가나안장로교회 샌디에고장로교회	이용삼 홍충만	강광선 나사렛 이종율 고신 한평우 세계복음	자비부담 자비부담 싸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	이기홍
도미니카					
최광규 대신/GMF	뉴욕중부장로교회	이철			
파나마					
민병문 통합	자비부담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선교지/선교사	소속기관 후원교회/단체	담임/대표
영국			체코		
김옥태	자비부담		Stanislav Pietak	엘름허스트장로교회	변승지
전무엽	자비부담		헝가리		
정정옥	자비부담		Kalman Mezzaros	필라한인연합교회	림택권
최종상	자비부담		루마니아		
스페인			John Bochian	아틀란타영락교회	고원용
강화식 고신	자비부담		유고슬라비아		
김대영 고신	자비부담		Peter Kuzmic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김진신 고신	자비부담		그리스		
손영삼 CMA	L.A. 한인등대교회	이상남	러시아		
러시아			김재광 미주장로	토론토염광교회	김인철
김재두	자비부담		박진영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	장동찬
박형서 미주성결	토론토벤엘성결교회	최상봉	조영철 미주감리	벨리연합감리교회	차현희
최상용	자비부담		최원섭 기성	자비부담	
황상호 고신	믿음소망사랑교회	변의남	P. Shatrov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A. Bichkov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P. Konovalchik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N. Zverev	시카고한미장로교회	강신원	I. Korabliov	보스톤장로교회	전덕영
V. Ivanov	뉴욕한민교회	김정국	C. Borisovich	토론토영락장로교회	이석환
Hwang, Mikhail	버팔로한인장로교회	김영한	Ro, Chigun 통역		
불가리아					
Stankov Luben	서울구로중앙교회	곽전태			

